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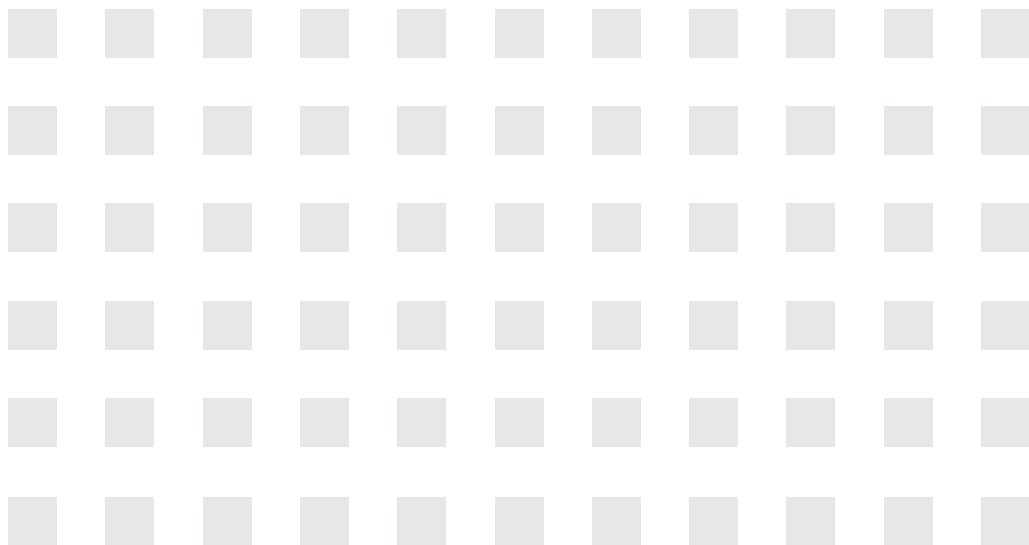
JRI

제주신화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 연구

- 그리스신화의 경우와 비교하여

—

양영수



발 간 사

신화는 민족정신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담고 있는, 문화자산의 하나입니다. 또한 신화를 문예창작의 원소재로 활용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예술작품으로 재생산되어,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역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주도는 1만 8천 신들의 고향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신화 이야기들이 구비전승되어와 다양한 방법의 신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신화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 연구>는 제주신화의 서사구조를 그리스신화와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 신화의 구조적인 차이를 추출하는 작업은 제주신화에 기초한 스토리텔링 재구성 작업에 여러가지 유용한 시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 연구는 그리스신화를 스토리텔링 모티브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문예작품들도 분석하고 있어 제주신화가 스토리텔링 재구성의 소재로 쓰일 경우에 어떤 점에 유의하고 서사구조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연구 책임을 맡아 애쓰신 제주대학교 양영수 명예교수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연구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은 제주학연구센터 임승희·고은솔 선생님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0년 12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 순 자

목 차 CONTENTS

1부. 스토리텔링 재구성을 위한 제주신화와 그리스신화의

| | |
|-----------------------------------|----|
| 서사구조 비교 | 1 |
| 1. 머리말 | 1 |
| 2. 인간을 보호하는 신과 경계하는 신 | 2 |
| 3. 인간의 도리 이야기와 인간의 본성 이야기 | 11 |
| 4. 기층민 신화와 영웅신화 | 20 |
| 5. 제주신화 서사구조의 스토리텔링적 발전 가능성 | 27 |
| 5-1. 열린 서사구조의 스토리텔링적 효과 | 27 |
| 5-2. 중층적 서사구조의 스토리텔링적 효과 | 29 |

2부. 문예창작 모티브로 활용된 신화 이야기들 34

| | |
|--|----|
| 1. 그리스신화 이야기를 모티브로 활용한 문예창작의 사례들 | 34 |
| 1-1. 셰익스피어 작 <트로이러스와 크레시다> (Troilus and Cressida, 1602) | 34 |
| 1-2. 라신느 작 <페드르>(Phedre, 1677) | 36 |
| 1-3. 글루크 작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1762> 및 오펜바흐 작 <지옥에 간 오르페, 1860> | 38 |
| 1-4. 웰리 작 <사슬 풀린 프로메테우스> (Prometheus Unbound, 1820) | 40 |
| 1-5. 괴테 작 <파우스트>(Faust, 1831) | 42 |
| 1-6. 제임스 조이스 작 <율리시즈>(Ulysses, 1922) | 44 |
| 1-7. 유진 오닐 작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 (Mourning Becomes Electra, 1931) | 47 |
| 1-8. 볼프강 페테젠 감독의 영화 <트로이> (2004) | 51 |
| 1-9. 요약과 제언 | 52 |

2. 제주신화 이야기를 모티브로 활용한 문예창작의 사례들 ... 55

- 2-1. 음악극 대본(1999, 2018)에 모티브로 활용된
〈자청비〉 이야기 55
- 2-2. 연극 대본에 모티브로 활용된 〈자청비〉 이야기 57
- 2-3. 연극 대본에 모티브로 활용된 〈백주또〉 이야기 58
- 2-4. 연극대본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2013〉의
모티브로 활용된 〈가문장아기〉 이야기 59
- 2-5. 영화 〈신과 함께, 죄와 벌〉(김용화 감독, 2017)의
모티브로 활용된 〈저승차사〉 이야기 61
- 2-6. 설문대할망 설화의 스토리텔링 재구성 63

3. 문예창작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제주신화 재인식의 방향 ... 66

참고문헌 73

Abstract 74

연구요약

종전에는 민족정신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발견하는 일에 연구 초점을 두던 민족신화 연구자들의 관심이 근래에는 많이 달라져서, 신화를 하나의 문화자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원(原)소재로 활용하는 스토리텔링 재구성에 기초하여 다양한 예술작품이나 관광문화상품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문화산업 진흥의 시각에서 각 민족의 신화를 바라보게 되었다. 민족신화를 원소재로 하여 스토리텔링을 재구성하는 작가는 그 신화의 서사구조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발상이 본 연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신화에 기초한 스토리텔링 재구성의 관점에서 신화의 서사구조를 비교하는 대상을 그리스신화로 잡은 이유는, 그리스신화의 제반 특징들이 감동적이고 흥미있는 스토리텔링 재구성 작업에 유리한 강점을 이룬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주신화에서처럼 인간의 행복을 도와주기 마련인 호의적인 신들의 이야기보다는 그리스신화에서처럼 인간의 행복을 시샘하고 경계하는 신들의 이야기가 극적인 긴장미를 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주신화에서처럼 권선징악적인 ‘인간의 도리 이야기’보다 ‘인간의 다양한 본성’을 드러내는 그리스신화 이야기가 사람들의 흥미를 돋우기가 더 쉬운 것은, 인간의 본성이란 끝없는 의문과 놀람의 여지를 남기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신화는 기층민들의 소박한 생활에 기초한 것임에 반하여 그리스신화는 발군의 능력과 용맹함이 돋보이는 영웅들 이야기라는 점이 스토리텔링적 효과를 증대시킨다. ‘기층민신화’인 제주신화는 화평적인 서사구조임에 반하여, ‘영웅신화’인 그리스신화는 상쟁적인 서사구조를 이루는 것이 스토리텔링적인 흥미와 매력을 끌어내는 것도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제주신화는 ‘닫힌 서사구조’이고 그리스신화는 ‘열린 서사구조’라고 하는 두 지역 신화의 구조적인 차이를 추출하는 작업은, 구체적인 신화 화소들을 비교 검토하는 다소 투박한 수준의 이해와 감상 과정을 거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주신화에 기초한 스토리텔링 재구성 작업에 유익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스신화를 스토리텔링 모티브로 삼는 대표적인 문예작품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제주신화와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사항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 그리스신화의 경우에 신화를 모티브로 하는 문예창작 재생산의 품목이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것은, 물론 그리스신화의 장구한 역사와 유럽문명의 세계화라는 창대한 역사적 배경 때문이기도 하고 뛰어난 작가들의 노력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창작소재로서의 신화 이야기 자체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스신화 속의 창작소재가 다양한 작가들의 손에서 재가공 재생산되어 원소재와는 매우 다른 창작품이 출현한다는 것은 그리스신화에 내재하는 ‘열린 서사구조’에 기인한다는 생각이다. 원소재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작품, 때로는 원소재와 정반대되는 취지의 작품이 재생산되어 온 것이 문화자산으로서의 그리스신화가 세계문예사 발달에 기여해온 역사인 것이다. 제주신화의 본질적인 특징이 ‘닫힌 서사구조’에 기인하기 때문에 제주신화를 모티브로 하는 스토리텔링의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인정한다는 사실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된다.

1부. 스토리텔링 재구성을 위한 제주신화와 그리스신화의 서사구조 비교

1. 머리말

종전에 신화 연구가 관련 학계에서 많은 관심과 인기를 끌었을 때에는 각 민족의 신화가 그 민족의 원형적인 사고방식의 표현이고 집단적 무의식의 결정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오랜 역사를 통하여 신화를 형성 발전시켜온 민족정신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여 민족집단의 결집력을 강화하고 정서적인 공감대를 확장할 수 있다는 역사의식이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아직도 신화연구의 열기는 계속되고 있지만 근자에는 그 관심의 초점이 많이 달라진 듯하다. 신화를 하나의 문화자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원(原)소재로 활용하는 스토리텔링 재구성에 기초하여 다양한 예술작품이나 관광문화상품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문화산업 진흥의 시각에서 각 민족의 신화를 바라보게 된 것이다.

신화 속에서 민족정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종전의 신화 연구는 신화를 과거에 이미 형성되어 우리에게 전승된 확정적인 문화유산으로 보는 반면에, 신화를 일종의 문화자산적 가치의 면에서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후세인들의 창조적인 재생산의 노력을 기다리는 잠재적 가치의 문화유산으로 본다. 전자가 신화의 본래적인 의미 구명을 추구하는 수렴적인 연구방식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신화의 효용적인 의미 확대를 추구하는 확산적인 연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신화를 원소재로 하여 스토리텔링을 재구성하는 작가는 그 신화의 서사구조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마치 훌륭한 건축물을 세우려는 건축가가 자기가 사용할 건축재료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숙지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하겠다. 오래 전 인간이해의 지적인 수준이 저급한 시대에 형성된 특정 신화의 창작자와 향수자 집단은 어떤 욕구를 갖고 있었는지, 그 신화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어떤 성격이었고 그들 간의 종적 횡적 관계는 어떠했는지, 그 신화의 서사구조와 내용은 어떤 특징들이 있으며 그런 특징이 생겨난 데에는 어떤 역사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신화의 서사구조가 지닌 제반 특징을 구명하기 위하여 그리스신화와 비교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어떤 신화의 구조적인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추출하는 좋은 방법은 다른 민족의 신화와 상호 비교해 보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제주신화와 비교하는 대상을 그리스신화로 잡은 것은, 신화를 원소재로 삼아 활발한 스토리텔링 재구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경우가 그리스신화라고 보기 때문이다. 고대그리스의 신화는 2천년이 넘는 서양역사에서 무궁무진한 예술창작의 모티브로 쓰여 왔다. 그리스신화는 단순히 재미 있는 이야기로도 널리 읽혀지고 있지만, 문학을 비롯하여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등 다방면의 예술창작자들이 천착하여 소재로 활용하는 끝 모를 광맥이 되어온 것을 보면서 우리 제주도 신화의 문화자산적인 잠재력을 이에 견주어서 되짚어보자는 생각이다.

제주신화에 기초한 스토리텔링 재구성의 관점에서 그리스신화와의 비교를 시도하는 또다른 이유는 그리스신화의 제반 특징들이 감동적이고 흥미있는 스토리텔링 재구성 작업에 유리한 강점을 이룬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인간의 행복을 도와주기 마련인 호의적인 신들의 이야기보다는 인간의 행복을 시샘하고 경계하는 신들의 이야기가 극적인 긴장미를 더할 것이다. 권선징악적인 인간의 도리 이야기보다 인간의 다양한 본성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듣는 이의 흥미를 돋우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릇 인간의 본성이란 끝없는 의문과 놀람의 여지를 남기기 때문이다. 제주신화의 화평적인 서사구조보다 그리스신화의 상쟁적인 서사구조가 더 흥미있을 것임은, 원래 사이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인기있음과 같은 이치라 하겠다. 이 같은 고찰을 확인하게 되면, 제주신화가 스토리텔링 재구성의 소재로 쓰일 경우에 어떤 점에 유의하고 서사구조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인간을 보호하는 신과 경계하는 신

제주신화에서는 신들의 존재이유가 인간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데에 있다. 신들의 존재 자체가 인간세계의 존재를 전제하고, 인간이 기원하는 일들을 잘 들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신들의 관심사인 것이 제주신화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그리스신화에서 신들의 존재이유는 신들 자신의 사랑과 권력(투쟁)을 즐기는 데에 있다. 그리스신화의 창조신들은 인간이 창

조되기 이전부터 치열한 권력투쟁에 몰두하며 인간을 창조하는 일조차도 올림푸스 주신(主神)들의 희망사항이 아니었다. 제주신화와 그리스신화 간에는 인간이 신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제주신화에서는 인간세상에 복을 내려주는 고마운 신들에 대해 인간이 반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인간은 신들에 대해 순종하고 숭복하는 태도가 있을 뿐이다.¹⁾ 이에 반해, 그리스신화에서는 인간세계에 대한 신들의 통치방식이 독단적이고 전횡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한편으로는 신의 가호를 청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의 통치에 대해 반발하고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리스신화의 신인(神人)관계 중심은 도전과 응징의 관계이고, 자연현상의 자기보존 원리를 구현하는 초월적인 신들의 존재방식은 인과응보적인 자연법칙의 재현처럼 보인다.

제주신화에서 창세신인 천지왕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지상에다 인간이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인간세계를 다스릴 통치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천지왕은 지상세계로 내려와 아들을 얻기로 결심한다. 그의 아들들인 대별왕과 소별왕은 인간세계 통치의 책임자를 고르는 합의에 이르고 나서 여러 개이던 해와 달을 하나씩만 남겨놓고 초목과 금수까지도 말을 하는 혼란상을 끝내주는 등 인간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질서를 잡아준다. 그리스신화에서 최초의 남성인간을 창조한 신은, 올림푸스 주신들의 전횡에 대한 반항심에 차있는 하위신 프로메테우스이며, 최초의 여성인간인 판도라는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의 반항에 대한 응징으로 만들어낸 ‘인간세계의 재앙’이었다.

제주신화 본풀이를 모두 구송하는 큰곳에서 청신(淸神) 대상이 되는 주신들과 그리스신화 주신들인 올림푸스 12신 집단의 진용을 비교해 볼 때에도 이 같은 신들의 성격 차이가 드러난다. 제주신화의 주신들은, 출산신인 삼승할망, 농경신인 세경신, 가정수호신인 문전신, 무조(巫祖)신인 초공신, 환생꽃감관 자리에 있는 이공신, 운명신인 삼공신, 풍농신인 칠성신, 저승의 질서를 다스리는 시왕신과 멩감신 등 모두가 일상적인 인간생활의 주요 관심사를 관장하는 신들이다. 제주신화는 원래가 인간의 기복척사(祈福斥邪) 소망에서 탄생한 신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출산, 무병장수, 풍작, 치부 등 인간의 주요 관심사가 곧 신들의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그리스신화에서는 우주적인 천문현상을 다스리는 제우스, 전쟁 등 국가존망의 대사를 관장하는 전쟁신인 아테나와 아레스, 태양의 운행과 신탁(神託, oracle)의 구현을 다스리는 아폴로, 과열된 사랑이나 미움의 치정사건에 뛰어들어 세상을 어지럽히기 좋아하는 아프로디테와 아르테미스 등 대체로 일상적인 인간생활과는 거리가 먼 위압적인

1) 제주신화의 신령들이 모두 선량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본풀이 이야기 중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주인공들은 전부가 인간의 행복을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제주신화 연구가 현용준의 저서에서 한 부분을 인용한다. <심방이 하는 의례에는 악령을 쫓아냄으로써 질병이나 재앙을 물리치는 의례도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구축의례(驅逐儀禮)는 독립된 무의(巫儀)로서 있기보다는 기본 형식의 의례 속에 그 일부로 끼어있거나 부수적 행사로 행하는 것이다.> (현용준, 『제주도 무속연구』, 48) <신들은 선악이 분명하지 않지만, 거의 선신이란 면이 짙다.> (상계서, 56)

신들의 권력이 강대하며, 농경신이나 가정수호신에 해당하는 신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활동상이 인간중심적이지 않고, 출산신이나 풍농신 등의 존재는 미미하다. 밑바닥 인간세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걱정꺼리 문제들은 신들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다.²⁾

제주신화에서 신들의 관심사는 인간세상에 대한 보살핌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들이 무조건적으로 인간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 대한 신령의 가호가 있기 위해서는, 첫째 성품이 착하고 인간세상에 공덕을 쌓은 사람일 필요도 있지만, 둘째로는 초인적인 영험을 비는 곳이나 비넌, 정성껏 갖다바치는 희생이나 제물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제주신화의 본풀이는, 중생 가운데 섞여 살던 인간이 신령의 위치로 격상되는 과정을 ‘근본을 풀 듯이’ 엮어내는 것인데, 신령으로의 격상이 이루어지는 조건 중에 하나는 자력에 의한 격상이고, 다른 하나는 타력에 의한 것이다. 하나는, 인간 자신의 비범한 능력 발휘나 고난의 시련 끝에 얻어지는 성취이고, 다른 하나는 정성껏 올리는 치성에 의해 소원이 신격을 얻는 경우이다. 전자로는 삼승할망, 가문장아가, 원강암, 자청비, 녹디생이 등이고, 후자로는 소만이, 지장아기, 칠성신 등이며, 조지맹왕아가씨는 그 중간이라 할 수 있다. 그냥 인간세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경우에는, 신령의 가호를 얻는 경로가 자력에 의한 공덕 쌓기보다는 기복 의례를 통해 치성을 올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제주신화 이야기에서 득남이나 무병장수를 바라는 사람이거나 부자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절간에 가서 불공을 드리든가 곳이나 비넌의 의식을 통하여 신령들의 가호를 비는데, 이처럼 지성으로 바친 치성이 효험을 가져오지 않는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인간의 청원 사항 중에 중요한 것이 자식 보는 일이다.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 칠성본풀이, 지장본풀이 등 일반본풀이와, 월정리를 비롯한 여러 곳의 본향당본풀이에서 이야기의 서두는 무자식 팔자를 슬퍼하다가 절간에 불공을 드리고 소원을 이룬다는 말로 시작된다. (제주도 전통사회에서는 무속신앙과 불교신앙이 대거 융합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 전통사회에서 자식 보는 것이 가운번창의 우선적인 요건이었으므로 출산신의 직능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고, 출산신 삼승할망의 서열은 주신들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한다. 최고신 옥황상제의 특별한 주재까지 함께하여 출산신으로

2) 그리스신화에서 인간의 존재가 신들에게 경멸이나 경계의 대상이라는 것이라는 점은 제주신화와 다른 중요한 특징이라 생각되므로 로이드 존스(Hugh Lloyd-Jones)의 참고문헌 중에서 몇 구절을 인용하고자 한다.

(1) <‘신들은 인간을 보기를 가엾게 여기면서 경멸한다.’>

(The gods look upon men with disdain mingled with slight pity, p. 3)

(2) <고대그리스의 종교는 인간중심이지 않다. 인간은 우주 안에서의 지위가 낮고, 신들의 관심사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The Greek religion is not anthropocentric; men have only a minor status in the universe and a minor place in the attention of the gods, 160)

(3) <신들은 우주를 통치함에 있어서 인간보다는 신들 자신의 입장을 우선하며, 인간의 행복에 대한 배려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The gods govern the universe not in men's interest but in their own, and have no primary concern for human welfare, 161)

간택되는 맹진국따님의 험난한 시련과정이나 삼승할망이 거느리는 위풍당당한 행차 권속은 출산신의 역할이 막중한 것임을 말해준다. 이에 반해 그리스신화에서는 가정수호신인 헤라가 남편 제우스의 소생이 출산할 때 관여할 뿐이고, 처녀성과 숲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명목상의 출산신을 겸하면서도 활동상은 별로 없는 등 인간의 출산문제는 신들의 주요 관심사에서 밀려나 있다.

인간이 간절한 기원을 올리면 불력(佛力)이든 신력(神力)이든 이에 호의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제주신화 이야기에서 하나의 정칙(定則)처럼 되어있다. 자식 보는 일만이 아니라 생사의 운명까지도 신들의 관여로 좌우되는 것이다. 소만이본풀이에서는 조상제사를 해태하여 죽을 운명에 처한 소만이 자기를 잡아가려고 온 저승차사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해줌으로써 수명을 크게 늘린다. 차사본풀이에서는, 과양생 처의 탐욕 때문에 죽어갔던 버므왕 세 아들의 원혼이, 영특한 강림과 염라대왕의 용단에 따라서 과양생 처 자신의 억울한 신원(伸冤) 처벌이 이루어짐을 계기로 기적의 환생을 맞게되는데, 이는 인간세상의 억울한 죽음이 고마운 신령의 힘으로 해원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서, 인간의 복락을 위해 존재하는 제주신화 신들의 성격이 잘 나타난다고 하겠다. 신앙민들이 자주 찾는 각 마을 신당으로는 일렛당이 있는데, 이곳 당신(堂神)의 존재이유는 오직 마을 주민들이 바치는 치성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의 신병을 고쳐주는 일이며, 일부 마을에 존재하는 여드렛당 당신과 칠성신은 성폭력 신원과 가운뎃창의 청원을 들어주는 일을 맡았다. 제주신화의 이야기는, 주인공들이 부딪치는 어려운 문제들이 신령스러운 힘의 개입으로 용하게 풀린다는 해피엔딩의 서사구조를 이룸으로써 무속신앙인 대중의 공감을 자아내고 신에 대한 순종과 승복의 태도를 조성하는 기반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무속신앙인의 공감을 자아내는 데에 필요한 것은, 이야기 주인공들이 여러 방면의 직능신으로 간택되기까지 겪는 시련의 과정이라 하겠다. 제주신화의 여러 직능신들은 제각기 자기 영역에서 인간세계 보살핌의 능력과 자격을 얻느라고 험난한 시련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주인공들의 시련이 혹독한 것일수록 이를 통하여 비범한神通력을 얻어서 인간세상의 수호신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자아낸다고 할 수 있다.

제주신화의 서사구조는 대체로, 주인공들이 이야기 초반에 부딪쳤던 역경이나 장애물을 용기와 지혜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범한神通력의 도움을 받고 결국에는 화평과 복락을 맞는다는 내력담의 형식인데, 이런 이야기는 자애로운 신들의 가호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제주신화의 모태는 무속신앙이고, 인간세계의 복락을 보살피지 않는 신들의 존재는 무속신앙의 발생원리에서 볼 때 모순적이라 할 수 있다. 무속신화는 말하자면, 굿이라는 드라마의 각본과도 같은 것이고, 굿 의식의 행사를 요청하는 무속신앙인들인 고객들이나 굿 드라마를 감상하는 관객들의 요망과 성향을 무시하는 각본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직능신으로서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시련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상술한 바 삼승할망본풀이의 서사구조이고 여타의 본풀이들도 이와 유사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초공본풀이에서는 잿부기삼형제가 어머니의 죽음을 당하여 과거급제를 포기할 불행에 직면하지만, 전생 팔자를 그린친 자신들에게 신통력이 주어짐을 계시받아 평생의 진로를 바꿈에 따라서 어머니를 살려내고 무조신(巫祖神)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공본풀이에서는 서천꽃발 꽃감관의 아들 할락궁이가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과 가족들의 생이별이라는 불운에 처하지만 비상한 용기와 지혜를 발휘하여 감격적인 부자상봉을 이룬 끝에 대망의 꽃감관 자리에 오르고 죽었던 어머니를 살려낸다. 초공본풀이와 이공본풀이에서 험난한 시련 끝에 무신(巫神)세계와 환생꽃발의 주재자로 뽑힌 주인공들은 초공신과 이공신으로 좌정하고 나서 인간세계의 무속신앙과 죽음 극복의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내공을 쌓는다는 서사구조인 것이다. 문전본풀이에서는 남선비의 막내아들 녹디생이가 용기와 지략을 발휘하여 죽었던 어머니를 살려내고 가정의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이들 가족 모두가 가정수호의 역할을 배정받는 계기를 이루는데, 험난한 시련 끝에 가정파탄을 극복한 주인공들은 가정수호신이 될 만하다는 믿음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각 마을의 당신본풀이에서는 부부간의 다툼이 양보와 타협에 의한 의견조정으로 화해에 이르는 이야기가 대다수이며, 특히 육지에서 들어온 외래인이 제주섬에 정착하는 어려움을 기지로 풀어가는 이야기가 돋보이는데, 이 모두가 험난한 시련 끝에 행복한 결말을 맺는 서사구조이다.

그리스신화 중에는 직능신으로서의 능력과 자격을 얻기 위한 준비과정인 장기간의 험난한 시련 이야기가 나와있지 않음이 주목을 끈다. 이들 직능신들이 갖는 능력과 자격은 절대권력의 지배신 제우스의 통치구상에 의해 적절하게 안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올림푸스의 창조신들은 처음부터 신의 신분으로 등장하고 자기 영역에 대한 통치 능력을 지닌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직능신으로서의 자격이 그냥 자명한 것처럼 보인다. 그냥 자명하게 존재하는 자연현상들의 비유적인 재현이 그리스신화의 신들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특별한 시련이나 수련과정도 필요없이 직능신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는 봉사의 대상도 없는 이 같은 신들이 인간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까닭은 없어 보이고, 이 같이 무심하고 무정한 신들에게 대해 인간이 존경과 신뢰를 보내지 않음도 당연한 일처럼 보인다.

자신의 부신(父神)인 크로노스를 폭력으로 퇴치하고 지배신으로 등극한 제우스신의 행태도, 그의 최대 관심사가 인간세상 보호에 있지 않고 자기 권력의 유지에 있음을 보여준다. 제우스는 헤라여신을 정식 부인으로 삼기 전에 메티스여신과 정사를 벌이고 잉태를 시키지만, 그 태아가 세상에 태어나면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신이 될 거라는 예언을 듣고는 그 여신을 통째로 집어삼켜버린다. 헤라 여신은 제우스의 누이이면서 가정수호신이기 때문에, 그의 끊임

없는 외도행각을 극성맞게 감시하기는 하지만 부부관계를 파탄내지는 않을 것이 확실하므로 이들 남매신이 부부가 되는 것은 제우스의 절대권력 유지를 위해 최상의 선택이라 할 것이다. 신들은 간혹 인간과의 정사를 벌일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인간에게 행복이 아닌 파멸을 안겨줄 때가 많다는 것은 신들의 진정한 뜻이 인간 사랑이 아님을 보여준다 하겠다. 새벽의 태양신이자 경박한 사랑의 여신인 에오스는, 부부사랑이 지극한 테살리 왕자 케팔루스에게 반하여 추파를 던져보지만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은 나머지 케팔루스 부부 사이에 공연한 불륜의 의혹을 심어줌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가정파탄에 이르도록 만든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아폴로신의 구애를 받은 트로이 공주 카산드라는 과분한 행운의 불길한 결말에 지레 겁을 먹고 거부 반응을 보이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아폴로는 사랑을 저주로 돌변시키는 심술을 부린다.

그리스신화에서의 신인(神人)관계는, 제주신화에서처럼 신들이 인간을 보살피고 인간은 신들에게 경배하고 봉헌하는 상호 보은의 관계가 아니고, 지배자와 반항자의 사이처럼 상호 투쟁적인 긴장관계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신들에 대하여 경원할뿐더러 특히 비상한 능력의 소유자인 영웅들은 신들에게 도전하는 오만죄를 범한 결과 가혹한 응징을 받는 예가 많다. 신들은 자기네보다 훨씬 무력한 인간에 대해 동정하고 도와주기보다는 경계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인간은 신들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엄격히 금지된다. 고대그리스의 신화를 확대 발전시킨 그리스의 고전비극에서 영웅적인 주인공들이 왕왕 비참한 최후를 맞는 이유는 오만함(hubris)이라고 알려져 있거니와, 그리스신화에 나타난 인간의 오만죄는 다양하고도 역사 오랜 것이다.³⁾

그리스신화에서도 신이 인간의 소원성취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예들이 적지 않지만, 신은 인간의 행복을 경계한다는 그리스신화의 기본 원리는 불변이다. 프로메테우스 신이 올림푸스신들의 전유물이던 불을 인간세상에 선물하여 문명발달의 기초를 놓아준 것을 필두로, 사랑의 여신은 남녀간의 사랑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처녀성의 여신은 무모한 사랑에 의한 인생의 파괴를 막아준다. 나라마다 있는 수호신들은 그 나라의 건국과 번영을 책임진다. 대표적인 덕장으로 치는 페르세우스가 메두사 퇴치의 위업을 이룬 것도 여러 신들의 도움 덕분이다. 그러나, 그리스의 신들은 인간세계의 조력자 역할을 할 때에도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3) 그리스 고전 비극에 나오는 영웅들이 신들에게 대립적이고 적대적임은, 인간이 신들에게 거역할 줄 모르는 제주신화와 크게 다른 점이므로 관련 문헌에서 약간의 인용을 첨부한다.

(1) <고대그리스 정신의 특징은 호머의 두 서사시 도처에 있다. 영웅들이 불굴의 용기와 정신력으로, 인간이든 신이든, 적에게 대항하고 운명의 신에게도 끌림이 없다는 것도 그러한 특징이다.>

(The stamp of the Greek genius is everywhere on his [Homer's] two epics, in the courage and undaunted spirit with which the heroes faced any opponent, human or divine, even Fate herself. Edith Hamilton, The Greek Way, 177)

(2) <그리스의 고전비극은 인간과 조물주 사이의 충돌을 그린다.> (The Greek classical drama) is the conflict between men and the power that shapes him, ibid., 186)

것은 아니고, 인과론적인 필연성이 신들의 개입 필요성과 부합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 이야기이다. 오레스테스는 모친살해죄를 범한 탓으로 복수의 여신들이 가하는 고통을 당하고나서 아폴로 신과 아테나 여신의 도움으로 시민재판의 열린 논쟁 끝에 사면을 받고 재생의 길을 가는데, 그러한 사면재판의 근거는, 부친살해범을 복수하는 행동으로써 모친살해죄를 상쇄할 수 있다는 부모자식 간 인륜관계의 확인이다.

그리스신화에서 인간이 신들의 가호를 받지 못하고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간의 오만함과 자기과신 때문이다. 그리스신화 가운데 최대의 비극은 트로이전쟁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영웅들 대부분이 오만죄를 범한 탓에 갖가지 응징을 받고 불행한 최후를 맞는다.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트로이전쟁 비극의 최대 발원지이면서 그 최대 피해자라 할 아트레우스 가문의 선조들이 범한 오만죄의 응징이 대물림되어 후대의 비극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아트레우스 가문의 시조인 탄탈루스는 제우스신의 아들이라는 자만심에 부풀어 올림푸스산에 올라가서 함부로 신주(神酒, nectar)를 마시거나 신들에게 가짜 음식을 갖다바치는 과썸죄를 범한 적이 있었다. 탄탈루스는 또한, 자기 아들 펠롭스를 죽인 후 그 신체를 불에 구워서 올림푸스 신들에게 먹으라고 내놓는 등 신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어처구니없는 오만함을 보인다.

탄탈루스 가문이 아닌 사람들 중에도 오만죄 때문에 파멸에 이르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많이 있다. 지옥에 들어간 시지푸스 왕이 바윗돌을 산위로 굴러올리는 끝없는 형벌을 받는 것은, 그가 감히 죽을 운명을 거부했거나, 최고신 제우스의 외도행각 소문을 인간세상에 퍼뜨리는 과썸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시지푸스의 손자 벨레로폰은 천마(天馬, Pegasus)를 타고 감히 신들의 성소(聖所)인 올림푸스산에 오르려고 하다가 낙마하여 죽고만다. 테에베 왕인 펜테우스는 새로이 신의 지위에 오른 디오니소스의 신격(神格)을 인정하지 않은 죄로 잔혹한 죽음을 당한다. 인간의 오만과 신들의 인간 응징이야말로 그리스신화를 읽는 재미의 핵심이라고 할 만하다.⁴⁾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에 있어서도 제주신화의 신들은 인간세상의 수호신 같은 성격이 연장되고 있음에 반하여, 그리스신화의 신들은 인간에게 냉혹하고 비정하다. 제주신화 가운데 멧감본풀이나 차사본풀이를 보면, 죽음 다음의 저승세계가 별로 무서운 곳이 아니며, 죽음을 앞둔 인간이 저승차사의 배려에 의해 죽을 때를 연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온다. 죽었던 사람이 환생꽃의 영험으로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나오는 것이 제주신화이다. 제주신화에서 여러 차례 나오는 서천꽃밭으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신령스러운 환생꽃이

4) 〈호머담게 극적인 서사는, 인간의 위태로운 오만함과 징벌의 여신 네메시스의 불가항력적인 복수를 단순하게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고전 그리스비극의 핵심 테마이다.〉

(Homeric and dramatic, too, is the simple elucidation of the dangers of hubris and the irrevocable vengeance of Nemesis — the kernel, as it were, of a theme that dominates the Greek tragedy. Classical Mythology, 87)

인간에게 전해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신인(神人)관계의 격절성(隔絶性)이 강고한 그리스신화와 대비된다. 그리스신화에서는 인간이 한번 죽은 다음에는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음이 오르페우스와 유리디케 이야기에 나온다. 제주신화에서는 저승세계의 염라대왕이 이승세계에 나타나 인간과 얼굴을 마주하여 말을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신화에서 죽음의 신인 하데스는 인간이 똑바로 마주볼 수도 없을 정도로 무서운 존재이다. 멸망꽃이나 환생꽃으로 사람이 죽거나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제주신화 본풀이에 많이 나오는 것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잔인무도한 형벌 같은 것이기보다는 안온한 대자연의 품속에 안기는 것이라는 연상을 자아낸다고 할 것이다. 신령세계와 인간세계 사이에 교신과 왕래의 길이 트여있음은 신통력의 가호를 기원하는 무속신앙의 본질적 특징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죽은 다음의 저승세계가 완전한 무(無)는 아니라는 상념은 인간 존재의 가능성 범위가 눈에 보이는 현재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인데, 제주신화 삼공본풀이에 나오는 바 인간운명의 개념도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가능성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운명의 일방적인 횡포를 극복한다는 데에 묘미가 있다. 삼공본풀이에서 영특하고 자립심 강한 가문장아기는 부모의 보호를 마다하고 가출한 다음에 알 수 없는 신통력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는데, 이 같은 서사구조는 자력갱생의 일념으로 노력하는 인간에 대한 신들의 축복을 전제한다고 생각된다. ‘배꼽 밑에 선 그릇 덕에 잘 산다’는 가문장아기의 말은, 자신에게 정해진 타고난 운명에 따른다는 체념적인 운명론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전개되는 이야기는 운명에 대한 체념을 넘어서고 있다. 부모 슬하의 안락한 환경이 보장된‘기정(既定)의 운명’을 박차고 나오는 가문장아기 이야기는, 어떤 풍상에 부딪칠지 모르는 ‘미정(未定)의 운명’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한다는 반운명론적인 자립정신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운명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운명의 진면목이라는 것이 <삼공본풀이>가 노래하는 운명론이다’(조현설, 300)라는 말처럼, 여기에 나타난 운명관은, 거대한 운명의 힘에 맞서봐야 무력한 인간은 쓰러지게 마련이라는 외디푸스 비극의 함의와는 다르다고 생각된다.

그리스신화는 제주신화에 비해 인간 존재의 중요성을 크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데, 인간 존재에 대해 위압적인 신들의 횡포가 담겨있는 이야기가 오이디푸스 왕의 비극이다. 아폴로신전의 신탁을 운명적인 자연법칙을 인간세계에 구현하는 신의 뜻이라고 할 때, 오이디푸스가 부친살해라는 신탁의 운명을 면하려고 자기 부모의 신변을 멀리 떠나는 바람에 바로 그 부친살해의 패륜죄를 범한다는 서사구조는, 운명으로서의 자연법칙을 거역하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인륜도덕을 거역하는 것보다 더 큰 죄임을 의미한다. 아르고스 왕 아크리시우스는, 자기 외손자인 페르세우스의 손에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신탁의 예정을 피하기 위해 멀리 이웃나라로 피난을 가지만, 바로 그 피난지에서 페르세우스가 뿔 모르고 던진 원반을 맞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 웅대한 자연질서의 오묘한 이치를 새삼 곱씹게 하는 점도 있지

만, 불행을 피하려고 택한 길이 오히려 그 불행을 자초하고 만다는 세상사의 역설이 감지되는 이야기라 하겠다. 그리스신화에서 우주 속의 인간운명론에 해당되는 신탁의 개념은, 신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나 인간의 자구(自救)노력에 의한 운명 극복이 얼마나 부질없는 헛수고 인지를 보여준다. 그리스신화는 일면적으로는 인간적인 삶과 능력이 최선의 것이라는 인간 예찬의 휴머니즘을 함축하면서도 다른 일면에 있어서는 신들의 횡포에 짓눌리고 운명의 노리개가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가없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같이 슬픈 인간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신탁의 함정에 빠지는 오이디푸스와 같은 영웅들의 비극이다.⁵⁾ 신은 알고 있는데 인간은 알지 못하는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간 운명의 이야기는, 오묘하고 신비로운 대 자연의 법칙 앞에서 끝없이 방황하는 인간의 역사를 재현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스신화에는 운명의 여신(Fates; Moirae) 3자매가 나오는데, 이들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인간의 생명의 실을 갖고 나누어주고 끊어버림(spining, measuring out, cutting)에 따라서 인간의 수명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는 가차 없이 엄혹한 인간 운명의 뜻을 전해준다.

그리스신화에서 신들의 주된 관심사가, 피지배 계층인 풀뿌리 백성들의 일상사가 아니라, 강력한 통치권 행사를 요하는 국가존망의 대사라는 사실은, 인간 역사를 약육강식하는 자연 현상의 논리로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신화에서는 신들의 속성 자체가 자연현상의 상징적 재현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인간역사에 내재하는 법칙이나 질서도 자연현상에 서처럼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고, 자연의 질서에서 최고의 가치는 생명의 존속 자체에 귀속된다는 말이 인간역사에도 해당됨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신화라 할 수 있다. 제우스 신을 정점으로 하는 그리스신화의 세계지배 체제에서는, 인간의 오만방자함에 대한 신들의 경계만으로는 확고한 권력 구축이 어렵고 이와 더불어 필요한 것은 신들의 통치에 대한 인간의 승복과 충성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신화의 신들은 오만한 인간이 분에 넘치는 과욕을 부리거나 신들에게 반발하는 것은 참지 못하고 가차없는 응징을 내리는 반면에, 신들의 통치 방식을 지지하고 찬양해주는 인간에 대해서는 이에 합당한 보호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인간세계에서 독재권력의 일방적인 전횡보다 쌍방향의 상호협력적인 통치가 더 확고한 권력구조를 낳을 수 있다는 정치현실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도시국가 아테네가 건국될 때 포세이돈 해신과의 경쟁 끝에 이 나라의 수호신이 된 아테나 여신은 올리브나무를 들여와 아테네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등 이 나라의 안전과 융성에 이바지하였다. 이

5) 〈고대그리스의 문학과 사상은, 신의 압도적 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점철되어있으며, 가공할 불안과 위험에 직면하여 인간이 이루어놓은 영예롭고 찬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운명의 노리개라는 피치 못할 아이러니를 인식했음이 밝혀진다.〉

(Greek literature and Greek thought are shot through with an awesome reverence for the supremacy of god, a tragic realization of the irony of man's dilemma as the plaything of fate, however glorious the triumphant heights to which mortals may attain in the face of dreadful uncertainties and terrors, *ibid.*, 87)

와는 달리 상호 신뢰와 협력의 신인(神人)관계가 부재한 것이 크레타의 미노스 왕의 경우이다. 그는 크레타 건국 시에 포세이돈 해신에게 은덕을 입었는데도 이 해신이 세간의 평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제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복으로 자기 아내 파시파에가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출산하는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 초목 성장의 여신 데메테르가 자기 딸 페르세포네가 죽음의 신 하데스에게 납치된 것을 슬퍼하여 지상의 초목 성장을 정지시키는 변고에 처하여 제우스 신은 계절 순환이라는 절충적 대안을 실시하여 인간세상을 구해주었다. 트로이전쟁에 나선 그리스 연합군 함대의 출정이 날씨 때문에 늦어질 때 아가멤논 사령관이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순항을 기원하는데 아르테미스 여신은 이를 수락하여 그리스 군을 돕는다. 아가멤논 왕의 아들 오레스테스가 억울하게 죽은 자기 부친에 대한 복수로 모친 살해를 범하고서 혹독한 징벌을 당하고 있을 때, 부자 간의 인륜이 모자 간의 인륜보다 더 중하다는 논리의 시민재판을 통해 그를 구해준 것은 지혜의 여신 아테나였다. 인간세계의 타락상에 실망한 제우스 신이 대홍수를 통해 인류를 지상에서 멸종시켰을 때 인류의 부활을 간청하는 프로메테우스의 탄원을 받아들인 제우스 신은,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누구에게 최고신의 위광을 떨칠 것인가 걱정했을 것이 아닌가 상상을 해본다.

3. 인간의 도리 이야기와 인간의 본성 이야기

위에서 살펴본 바, 인간의 행복을 도와주는 신이나 시샘하는 신이나 하는 문제는 그 신화의 생산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그 같은 신화를 창안하게 되었느냐를 밝혀냄으로써 그 신화의 서사구조가 형성된 유래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제주신화의 생산자는 무속 신앙 집단의 사제 격(格)인 심방들이고, 그리스신화의 생산자는 직업적인 결속이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시인이나 철인들이이었음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주도의 심방들은 주로 세습무(世襲巫)이기 때문에 누대에 걸친 굿 의례 경험의 축적에 힘 입어 굿 공연 각본으로서의 본풀이가 질적 양적으로 더욱 풍성해졌을 터이고, 이것이 제주도의 무속신화가 특별히 발달하게 된 바탕이라고 알려져 있다. 단골들을 직업상의 고객으로 삼는 심방은 굿 공연을 통해 전달되는 본풀이 내용을 고객들의 욕구와 취향에 맞춤으로써 그들의 공감과 추종을 얻을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이 같은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행복을 도와주는 선한 신령들의 출현이 불가피했을 것이

라고 추정된다. 신앙인들은 자기네가 바치는 치성의 효험을 믿으려면 치성을 받는 신령들이 인간의 행복을 도와주는 선한 존재라고 생각되어야 할 것이며, 고객들이 신령의 가호를 기원하는 곳 행사를 심방들에게 주문하려면 본풀이의 서사구조가 소원성취의 결말로 끝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선량한 신들이 인간을 도와주는 서사구조인 제주신화는 결국 인간의 도리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신화의 생산자가 자유로운 신분의 시인이나 철인이라는 사실은 그 신화의 서사구조가 자연법칙 구명의 욕구에서 구상되었음을 말해준다고 생각된다.⁶⁾ 물론 그리스신화 초기의 생산자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민중이었겠지만, 아직 일정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흩어져 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의미있게 체계화시키는 일은 후세에 이름이 알려진 신화학자들의 몫이었다. 그들은 직업적인 결속관계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신분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자연현상의 법칙과 질서를 구명하는 욕구에 충실할 수가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 구상은 인간의 도리보다는 자연현상의 일부로서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사색에서 출발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자연현상이란 것은 인간의 욕구나 소원에 대해 배려하고 관심 쓰는 것이 아니라 무심하거나 초연하다고 할 것이다. 인간의 욕망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의 법칙대로 운행되는 자연현상을 비유적으로 재현한 것이 그리스신화의 신들인데도 인간의 행복을 시샘하고 경계하는 신들처럼 그려진 것은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입장에서 자연현상을 정서적으로 의인화(擬人化)한 결과라고 하겠다. 자연현상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신화는 결국 인간의 본성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⁷⁾

제주신화의 주인공들이 자연현상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소망에 의해 덧칠해진 인간이라면, 그리스신화의 신들은 인간의 소망을 투영하기 이전의 적나라한 자연현상이나 인간 자체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리스신화의 신들은 영생불사의 특권을 누리면서 하늘을 날고 바다 위를 걸어다니는 초인적인 능력의 소유자이지만, 그들의 초인적인 속성은 물

6) <그리스인들의 신앙은 사제(司祭)나 예언자나 성인들에 의해 발달된 것이 아니고, 시인, 예술가, 철학자들에 의해 발달되었는데 이들은 모두가 천성적으로 자유로운 사고와 상상을 특징으로 한다.>(Greek religion was developed not by priests nor by prophets nor by saints it was developed by poets and artists and philosophers, all of them people who instinctively leave thought and imagination free. Edith Hamilton, The Greek Way, 174)

7) 인문학의 영원한 테마는 '인간의 본성은 어떤 것인가'와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가'로 압축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두 가지 물음은 물론 상호작용적이겠지만(아마도, 인간의 본성 이야기가 인간의 도리 이야기를 선포할 것이다), 철학 논술과 종교 가르침이라면 인간의 도리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고, 문학이나 예술이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쪽일 것이다. 인간의 도리는 선지자들이 증생들에게 '가르친다' 당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잠정적 유보적인 의미에서라도,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지만, 인간의 본성이란 묻혀있어서 모르던 실체를 '발견한다'는 존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사고의 정체를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도리는 각각의 시대상이나 사회상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음에 비하여, 인간의 본성은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 보편적인 인간성일 것이다. 그리스신화 이야기는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 두루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을 그린다든 견해와 일치되는 한 문화철학자의 주장을 인용해 본다. <호메로스는 작품 속 인물들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가능성을 구체화한 원형'들을 제시했다. 호메로스의 인물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본받거나 물리쳐야 할 보편적인 인간의 원형이 되었다. 그리스인들은 이 같은 호메로스의 작품들을 암송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마땅히 따라야만 하는 보편적 인간의 사고와 삶의 태도를 훈련받았다.>(김용규, 130-131)

리적인 능력의 면에 그치고 그 같은 능력을 구사하는 마음의 바탕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오욕철정의 어둡고 밝은 면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인간세상의 추악한 면까지 두루 갖고 있는 신들인데도 초인적인 능력과 특권을 누린다는 것은, 선악과 미추의 대립적인 요소들이 공존하는 인간성의 모든 측면을 그대로 긍정하고 찬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과 철인들이 당대의 신화작가였다고 말할 때, 그 시인들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는 유능한 극작가였고, 그 철인들은 그 당시로서는 가장 앞선 자연과학자로서의 지식과 관찰력의 소유자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⁸⁾ 동시대의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고대 그리스의 벽화나 조각상에서 묘사된 신들은 현실세계의 인간과 동일한 형상이면서 아름답고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신화에 담겨진 사상은 인간찬미이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유럽적인 휴머니즘의 원조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⁹⁾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주신화 본풀이에 나오는 직능신들은 저마다 자기 영역의 직능을 수행할 능력과 자격을 얻어 인간세계의 수호신이 될 준비단계로서의 시련과 수련의 과정을 거친다. 제주도 무속의 본풀이는 여러 분야의 직능신 후보들이 인간에서 신령으로 승격되기까지의 내력담인 것이다. 이들은 신격(神格)으로 올라서기 전 인간의 신분일 때에,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부당하게 남을 해치는 일을 삼간다는 점에서 인간의 도리를 행한다고 할 수 있다. 탐욕스러운 동해용왕따님아기를 제치고 출산신이 되는 행운은 선량하고 능력있는 맹진국따님아기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제주신화 본풀이에는 군데군데 장례나 혼례에 관한 가정의례 준칙의 유래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는 본풀이 이야기들이 결국은 인간의 도리를 말하고 있음을 일깨워준다고 할 것이다.) 물론 본풀이 이야기에는 과양생 처, 제인장자, 노일저대 딸 등 사악한 이들도 여럿이 나오고 있지만, 그들은 장차 인간세계 수호신으로 좌정하지는 못하며, 그들의 역할은 더 중요한 다른 주인공들의 존재를 돋보이게 하는 보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신화 본풀이의 서사구조는 대체로 선한 주인공이 악한 주인공을 물리친 후 신격을 얻는다는 사필귀정의 결말로 끝나고 있고 그리하여 권선징악적인 도덕교과서와도 유사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8) 사회사학자 남경태에 따르면, 서양철학의 모태인 고대그리스 사상의 관심 대상은 자연현상이었고, 동양철학의 모태인 공자사상의 관심 대상은 인간사회였다는 것인데, 제주신화가 형성될 당시의 한국사회가 인륜도덕을 가르치는 유교사상의 기반 위에 서있었음을 고려한다면, 본 논고의 취지와 일치되는 견해라고 생각된다. <서양철학은 물질세계, 즉 자연에 관한 질문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고대그리스의 철학을 자연철학이라고 말한다. 그와 반대로 동양철학의 첫 질문은 인간에 대한 물음으로 출발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였다.> (남경태, 265-6)

9)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형상 대로 신들의 형상을 그렸다.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인간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 때까지는 신들이 실재하는 인간과 닮지 않았다. …… 그리스의 예술가와 시인들은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올곧고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다. 인간이야말로 미에 대한 추구의 완성체였던 것이다.> (The Greeks made their gods in their own images. That had not entered the mind of man before. Until then gods had had no semblance of reality. …… Greek artists and poets realized how splendid a man could be, straight and strong. He was the fulfillment of the search for beauty. Edith Hamilton, Mythology, 16)

제주신화가 인간의 도리 이야기임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큰곳 가운데 한 제차인 ‘시왕맛이’이다. 시왕(十王)은 인간이 이승에서 지은 죄를 심판하는 지옥의 신들인데, 망자들의 죄과를 심문하는 내용을 보면 인간이 이승에서 지켜야 할 도리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가 있다. 모두 열두 가지로 나누어 열거된 인간의 도리 항목들은 월천(越川)공덕, 급식(給食)공덕, 급수(給水)공덕, 착복(着服)공덕 등 이웃사람들의 불행을 도와준 전력을 묻고 있으며, 부모효성이나 친척화목 등 가족 간 도리를 묻고 있는 것까지도 요즘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 하겠다. 마지막 부분에서 ‘너는 인간세상에서 남녀구별 몰라지고 조식 후나 못 보았구나’라고 묻는 항목을 보면 옛날 우리 조상들 시대에는 혼인과 득남, 가통의 승계 등이 얼마나 큰 관심사였는지를 짐작케한다(현용준 1980, 219-222). 또한, 이들 열두 가지 인간의 도리들 중에 앞에 열거된 중요 내용들이 불교의 포교교본인 ‘회심록’과 같은 것임을 볼 때, 불교 가르침이 제주도 무교신앙에 미친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인간의 도리 이야기로서의 제주신화 본풀이들 중에서 자청비 이야기는 좀 특이한 데가 있다. 자청비 이야기에는, 이성 간의 적나라한 성애(性愛) 욕구가 많이 묘사되고 있어서 인간의 본성 이야기에 해당되지만, 여기에서도 인간의 도리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 주목을 끈다. 자청비는 하늘옥황에게서 문도령의 배필로 간택될 만큼 많은 공덕을 쌓았고, 인간들을 먹여살릴 오곡의 씨를 지상세계에 내려주는 자비심의 소유자인 것으로 그려져 있다. 자청비는 또한 오래 그리던 문도령과 만나게 해준다는 정수남 하인의 꼬임수 유혹에 말려들었음을 알면서도 그에게 인정많은 주인 노릇하기를 마다하지 않으며, 주인에게 봉변 주는 심술쟁이 하인의 귀를 청미래덩쿨로 찢러 죽게 하지만, 나중에는 환생꽃의 힘을 빌려서 다시 살려주는 등 아량이 큰 주인이다.

직능 분야에 따라 제주신화의 자청비와 대비될 만한 여신을 그리스신화에서 찾아본다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대지 및 초목성장의 여신 데메테르인데, 이들의 성격 특징은 자청비하고 매우 대조적이다. 세경본풀이 이야기의 대부분이 자청비가 문도령과의 사랑을 성취하기까지의 갖가지 사연들이고, 아프로디테 이야기는 자신의 미모에 자존심을 건 여신이 자유분방한 사랑을 즐기는 일을 중심으로 엮여지지만, 두 여신의 사랑 방식이 크게 다른 것은 두 지역 신화의 이질적인 특성을 잘 보여준다.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열정적이거나 유희적인 방식을 불사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인륜도덕적인 기준을 지키며 사회질서와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고 있음에 비해, 아프로디테의 사랑은 인륜도덕 이전의 자연본능처럼 보인다. 이 여신은, 일밖에 모르는 남편 헤파에스투스와의 사랑은 안중에 두지 않고, 수많은 남성들과 혼외정사를 즐긴다. 전쟁신 아레스를 비롯하여 헤르메스, 디오니수스, 포세이돈 등 남신만이 아니라 안키세스 같이 미남인 인간과도 거침없는 사랑의 모험을 감행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염문과 이 여신이 낳은 자

식들 이야기가 풍성하다. 여신이 뿌린 사랑의 씨가 허다한 참사를 초래함은 인간세상에 흔히 있는 비극적인 사랑의 종말을 연상케 한다. 아테네 왕 테세우스의 후처 파에드라가 의붓아들 히폴리투스를 사랑함으로써 아버지의 분노 폭발이 아들을 파멸시키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은, 파에드라로 하여금 불륜의 사랑 유혹에 빠지게 만든 아프로디테의 농간 때문이다. 사이프러스의 왕비가 자기 딸이 최고의 미인이라고 자랑한 것에 대한 분풀이로 부왕(父王)으로 하여금 자기 딸을 사랑하여 비극의 씨를 뿌리는 악연을 만들게 할 만큼 아프로디테의 자존심은 대단하다. 아프로디테의 로마신화판 변신인 비너스 여신이 순진한 처녀 프시케를 시켜서 지하세계의 페르세포네로부터 얻어온 미인 되는 비약(秘藥)이 나중에 알고보니 ‘잠’이었다는 이야기는 이 여신의 사랑행위나 미모 욕심이 결국은 자연현상의 한 부분임을 상기시킨다.

사랑의 여신 자청비가 다른 한편에서 농경신이기도 한 것은, 이 여신이 백성들의 농사짓기에 필요한 오곡의 씨앗을 하늘나라로부터 얻어다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스신화에서 이와 유사한 직능을 맡고있는 신은 데메테르인데, 자청비와 데메테르가 보여주는 인간세상 보살핌의 방식을 비교해 보면 이들 두 여신의 성격 차이가 드러난다. 데메테르 여신이 봄과 여름에는 초목을 키우지만 가을과 겨울에는 성장을 멈추도록 연중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인간세상의 계절순환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하세계로 납치되어 간 자기 딸 페르세포네가 1년의 절반만이라도 지상세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제우스 신의 조정 결과이다. 또한, 제주신화에서 자청비 여신이 인간세계에 내려주는 선물인 곡식의 씨앗임에 비하여, 그리스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가 하늘나라에서 훔쳐다가 인간세상에 전해준 선물인 불이라는 것도 두 지역 신화에 내재하는 신인(神人)관계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곡식의 씨는 인간을 먹여살리는 농업생산에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면서 그것을 악용할 소지는 거의 없지만, 불이라는 선물의 길흉화복이 인간 자신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되는 이치는 자연현상 그대로이다. 선물의 전수 방법에 있어서도 두 지역의 신화는 크게 다름을 알 수 있으니, 그리스신화의 경우에는 신인관계 상의 금기를 깨는 탈취의 방법이지만, 제주신화에서는 이 같은 금기 위배가 없이 극히 화평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스신화에서 최고신인 제우스의 사랑 방식도 인간의 본능이 결국은 자연현상의 한 부분임을 보여주는 것 같다. 제우스는 상대가 여신이든 여성 인간이든 사랑 욕심이 동하면 탐욕의 화신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의 아내 헤라 여신이 질투의 화신, 극성스러운 잔소리꾼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제우스신이 상대 여성을 유혹하는 수단은 그의 깜짝같은 변신술이다. 스파르타 왕비 레다 앞에서는 우아한 백조로, 페니키아 공주 에우로파 앞에서는 힘세고 빛깔 고운 황소로, 아르고스 공주 다나에 앞에서는 침투력이 비상한 황금소나기로, 테베 공주 안티오페 앞에서는 호색가 타입의 반수신(半獸神) 사티로스로 변신하여 사랑 욕

구를 충족시키는 제우스의 여성편력은 색을 밝히는 남성이 여성을 유혹하는 대표적인 스타일 목록을 열거해 보이는 것 같다.

그리스신화에 담겨있는 것이 인간의 도리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현상으로서의 인간의 본성임을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는, 섬뜩할 정도로 비인도적인 혈육간 패륜행위들이다. 제우스의 부신(父神) 크로노스는 낫으로 자기 아버지 우라노스의 생식기를 잘라내어 바다로 내던져 버림으로써 왕이 된다. 그는 자신의 권좌를 아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내가 아이를 낳는 대로 입 속에 넣어버리지만 그의 아내 레아여신의 지혜로써 자신의 아들인 제우스에게 축출당하고 올림푸스의 제왕신 자리를 뺏기게 된다. 어머니의 힘으로 태어나고 자라는 자식이 아버지가 지배하던 세상을 대물림한다는 자연법칙을 시사하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야기가 후대의 영웅설화에 와서는 부친살해의 모티브로 나타난다. 오이디푸스왕 이야기에서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서야 지배자의 대물림이 이루어진다는 서사구조는 지상의 동식물이 대를 이어 죽음과 생존의 차례를 맞는 이치를 말해준다. 그리스신화에서 아들에 의한 부친승계 운명이 주요 모티브인 것은 결국 자연법칙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주신화 이야기에서 부자관계 서사구조의 기본원리가 효성이라는 인간의 도리임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제주신화에서도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성 간의 애정관계를 그리는 부분이 그렇다. 제주신화의 서사구조는 그 대부분이 인간의 도리를 구현하는 한 사람의 생애를 마친 후 신령의 위상으로 격상할 준비단계로서의 시련과 득도 과정을 그리고 있지만, 주인공의 성애(性愛) 묘사 부분에서만은 신령으로의 신분 격상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성애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는 인간세계의 수호신 역할과는 무관하게 주인공 자신의 본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제주신화에서는 인간적인 성애본능이 표출되는 이야기가 그리스신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아주 없지는 않다. 자청비가 문도령의 사랑을 얻기위해서 지락을 쓰고 동분서주하는 과정 자체는, 사랑과 곡식 씨앗의 희미한 유감작용(類感作用) 말고는, 농경신으로 좌정하는 능력이나 자격과 무관하다 하겠다. 그녀가 사랑하는 문도령과 동거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 남장하는 속임수를 쓴 것, 문도령의 글공부 동지가 된 다음에 오줌발 멀리 쏘기 시합 등 짓궂은 장난을 하는 것, 글 공부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문도령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부모의 눈치를 피해 깜짝 정사를 꺾하는 것, 하인이자 친구 관계인 정수남과 움막을 같이 짓고 이를 잡아주고 치마를 걷은 채로 나신으로 목욕하는 등 자유로운 사랑의 유희를 즐기는 행위는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둔 것이지만 인간세계의 수호신으로 좌정하는 일과는 무관할 것이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 이야기가, 다른 본풀이의 ‘인간의 도리’ 이야기들과는 달리 ‘인간의 본성’ 이야기 요소를 많이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남녀간의 성애라는 현상은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제도적인 외압에 구애될 수 없을 정도로 강

력한 본성임을 말해줄 일 터이다. 자청비가 문도령과 겨루어서 오줌발 멀리 쏘기 시합을 하는 것도 여자의 성애 욕망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여자는 앉아서만 오줌을 논다는 남존여비 사회의 당연한 고정관념을 깨고 남자처럼 서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음은 남자의 성(性) 에너지와 당당히 겨루고 싶은 여성의 욕구를 과시함일 것이다. 또한, 자청비가 문도령을 살려내는 기회를 얻기 위해 서천꽃발 꽃감관의 위장된 사위 역할을 한 것도, 성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비상 수단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비상수단의 결과가 문도령에게 첩을 두도록 청원함이 되어버림을 볼 때, 사안에 따라서는 ‘인간의 도리’를 깰 수 있는 자유인으로서의 자청비의 강단성을 헤아릴 만하다고 하겠다.

제주신화는 그 대부분이 인간의 도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혹 나오는 인간의 본성 이야기는 이상하고 낯설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삼공본풀이에서 부모에게서 쫓겨난 가문장아기는 잠 잘 곳을 찾아헤매다가 들어간 마통이네 집안의 어른에게 자기와 동침할 남자를 대어달라는 대답한 진언을 한다. 차사본풀이에서는 선량하고 용맹한 강님이 저승차사의 신령으로 승격하는 이력의 이면에는 비범한 정력의 자유분방한 여성편력이 숨겨져 있다. 제주도 각 마을의 당신(堂神)들 이야기에서도 이성간의 대담한 사랑을 그린 것이 많은데, 그 중에는 뜻 외기부정이라는 탈선행각을 벌임으로써 남편에게 쫓겨나는 부인들의 사례도 많이 나온다.

인간의 도리 이야기가 주요 테마인 제주신화에서 인간의 도리와는 거리가 먼 동물적인 성애본능을 그리는 이야기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의 다른 욕망들로 말하면, 동물적인 본능을 억제하고 인간적인 도리를 행하는 것이 문명 발달의 기준이라고 하겠지만, 유독 이성관계의 성애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의 도리와 인간의 본성 사이의 경계선이 애매하다고 생각된다. 결국은, 성애욕구의 충족을 추구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인간의 본성 이야기와 인간의 도리 이야기가 공존하거나 중첩될 수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인간 역사를 개관할 때, 자연현상으로서의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고 당위성으로서의 인간의 도리를 적시(摘示)하는 것은 종교의 역할이었다. 그리스신화의 경우에는, 서양정신사에서 인간의 도리를 규정하는 큰 원천 구실을 한 기독교의 영향을 받기 훨씬 이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연현상으로서의 인간의 본성이 억압 당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정신사로 말하면, 인간의 도리를 적시하는 역할이 유교나 불교의 가르침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유교나 불교가 적시하는 규범적 삶의 가르침이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제주신화의 서사구조는 그 경향성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도리 이야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같은 경향성은 제한적임이 주의를 요한다. 제주도 사람들은 본토로부터 멀리 격리된 생활환경으로 인하여 유교나 불교의 규범적시적(規範摘示的)인 영향력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무속신화의 형성과 발전이 가능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제주도의 어중간한 위상에서 발생된 행동규범의 미묘한 것 같

림을 천지왕본풀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천지왕이 인간세계를 다스릴 아들을 얻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 그의 계획을 알아챈 총맹아가기 먼저 천지왕을 찾아갔지만, 남자가 여자의 침방을 찾아가는 것이 도리이지 여자가 먼저 남자를 찾아와서야 어찌되겠느냐는 힐책을 듣고 돌아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여자가 먼저 성애의 욕망을 드러내는 부분은 인간의 본성 이야기이고, 여자가 성애의 욕망 표출을 자제하는 부분은 유교가 가르치는 인간의 도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천지왕본풀이의 이 부분은 한반도의 신화에는 없고 제주신화에 서만 나오는 특이한 서사구조임이 주의를 끈다.(김현선 35; 양영수 143; 진성기 232)

신화의 서사가 인간의 도리에 대한 것이냐,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이냐를 고찰함에 있어서 제주신화에 대해서는 일반본풀이와 본향당본풀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향당본풀이는 일반본풀이와 달리 인간의 도리보다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예가 더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김녕리 본향당본풀이인 궤내깃또 이야기에는, 부모에게 불경스럽다는 이유로 어린 아들을 무쇠석갑에 넣어 바다에 띄워버리고, 먼 나라 용왕국에 가서 대장군이 되어 돌아온 그 아들의 위세에 놀려서 부모가 충격사하는 등 인간의 도리가 무시되는 내용이 많다. 이들의 행동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성이나 자식사랑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아들이 부모가 살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들 각자가 어느 마을의 당신으로 좌정하면 단골 신앙인들의 숭배와 치성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지 자기 처지로 볼 때 어느 마을의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주의를 끈다. (부모가 자식들을 무쇠함에 넣어 바닷물에 띄워버리거나, 이들이 신령으로 변용된 다음에 자기가 좌정할 적당한 마을을 찾아드는 일에 애쓰다거나 하는 점에서는 칠성본풀이도 일반본풀이보다는 본향당본풀이와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토산리 여드렛당 본풀이인 토산한집(일명 방울아기씨) 이야기에서는 나주 금성산 토주관이 환생한 방울아기씨가 온 양리 해안으로 들어와서 어느 마을에 좌정할 것인지를 궁리할 때, 그녀의 관심사는 ‘나는 어느 마을 사람들에게 자애로운 수호신이 되어 복을 내려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마을에 좌정하면 안정적으로 마을사람들의 치성을 받을 수 있는가’하는 것, 즉 자기보존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문제이다. 토산리 당신으로 메뚜기무루에 좌정한 다음에도 신앙민들의 대접이 신통치 않자, 일부러 왜놈들의 배를 난파시켜서 강간사건을 유도함으로써 자기의 신통력을 청원하는 굿판이 많이 차려지도록 할 정도로 욕심을 부린다. 자존심 강하고 욕심많은 여자가 어떻게 악착같이 자기 잇속을 차리는지를 보여주는 토산한집 이야기는 권선징악 사례집 같은 일반본풀이에서는 좀처럼 나오기 어려운 일이다. 각 마을 신당의 단골 신령으로 들어설 수 있는 기회는, (김녕궤내깃또와 토산한집의 경우처럼) 먼 나라 외지에서 들어와서 좌정할 곳을 찾는 경우도 있고, 신령들 간에 자리다툼이 있어서 단골 마을의 변동이 생길 경우도 있지만, 이 같이 자기보존의 욕심을 밝히는 신령들의 이야기는 본향당본풀이에

는 있고 일반본풀이에는 없는 특이점일 것 같다. 이 같은 구분을 앞서 언급한 제주신화와 그리스신화 간의 상이점과 관련시킬 때, 제주신화 가운데 일반본풀이에서만은 ‘인간을 시샘하고 경계하는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신’의 이야기인 것이 맞지만, 본향당본풀이의 신령들은 인륜도덕을 기준으로 하는 ‘인간의 도리’보다는 자기위주의 욕심을 차리는 ‘인간의 본성’ 이야기로 기울어진다는 점에서 제주신화보다는 그리스신화에 더 가깝다는 말이 된다.

일반본풀이와 당신본풀이의 이 같은 상이점은 양자(兩者)의 형성 배경과 관련하여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제주도 주민 전체의 삶에 관련된 일반본풀이가 유교나 불교 등 인륜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가 유입된 다음에 형성된 것임에 반하여, 제주도의 각개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본향당본풀이는 그 같은 종교가 유입되기 훨씬 이전, 그러니까 인륜도덕의 질서가 확립되기 전에 나온 것이므로 자연본능 그대로의 ‘인간의 본성’ 이야기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보면, 제주도 각 마을의 본향당 본풀이에는 그리스신화의 경우에서처럼 ‘인간의 도리’에 구애되지 않는 ‘열린 서사구조’의 자유분방한 인간사가 전개되고 있으리라는 기대가 나올 만하다. 가령, 서귀포 당신본풀이에 나오는 브름웃도와 고산국의 사랑싸움 이야기는 싸우는 방법의 기발함과 대담성이나 분쟁 해결의 엉뚱함과 억척스러움에 있어서 일반본풀이의 도덕교과서적인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본풀이 중에서 유독 자청비 이야기는 인간의 도리 못지 않게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볼 때 자청비는 효성과 자애의 정신 등 기본적인 인륜도덕을 준수하고 있음으로써 ‘인간의 본성’보다는 ‘인간의 도리’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제주도의 본향당본풀이가 그리스신화에서처럼 ‘열린 서사구조’의 다종다양한 이야기, 사랑 다툼의 긴장감 넘치는 드라마를 보여주지 못하는 점은 몇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다. 우선 당신본풀이는 일반본풀이에 비해 그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풍성한 이야기가 전개될 기회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분량이 짧기 때문에 본풀이의 주인공들은 안정적인 단골 마을을 차지한다는 다급한 욕심을 채우고 난 후 사랑과 권력을 놓고 서로 다투는 기회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은 자기 마을을 떠나서 이웃 마을과의 접촉과 교류를 도모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알찬 이야기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 서귀포 당신 이야기와 더불어 토산리 방울아기씨 이야기가 그런대로 재미도 있고 역사적 의미도 담긴, 그래서 읽고나서 여운을 남기는 서사구조가 된 것은 아마도 한 마을에서가 아니라 여러 마을에 걸쳐서 일어나는 보기드문 사건들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 같다.

4. 기층민 신화와 영웅신화

그리스신화가 영웅들의 이야기라면 제주신화는 기층민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제주신화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비천한 기층민의 이야기가 주축을 이룬다. 제주신화의 주요한 요소는 건국, 전쟁, 정복, 침탈 등 거국적인 거대 사건에서 나오지 않고, 주로 가난, 질환, 결손 가족 등 일상생활 상의 결핍으로 고난을 겪는 서민적인 삶의 애환에서 나온다. 제주신화의 전승방법도 기층민적임을 보여준다. 제주신화는 특권층의 전유물인 문자수단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일반 서민의 소통수단이었던 구전(口傳) 방법으로 전승된 것이다. 신화시대의 유물 유적이 극히 빈약하다는 것도 제주신화가 기층민적임을 보여준다. 제주신화는 그 가운데 주요신들에 대해서도 거대하고 웅장한 신전이나 신상(神像)이 없다. 제주신화의 주인공들은 웅대, 장엄, 화려, 세련미, 공포 같은 속성과는 거리가 멀고, 소박함, 궁핍함, 자상함, 온정 등의 속성을 지닌다. 제주신화에는 하늘나라나 용왕국에 가서 국난을 평정하는 영웅적인 주인공들이 없지 않지만, 문맥의 전후관계로 보아서 제주신화에는 어울리지 않는부분이라는 인상을 준다. 영웅이란 하루 아침에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웅의 출현을 요하는 역사적 배경과 영웅적인 능력이 배양되는 사회적 배경이 갖추어져야 하고, 영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타고난 개성과 잠재력이 있어야 하는데, 제주신화의 어떤 주인공에 대해서도 이 같은 환경조건에 대한 서술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신화에서는 조국의 진운 개척에 절대적인 훈공을 세운 영웅적인 인물이 온나라 국민의 숭앙을 받는 예가 많음에 반하여, 제주신화에서는 비범한 능력이나 용기로 대중적인 숭배 대상이 되는 주인공을 찾아보기 어렵다. 비록 비범한 능력의 주인공이 등장할 경우에도 그것이 소속 집단의 흥망을 좌우하는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숭배 대상으로 승격되지 못한다. 그리스신화에서 출산 이야기라면 제왕이든 장군이든 한 나라의 진운을 좌우하는 영웅적 지도자들의 출생에 관한 기이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제주신화의 출산신 삼승할망이 점지하여 출생케하는 인물로서 국가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는 찾아볼 수 없다. 제주신화에서 운명신으로 성장하는 가문장아가기 초능력을 발휘하여 발복케하는 인물은 농사꾼 마통이나 그 가족에 불과하다. 제주신화의 무조신 노가단풍아가기씨가 만나는 초자연적인 신통력의 소유자들은 민족사적인 대사건이나 이변을 일으키는 영웅과는 다르며, 이공본풀이에서 할락궁이가 서천꽃밭 환생꽃의 신통력을 가지고 살려내는 사람들은 세인들의 숭배를 받는 국난 극복의 유공자들이 아니다. 차사본풀이의 강님은 절륜의 체력과 담력의 소유자이지만, 그 같은 능력을 발휘하여 해놓은 일은 일개 가족의 억울한 송사를 해결하는 것에 불과하다. 문전본풀이의 녹디생이도 비범한 담력과 지혜의 소유자이지만, 그의 뛰어난

능력이 한 가족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결과가 세인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위대한 영웅의 길로 이어지지 않는다. 제주출신으로서 하늘나라나 용왕국에 가서 국난을 평정한 인물들이 간혹 나오는 예가 있지만 제주역사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이야기는 못된다.

제주신화가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름없는 기층민들의 이야기인 것은, 제주신화 신령들의 존재이유는 사회의 밑바닥 계층에 속하는 기층민들의 일상적인 관심사를 보살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의 무속신앙인들이 신령들에게 기원하는 일들은 주로 가족의 행운에 관련된 비근한 일상사들인 것이다. 그리스신화에서처럼 우주적인 천문현상의 질서, 왕조의 흥망이나 전쟁의 승패와 같은 이야기가 주요 내용이라면, 비상한 능력의 소유자인 영웅들이 등장하는 거대 사건이 담겨있었을 것이다.

제주신화의 신령들이 인간세상에 관여하는 일들이 이처럼 국가존망의 거대 사건들이 아닌 것은, 제주도 무속신앙과 무속신화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 국가공동체의 보호와 육성이 별로 했다는 사실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무속신앙의 경우, 전국 단위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무속신들에게 소원성취를 비는 일은, 유교사상을 통치이념과 도덕강령의 기본으로 삼았던 사회체제의 성격상, 일어나기 어려웠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행정관리들은 주민들의 굿 행사나 당신 섬기기 등 무속행위를 주도하거나 협조하기 보다는 금지하거나 방해 놓기가 일쑤였다. 제주도 무속신화에서 인간세계의 보살핌 역할을 하는 신령들은, 많은경우에 국가공동체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밑바닥 인생이 고대하고 갈망하는 구원의 손길과도 같았던 것이다. 제주도 무속의례 가운데에는 풍농을 기원하는 입춘굿이나 풍어를 기원하는 영등굿이 마을사람들 다수의 참여로 있었다고 하지만, 이 같은 의례가 공식적 제도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유교적 통치체제의 이념과 제주도 무속신앙의 괴리현상 때문이었다. 반면에, 제주도 각 마을에서 해마다 있었던 전통적인 포제(酬祭)는 마을 촌장과 유지들이 유교적인 법식에 따라 집전할 정도로 통치체제의 보호와 육성을 받았으며, 포제가 열리는 자리에는 마을여자들이 얼굴도 비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주신화의 모태였던 제주의 무속신앙은, 유교적인 통치체제의 보호에서 소외되기 쉬운 서민들과 여성 집단 중심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민간신앙이었던 것이다.¹⁰⁾ 제도적인 보호와 육성을 받지 못한 무속신앙은 그리스신화와 같이 다양한 예술창작의 자산으로 발전되는 길이 막히기는 했지만, 그 반면에 통치권력의 정치적 지배논리로부터 영향이나 압력을 받지 않았던 관계로 의지할 곳 없는 민초들 세상의 순박한 인간미와 그윽한 인정미가 깃들어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10) <유교교육이 보급되지 않은 여성사회에서는 재래의 무속신앙을 계승하여 그것에 의존하고, 남성사회에서는 유교식 제례에 의존하는, 민간신앙의 이중구조 현상이 생겨나게 되 것이다. …… 목사 이형상이 3읍의 음사(陰祠)와 불사 130여 개소를 파괴하고, 무격 400여 명을 귀농시켰다.> (현용준, 29)
<제주도 민간신앙은 한국사를 통틀어 한번도 제도권 안에 포섭된 적은 없지만, 늘 감시와 주목의 대상이 되어 인구에 회자되고 기록에까지 등장했다는 점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영자, 493)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리스신화의 주요 내용들은 기층민들 세상의 일상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천문현상이나 국가존망의 대사처럼 위대한 영웅들의 비범한 능력이 요청되는 일들이었다. 그리스신화는 국가공동체의 운명이 담긴 거대담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곧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고대 그리스사회에서는 왕조의 몰락이나 국가간의 전쟁 등 국가 위기가 닥칠 때 신들의 가호를 기원하는 의식은 국가적 대사였고, 예술창조의 수호신 격인 디오니수스를 기리는 축제가 국가공동체적 기반 위에서 시행됨으로써 작가들의 창작 열의와 영감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 아테네에서 해마다 열리는 대(大)디오니수스축제 때에는, 국민들의 여흥 분위기를 위한 체육경기나 가무(歌舞)와 더불어, 민족의 수호신을 즐겁게 하고 국민적인 응집력과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한 연극공연을 시행했다는 것인데, 이 같은 국가행사를 종교지도자만이 아니라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들이 직접 지원하고 주재함으로써 연극의 주인공들이 국가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여건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자리에서 공연되어 일반 시민들을 감동시켰던 그리스의 고전비극들은 그 후 2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유럽인들의 고전문학 교과서로 읽혀지고 있다. 전쟁 등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국론분열을 막고 전국민들에게 공동운명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숭배심을 자아내는 국가적 영웅을 정책적으로 칭송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건국시조나 민족영웅의 위광 아래에서 민족적인 유대감과 자존심을 북돋울 수 있었으며, 국민들의 이반심을 불식하고 충성과 일체감을 심어주는 효과적인 정책은 공동의 신에게 함께 경배하고 즐기는 것이었다.¹¹⁾

민족설화가 영웅들 이야기라야 더 감동적이고 가치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인생의 아름다움이나 역사의 진실을 재현하는 것은, 민족영웅들의 화려한 무용담이라야 한다는 말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민족의 위대한 영광이라는 미명 아래 본래적인 인생의 소박한 가치가 무참히 희생되는 예가 많았던 것이 인간의 역사였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웅들 이야기보다는 밑바닥 세상의 기층민들 이야기를 온전하게 보여주는 제주신화는 그 나름대로의 민족설화적 가치와 의미를 소박한 방식으로 지켜준다고 할 수 있다.

제주신화의 한 가지 특징은 인간세계와 신의 세계를 가르는 경계선이 엄정하지 않고 양자간의 왕래가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이 점도 제주신화가 영웅설화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뜻한다고 생각된다. 천지왕이 속한 천상세계나 용왕신이 속한 용왕국 같은 것이 나오

11) <고대 그리스의> 디오니수스 축제는 신들을 섬기는 날이면서 공동체의 즐거운 행사, 여흥과도 연결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만족감, 소속감과 정체성을 높이는 기회였다.> (최혜영, 276)<디오니수스 극장이야말로 공동체가 공유하는 신화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산실이었다. 공동체가 공유한 경험을 재생산하는 연극의 재현은 한 집단의 공동 기억을 효과적으로 재생산함으로써 사회적 응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마련이었다.> (최혜영, 340) <디오니수스는 술과 광란의 신이요 황홀과 비의(秘儀)의 신으로서 가장 인기있는 신이 되어 국가종교의 높은 지위를 차지했다. 아테네에서는 디오니수스를 기리기 위해 해마다 네 개의 축제가 개최되었는데, 그 가운데 최대의 축제인 대(大)디오니시아에서 언제나 비극이 상연되었다.> (김진경, 370)

지만, 이들 나라도 인간세계와의 상호교류가 막혀있지 않다. 인간은 이들 나라에 들어가서도 혼인이나 친교 등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제주신화에서는 인간이 죽어가서 신이 될 수 있다는 통념이라고 할 수 있다. 천지왕신만이 예외인데, 천지왕신은 일반본풀이에 따른 개별적인 곳에서는 청신 대상이 아닌 것처럼 일반 신앙민들의 생활과는 소원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의 하사품이라 할 환생꽃을 얻어오는 서천꽃밭에 인간이 출입할 수 있고, 서천꽃밭 꽃감관으로 인간이 불러갈 수 있다는 점도 ‘인간이 곧 신’이라는 제주신화 특유의 인간본위적 신관(神觀)의 표출이라 할 것이다. 절륜의 역사(力士)인 강님은 저승세계의 염라대왕을 만나고 돌아오고 있다. 반면에, 그리스신화에서 신들의 거소인 올림푸스산에 인간이 범접하거나 저승세계인 하데스 신의 거소에 인간이 갔다가 돌아오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리스신화에서는 부모를 신으로 해서만 신이 태어날 수 있고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는 철칙이 있다. 예외적인 경우가 딱 두 번 있는데, 디오니소스와 헤라클레스이다. 그러나, 이들도 모친만 인간이지, 부친은 최고신 제우스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성을 초월하는 신적 존재들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리스신화보다 제주신화가 더 휴머니즘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가 없는 인간세계를 재현하기 때문이다. 그리스신화의 신들을 자연현상 또는 자연법칙의 재현이라고 할 때, 그리스신화는 자연과 인간이라는 양대 행동 주체가 조물주-피조물, 지배-피지배, 환경요인-반응방식, 인형극제작자-꼭두각시 등의 관계로 대결하는 흥미있는 드라마가 연상된다 하겠다.

제주신화가 영웅들 이야기임을 피하고 기층민 이야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낯은 중요한 결과로, 제주신화의 서사구조 모티브는 상쟁의 원리가 아니라 화평의 원리라는 것이다. 치열한 다툼이 있어야 싸움 잘하는 영웅이 나올 수 있지만, 처음부터 싸움 필요가 없는 세상에서 싸움 잘하는 영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주신화가 화평 모티브임에 반하여 그리스신화가 상쟁 모티브의 서사구조인 것은 창세신화에서부터 나타난다. 제주신화의 천지왕은 천지개벽과 동시에 우주의 최고위 지배신으로 등장하였으므로 누구도 그의 지배권에 대해 도전하는 일이 없다. 이에 반하여, 그리스신화의 최고신 제우스는, 그의 부신(父神) 크로노스에게서 지배권을 찬탈하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자기 아들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지배권력을 뺏길 수 있다는 불안을 떨치지 못한다. 지배권력의 정당성에 결함이 있는 제우스는 그 때문에 하위신들에게서 도전과 반발을 당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압적인 절대권력으로써 이를 제어하고자 한다. 하위신들로부터 아무런 반발을 당하지 않는 제주신화의 천지왕은 제우스 신처럼 폭력적인 방법을 쓸 필요가 없이 최고신이라는 명목만으로도 인간세계를 다스림에 지장이 없다.

제주신화에서 일반본풀이의 직능신들 간에 천지왕의 간택에 의한 치세업무 분장이 명료하게 이루어진 다음에는 다른 영역의 신령들 사이에 교류하거나 간섭하는 일이 없는 것도 그

들 간의 화평관계를 이루는 여건이 된다. 본풀이의 주인공들이 제각기의 직능신으로 간택되기까지 약간의 권력 다툼이 있지만 그것도 매우 평화적인 방법으로 화해에 이른다. 천지왕의 두 아들 대별왕과 소별왕이 이승과 저승 차지 역할을 갈라말을 때, 그들이 거치는 시험 방식은 수수께끼 시험이나 꽃가꾸기처럼 비폭력적인 것이다. 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출산신 되기를 원하던 멧진국따남아가기, 용왕국따남아기와 흥진국대별상하고 역할분담을 두고 약간의 다툼을 벌이지만 충돌이나 불화에는 이르지 않고 옥황상제(천지왕신의 다른 이름)의 거중 조정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절충을 이루게 된다.

본풀이의 주인공들은 인간의 위치에서 신령의 지위로 격상되는 준비과정에서 주변 인물들과의 경합을 거쳐야 하는데, 직능신으로서의 능력을 검증받는 일은 냉혹한 살해사건을 유발하기도 한다. 세경본풀이에서는 정수남과 문도령이 살해당하는 장면이 있지만 종내는 자청비가 베푸는 환생꽃 영험으로 되살아나기 때문에 궁극적인 화평모티브라고 할 수 있다. 초공본풀이에서 잿부기 3형제는 무조신이 되기 전에 모락꾼들인 삼천선비들 목을 잘라야 하고, 이공본풀이에서 할락공이는 서천꽃발 꽃감관이 되기 전에 멸망꽃을 가지고 탐욕꾼 제인장자를 죽여야 하는데, 이들 두 경우의 살해는 억울한 어머니 죽음에 대한 복수라는 점이 공통되고 이에 따라 무자비한 집단살상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차사본풀이에서는, 무고한 소년들 3형제를 죽여서 탐욕을 채우는 과양생 처가 능지처참을 당하는데 이는 제주신화에서는 좀처럼 없는 잔인무도한 장면이라 하겠다. 이들 몇 가지 본풀이에 나오는 폭력 장면들을 그리스신화의 것들과 비교할 때 다른 점은 폭력 사용의 동기라 하겠다. 제주신화에서는 모친 등의 가족이 살해된 것에 대한 원한 맺힌 복수심에서 잔인한 살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 반하여, 그리스신화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폭력적인 살상이나 전쟁은, 그 잔인함의 정도로서도 더 심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나 권력을 얻기 위한 이기적이고 적극적인 탐욕 때문에 발생된다는 차이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제주신화에서는 살해되는 인물이 가족과 같은 혈육관계일 경우가 없다는 것도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인간적인 신뢰가 지켜지는 최후 보루라고 할 가족공동체의 신성함은 온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신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쟁신들이 제주신화에는 없는데, 이는 지난 날 전쟁과 같은 극렬한 상쟁사건이 거의 없었던 제주도 역사의 반영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생각나는 것은 제주신화 본풀이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서천꽃발 이야기이다. 사람이 죽고 사는 운명을 환생꽃이나 멸망꽃 등 아름다운 꽃의 이미지에 비유한다는 것은 죽음조차도 무섭고 잔혹한 사건이 아니라 꽃처럼 가까이 하고 싶은 어떤 것을 연상한다는 것이니, 화평의 원리와 상통한다 할 것이다.

제주신화의 화평원리를 그리스신화의 상쟁원리와 비교할 때 분명히 드러나는 차이점 하나는 여성신이 남성신보다 수적으로도 우세할 뿐만 아니라 그 권능으로도 단연 우세하다는 사실이다. 세계 각국의 신화를 개관할 때 남성신의 주된 활동이 전쟁이나 권력투쟁 등 호전적

인 성격의 것임은 신화가 역사의 재현임을 말해준다 할 것이다. 전쟁과 같은 파괴적인 상쟁의 역사가 없었던 제주도에서는 남성신들의 역할이 미미한 반면에, 가족 간에 화목과 마을의 번영을 이룬다는 여성신의 역할이 중대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제주신화의 창조신이 남성신인 천지왕으로 나오는 것은 유교사상이 전래되어 큰 영향력을 갖게된 이후의 일이요, 제주섬 주민들에게 자생했던 전래설화의 창조신은 여성신인 설문대할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창세 이후 뛰어난 진취성과 지혜를 발휘하여 제주섬의 문명발달을 선도한 것은 남성신이 아니라 여성신임을 보여주는 예는 여러 방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신화에서 인간을 창조하고 불의 사용을 통해 인간에게 문명의 길을 열어준 것은 남성신 프로메테우스이지만, 제주섬의 농경문화 시대를 열어준 것은 여성신 자청비이다. 강남천자국에서 태어나 송당리로 들어와서 좌정한 백주또 여신이 사냥꾼 남편 소천국에게 농사 짓고 사는 길을 열어줌과 함께 제주섬 전체의 무속신들 선조가 되었다는 것은, 고량부 삼성신화에서 벽랑국 3공주가 사냥꾼 남편들에게 5곡의 씨와 송아지 선물을 갖다주면서 농경문화를 전파하고 탐라국의 건국시조가 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고조선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에서 남성신 단군은 천신의 후예인 반면에 그의 배필이 된 여성은 검검한 동굴에서 자란 곰[웅녀]이라는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삼공본풀이에서 가운을 번성케하고 가난뱅이 마통이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신통력의 소유자 가문장아기도 여성이다. 비범한 담력의 소유자인 강림이 김치원님으로부터 염라대왕을 이승으로 데려오라는 하명을 받았을 때 그 험난한 저승길 나들이를 가능케 해준 것은 그의 부인이었다. 영등달이라 불리던 2월 달에 하늘로부터 해산물의 씨앗을 제주섬으로 갖다주는 영등할망도 여성신이다. 칠성본풀이에서 무쇠석함을 타고 바다를 표류하던 칠성아기씨들이 뱀으로 변신하여 제주섬으로 들어와서는 재물과 풍요를 갖다주는 칠성신이라는 여신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송당리와 김녕리 궤내깃또나 토산리 브름웃또 등은 어릴 때 별 불일 없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무쇠석함에 갇혀 바다에 띄워지지만, 동해용왕국 딸들을 만나서 결혼하고 제주도로 돌아올 때에는 천하의 대장군으로 변신한 몸이다. 이 모두가 여성이 남성세계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온다는 내용이다. 남성신들이 우세한 그리스신화는 지배신들의 강압적인 통치와 이를 둘러싼 권력다툼이 돌보임에 반하여, 여성신들이 우세한 제주신화에서는 인간세계에 대한 신들의 보살핌이 돌보인다고 하겠다.¹²⁾

그리스신화에 나타나는 상쟁모티프는, 부자(父子) 신들 간의 극렬한 상쟁 끝에 올림푸스 주신족(主神族)이 결성되는 창세신화의 단계가 지난 다음에도 변함이 없다. 지배신 제우스의 간택으로 우주통치의 권력안배가 종결된 이후에도 직능신들 상호간에 권력 다툼을 벌인

12) 양영수는 일찍이 제주신화에 나타나는 여성원리를 돌봄, 감성, 화합, 공생 등 네 가지 방면의 여성적 성격특성으로 풀이한 적이 있는데, 이 같은 여성적 성격특성은 곧 인간에 대한 신들의 보살핌과 배려 지향성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양영수, 115-176)

다는 것이다. 그리스신화 최대의 비극인 트로이전쟁은 그리스연합군과 트로이왕국 간의 전쟁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올림푸스 주신들 사이의 주도권 다툼이 인간세상의 대리전쟁으로 나타난 면도 없지 않다. 직능신들 간에 만나고 다투는 일이 별로 없는 제주신화와는 달리, 각자의 직능수행을 위해 서로 만나는 경우가 많은 그리스신화의 신들 간에는 자기의 권리 주장을 위해 다투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리스신화가 신들의 시대를 지나서 영웅들의 시대로 넘어온 다음에도 다툼과 전쟁은 그칠 줄을 모른다. 싸우지 않고 영웅이 될 수는 없는 일인 것이다.

올림푸스 주신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쟁관계는 사랑다툼의 방향으로도 확산되면서 다양한 사랑의 비극이 발생한다. 지배신 제우스가 끊임없는 외도행각을 벌이는 가운데 헤라 여신의 남편 투정은 끊임이 없고, 제우스의 외도 상대자는 헤라 여신의 집요한 해코지를 당한다. 질투심에 불타는 헤라는 남편 제우스 신의 혼외정사 결과로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을 훼방하려고 진력하기 때문에 아폴로, 아르테미스, 디오니수스, 헤르메스 및 헤라클레스, 미노스, 에파포스 등 제우스의 소생인 신들이나 영웅들의 탄생과 성장은 큰 고초를 겪게된다. 제우스와 헤라 부부신(夫婦神) 사이의 불화와 다툼은 다음 세대인 헤파에스투스와 아프로디테 부부신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헤파에스투스는 그의 아내 아프로디테가 전쟁신 아레스와 벌이는 수치스러운 정사장면을 올림푸스의 여러 신들에게 보여주어 웃음거리로 만드는 등 밀고 당기는 부부싸움을 벌인다. 남녀 간에 사랑의 애환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아프로디테와 사랑의 감정 발생을 가로막는 처녀성 수호신인 아르테미스 사이의 암투와 상쟁은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갖가지 불상사를 야기한다.

중생제도(衆生濟度)의 자비나 효도의 미덕 등 불교나 유교가 가르치는 인간의 도리가 제주신화에 담겨있다고 할 때, 제주신화의 화평 모티브는 동양역사의 평화 지향성으로 나타나고, 이는 그리스신화의 상쟁 모티브가 서양역사의 전쟁 지향성으로 나타남과 대비된다. 제주신화에 나타난 바, 불교나 유교 등 동양정신의 모태는 동양 제국의 역사에서 전쟁 발생을 억제했던 반면에, 그리스신화에 나타난 상쟁 모티브는 서양정신의 모태가 되어서 후세의 기독교나 이슬람의 종교적 가르침조차도 서양역사가 끊임없는 전쟁으로 점철됨을 막지 못했던 것이다. 당위적인 인류 도리를 따르기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인간 본성을 드러낸다는 그리스와 로마신화의 합리정신이 로마제국의 유럽 제패를 낳았고 이는 곧 유럽제국의 끊임없는 전쟁사로 이어졌다는 생각이다. 화약을 맨처음 발명한 동양인들은 이것을 불꽃놀이 용도로밖에 이용하지 못했지만, 유럽인들의 손에 뒤늦게 들어간 화약은 전쟁 무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5. 제주신화 서사구조의 스토리텔링적 발전 가능성

5-1. 열린 서사구조의 스토리텔링적 효과

위에서 살펴본 대로, 제주신화의 신들은 인간의 소원을 잘 들어주는 인간수호신적인 성격이어서 이야기 결말이 소원성취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므로 ‘닫힌 서사구조’를 이루기 쉽다. 제주신화의 주인공들이 자연현상으로서의 인간의 본성을 따르기보다는 소속 공동체의 요구에 순응하여 인간의 도리를 따르는 것도 ‘닫힌 서사구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본성 이야기인 그리스신화가 ‘열린 서사구조’인 것과 대비된다. 인간의 본성은 그 깊이와 방향을 종잡기 어려운 것이어서 ‘열린 서사구조’의 이야기를 이루겠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의 도리 지키기는 그 선택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일 것이므로 ‘닫힌 서사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제주신화의 주인공들이 각자의 개성과 욕망보다는 인간의 도리를 따르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소속 공동체의 질서를 우선하는 것이므로 화평 모티브의 서사구조를 이루게 되고, 화평 모티브의 이야기는 ‘닫힌 서사구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도리를 행하는 덕목들은 한계가 있지만, 인간의 욕망과 그 배출구, 생명의 에너지 같은 것은 한 없이 다종다양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서로 싸우기를 피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건의 진행과 진로의 선택이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신화 이야기가 닫힌 서사구조를 이루는 것은 과거 전통사회의 경직된 인간관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오늘날 각자의 다양한 개성 발휘가 존중받는 민주사회의 역동성이나 자유로움과는 합치되지 않는 면이 있다. 자청비 이야기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랑욕구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간다는 개방적인 인생관과 열린 서사구조의 성격이 강하지만, 대부분의 제주신화 이야기는 자기 인생의 진로를 선택하는 기준이 자신의 마음 속에 있지 않고 바깥 세상에 있다. 차사본풀이의 강님이 비범한 용감성을 발휘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책무인 저승 나들이 모험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것이다. 남선비의 뚝뚝한 막내아들 녹디생이는 가정수호의 소망이 아닌 어떤 개성적인 취향이나 욕구도 보여주지 않는다. 초공본풀이에서 주자대사가 노가단풍아가씨를 찾아가서 영적감응의 기회를 준 것은, 공부에 지친 선비들 집단의 결의와 응원에 힘입어 가능했던 것이지 이성애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욕망에 기인하는 선택의 결과는 아니다. 이공본풀이의 임진국 따님 원강암은 김진국 아들 사라도령과의 혼인을 재촉하는 대담성을 보이지만, 그것은 자신의 애정의 표출이 아니라 선대에 있었던 구덕혼사 약속을 이행하기 위함이고, 원강암의 아

들 할락궁이가 서천꽃밭 꽃감관이 된 아버지를 찾아나서는 끈기와 용기의 원천은 효성이다. 삼공본풀이 서두에서 강이영성이서불의 첫째와 둘째 딸들이 부모의 덕담 중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효성의 표현이며, 자신의 운명창조적인 기개가 훌륭한 셋째 딸 가문장아기에게도 사랑하는 남성 선택의 우선적인 기준이 된 것은 효성이라는 미덕인데, 무릇 부모에 대한 효성이란 자신의 내면적인 욕구이기보다는 인륜도덕적인 바깥세상의 요구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도리 이야기는, 어떤 인물이 인간의 도리를 따르느냐 않느냐, 즉 가부간(可否間)의 문제이기 쉽지만, 인간의 본성 이야기는 대관절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이나를 묻는 실제 규명의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끝없는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열린 서사구조를 요한다고 생각된다.¹³⁾

그리스신화의 경우에, 주인공들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즉 자연현상으로서의 인간 욕망에 따르는 '자기확대'나 '자아실현'의 달성이기 때문에 열린 서사구조를 이룬다. 자연법칙이 그런 것처럼, 인간의 본성이나 욕망은 아무리 파헤쳐도 끝이 없는 광맥처럼 우리 앞에 존재하며, 간단히 규정하거나 결론지을 수 없다. 그리스신화의 신들이 인간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도 신화 속의 이야기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열린 서사구조에 일조한다고 생각된다. 인간의 행복을 경계하는 신들과 신들의 초자연적 능력을 부러워하는 인간들이 대결하는 그리스신화 이야기는 성공하기보다는 좌절하는 인간상을 그리고 있고, 그리스의 고전비극들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새벽의 여신 에오스 이야기는, 새벽이 밝아올 때 식어버리는 열애의 충동처럼 남녀간의 사랑이란 덧없는 것임을 말해준다. 에오스 여신은 사냥꾼 케팔루스에게 반한 나머지 그가 아내 프로클리스를 끔찍이 사랑하는 것에 해코지할 속셈으로, 그에게 아내가 부정하다는 거짓 고자질을 함으로써, 이들 부부를 파경으로 몰아가는 사랑의 의구심을 심어준다. 또한, 에오스 여신은 티토누스라는 미남 청년을 사랑한 결과, 제우스 신에게 이 청년에게 영생의 축복을 내려주도록 간청하는데, 영원한 청춘까지 간청하는 것을 깜빡 잊은 나머지, 늙고 주름진 얼

13) 인간의 도리 이야기가 '닫힌 서사구조'를 이룬다는 말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자연현상에 대한 이야기는 '열린 서사구조' 쪽으로 기울어지고, 인문현상에 대한 이야기는 '닫힌 서사구조' 방향이 되기 쉬울 것이다. 자연현상은 매우 다종다양할 뿐만 아니라 규범화되거나 정형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서사내용의 다양성 폭이 끝없이 넓어질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은 자연현상처럼 어떤 고정적인 범주에 넣어 규정하기가 어렵다.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의 행동 동기는 사랑, 명예욕, 권력욕, 자존심, 허영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자존심의 근원도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반면에, 인간의 도리나 인륜도덕 같은 인문현상은 인위적인 질서의 범위 안에 존재하므로 서사내용의 다양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닫힌 서사구조'로 기울어짐을 뜻한다. 그리스신화처럼 자연현상으로서의 인간의 본성 이야기는 '열린 서사구조'를 이루고, 제주신화처럼 인간의 도리를 드러내는 이야기는 '닫힌 서사구조'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사물을 묘사하는 그림의 경우에도 비슷한 말을 할 수 있다. 자연상태의 사물은 묘사 방식의 가능성에 한계를 정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인위적인 가공이 많이 가해진 사물은 묘사 방식의 가능성 범위가 넓을 수 없다. 사생화(寫生畵)를 그린다 할 때, 흘러가는 구름을 그리는 것은 묘사 방식의 다양성에 한계가 없다 할 것이고, 쟁반 위의 사과를 그리는 것은 그 반대가 될 것이며, 종이 위에 그려진 사과그림을 보고 다시 그리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묘사하는 다양성의 폭이 더욱 작아질 것이다.

굴의 티토누스가 찾아왔을 때 옛날 불타 오르던 사랑은 이미 식어버렸음을 깨닫게 된다.

신탁과 태양과 음악의 주재 신이며 미남으로 알려진 아폴로 신에게서 구애의 신호를 받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를 거부하는 것도 흥미있는 인간성 포착이라 여겨진다. 많은 여성들이 아폴로 신의 사랑을 반가워하지 않는 것은, 얼핏 보면 여성들에게 흔히 보는 허영심의 존재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외양보다는 실속을 차리는 더 깊은 인간심리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신의 위상이 인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아폴로 신이 언젠가는 인간인 자기를 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있는 여자는 당연히 불안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성과 태양의 신인 아폴로의 사랑이 대체로 실패한다는 이야기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이성이나 어두운 구석을 남김없이 명백히 밝혀버리는 햇빛의 힘으로는 비이성적인 감성의 영역인 남녀간 사랑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세태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다.

고대그리스 영웅설화의 주인공들은 모두 비범한 능력과 욕망의 소유자들이지만, 이들이 지향하는 영웅상이 제각기 다른 것은, 그들의 생명력의 원천이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바깥 세상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개성적인 욕구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신화 속의 영웅들을 세 가지 부류로 대별할 때, 덕장(德將)으로는 헥토르와 테세우스, 지장(智將)으로는 오딧세우스와 페르세우스, 용장(勇將)으로는 아킬레스, 헤라클레스 등을 예로 드는데, 희대의 영웅상인 이들이 지니는 스토리텔링적인 매력은 그리스신화의 인간성 탐구적인 깊이에 있다고 생각된다. 영웅이 되는 길은 사람의 성격이나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리스신화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다양하고 풍성한 예술창작의 재료로 활용될 수 있었음은 단지 창대한 유럽문명권의 세력에만 기인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5-2. 중층적 서사구조의 스토리텔링적 효과

스토리텔링적 소재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닫힌 서사구조인 제주신화 이야기는 열린 서사구조인 그리스신화에 비하여 사람들의 흥미와 감동을 일으키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제주도 무속신화의 신들이 인간을 도와주는 인간중심적인 존재임은 흥미있는 스토리텔링을 구성하기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다. 제주신화의 신들은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인간 수호신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인간세계에 대하여 적대적인 대치관계를 갖기 어렵게 되므로 행복한 결말이 뻔히 내다보이는 무미로운 스토리로 빠져버리기가 쉽다. 맞상대 없이 혼자서 진행되는 게임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애초부터 인간생활의 안전과 행복을 보살피기 위해 존재하는 무속신화의 신들은 인간의 기복척화 소원을 매정하게 거부하는 일이 있을 수

없고 원칙적으로 해피엔딩의 결말로 끝나는 관계로 공포와 연민의 정서를 자아내는 비극적인 카타르시스의 가능성이나 추리소설적인 긴박감과 서스펜스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둘째, 제주신화의 특징인 인간의 도리 이야기는 스토리텔링 소재로서는 단순소박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간은 마땅히 인간의 도리에 따름으로써 신들의 가호를 받는다는 제주신화 이야기는 결말의 예측이 거의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인간의 도리 이야기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분 위에서 권선징악적인 단순구조가 되기 쉽고, 오묘한 인간성에 대한 통찰을 담아내는 중층구조 내지는 복선(伏線)구조의 아이러니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겠다. 특히 인간의 도리 이야기라는 제주신화의 특징은, 인간의 도리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이 거의 사라진 이 시대의 풍조와 합치하기 어려운 점 이 있다. 가치관 붕괴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국가나 민족에 대한 애착은 물론이고 공동체정신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가족간 애정조차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에 비해 인간의 도리보다는 인간의 본성 문제에 천착하는 그리스신화의 스토리텔링적 쓰임새는 이 시대의 가치관 붕괴 흐름에도 불구하고 불변의 매력이 있어 보인다.

셋째, 주인공들 간의 화평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제주신화 이야기는 흥미있는 추리극이나 활극 스토리의 요건인 긴장감이나 전율감을 조성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그냥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들 이야기보다는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재미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통념일 것이다. 흥미있는 스토리텔링의 요건은, 대립관계인 진영들 중에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 그런 승리의 요인은 무엇이고, 그것은 보편적인 요인이냐 우연적인 요인이냐, 등과 같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해석과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문제상황일 것이다. 게다가, 화평모티브의 이야기는 부단한 경쟁관계를 피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양상과 괴리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제주신화의 정태적(靜態的)인 서사구조는, 세태의 부단한 변화에 결사적으로 적응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풍조와 합치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처럼 닫힌 서사구조를 이루며 정태적인 제주신화는, 열린 서사구조이며 역동적인 그리스신화에 비해서, 흥미있는 스토리텔링 소재로서의 가치가 빈약해 보이는 점이 있지만, 신화 인식의 전환에 따라서는 스토리텔링 재구성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제주신화에 기초한 스토리텔링 재구성 작업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능케 하는 사고의 전환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세계는 원래부터 중층적인 구조임을 상기함에서부터 비롯된다. 현실세계의 인간이 인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고심하는 것은 고금을 통하여 불변하는 사실이고, 현실적인 인간의 삶은 역동적이지만 한 것이 아니라 정태적인 면을 함께 지니고 있음도 사실이다. 인간사가 전개되는 양상이 열린 서사구조이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태적

인 삶의 재현이나 닫힌 서사구조의 이야기도 엄연히 현실세계의 진실 구명에 부분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제주신화 이야기는 화평 모티브이면서 닫힌 서사구조 위주이지만, 이런 요소들과 더불어 상쟁 모티브의 이야기나 열린 서사구조가 결합하는 다층적인 서사구조를 창안한다면 더욱 풍부하게 현실세계를 재현할 수 있고 사람들의 공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기존의 제주신화 이야기들도 이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닫힌 서사구조만의 단층적 구성이 아니라 닫힌 서사구조와 열린 서사구조의 중층적 구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같은 특징이 지니는 스토리텔링적 가능성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제주신화의 신들은 인간에게 복락을 베풀게 마련이라는 닫힌 서사구조의 제약에서 벗어난 것이 천지왕본풀이에 나오는 형제 간 다툼의 이야기이다. 자기 형인 대별왕에 비하여 명민함이나 정직함의 내공이 얇은 소별왕에게 이승세계의 통치권이 돌아간다는 서사구조에는 음미할수록 심오한 의미가 담겨있다. 천지왕이 애초에 구상한 대로라면 수수께끼 맞추기와 꽃 가꾸기 시합에서 이긴 대별왕이 이승 지배자가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잠 자는 동안에도 술수 부리기에 여념이 없는 꾀쟁이 소별왕에게 이승 차지를 빼앗긴다는 서사구조에는 조물주의 섭리에 담겨있는 오묘한 예지가 엿보이는 것이다. 온갖 부정부패와 천신만고로 차있게 마련인 인간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는 세상사를 잊을 정도로 깊은 잠에 쉽게 빠져버리는 대별왕이 부적합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천지왕의 창세 구상은, 최악의 인간세상처럼 보이던 것이 알고보면 최선의 것임이 드러나고, 인간세상이란 얼핏 보면 알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의미로 차있기 때문에 겉보기에 고통스러운 것이 인간세상 전체의 의미가 아님을 알려 준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세상이 피상적인 복락과 화평을 누리는 곳이 아님을 선언하는 조물주의 배려이고, 결국은 인간역사의 중층적 구성이 창세신 천지왕의 깊은 뜻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제주신화의 창세신이 처음부터 화평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창세 이후에 인간의 입장에서 신령들에게 억울함을 하소연할 일이 없게되고, 신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세상을 걱정하고 보살펴줄 일이 없어지는 이상한 결과가 되어버리니 신들의 존재이유 자체도 없어지는 셈이다. 창세신화 가운데에서 인간세상이 불공정함과 고통스러운 것은, 겉보기와 속내보기가 다른 중층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제주신화 이야기들은 단순히 인간수호신적인 신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사의 행불행이나 인간관계의 호불호가 미묘하게 중첩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하겠다.

둘째, 제주신화의 주인공들이 인간의 도리를 따름으로써 인간의 본성 이야기가 부실해진다는 닫힌 서사구조의 제약에서 벗어난 것이 삼공본풀이의 가문장아기 이야기이다. 가문장아기는 인간의 도리와 인간의 본성을 모두 보여준다는 것이다. 부모에 대한 효성보다 자립적인 운명 개척의 의지를 앞세우는 가문장아기 이야기는 제주신화가 인간의 도리 이야기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가문장아기는 이야기 초입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효성, 즉 규범적인 인간의 도리에 대해 초연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나중에 마통이 3형제 중에서 자기 배필을 고를 때에는 그 선택의 기준을 (부모에게 더 좋은 음식을 양보하는) 남자의 효성에서 찾고 있으며, 부자가 된 다음에는 한동안 유실되었던 부모의 행복을 되찾아주는 효녀의 길을 간다는 점에서 규범적인 인간의 도리를 우선하고 있다. 그런데, 가문장아기가 마통이 3형제 중에서 막내 아들을 자기 배필로 낙점하는 데에는, 이 막내가 자기 형들과는 달리 '이제까지 먹어보지 못한 흰 밥'을 선뜻 받아먹는 열린 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기도 했음이 주의를 끈다. 행동의 동기 역할을 한 것이 기존의 인륜도덕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생적인 욕구라고 할 때 그것은 인간의 본성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공동체가 요구하는 인간의 도리와 자신의 개성적인 욕구를 모두 아우르는 중층적인 서사구조는 진실되면서도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구성의 원리를 충족시킨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해석은, 개성적인 사랑을 성취하면서도 착실한 효녀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자청비의 이야기에도 해당된다 하겠으며, 제주신화의 스토리텔링적 재구성 시도는 이 같은 중층구조의 발견과 구현을 통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제주신화 이야기 가운데 상쟁 모티브가 미약하고 화평 모티브가 강대함으로써 생기는 스토리텔링 효과의 한계를 극복하는 제주신화 특유의 가능성은, 삼승할망본풀이 가운데 나오는 생불할망 후보들 간의 다툼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멧잔국따님아기는 출산신인 생불할망 자리를 두고 용왕국따님아기와 다툼 때, 이 경쟁자의 출산신 자격이 모자란다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꺾어치거나 폭력적으로 퇴출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꽃가꾸기 시험이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출산신의 능력을 검증하기로 합의한다. 산모와 신생아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인자한 출산신으로서는 부적격한 용왕국따님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죽은 아기를 저승으로 인도해주는 무서운 저승할망신의 역할을 맡김으로써 정면 충돌 대신에 화합의 길을 가는 것인데, 이처럼 상쟁을 피할 수 없을 경우에도 화평스러운 상쟁을 택하며 그같은 선택도 약자에 대한 강자의 배려로 이루어진다는 서사구조야말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제주신화 특유의 미덕이라고 생각된다. 문전본풀이에서 여산부인은 첩이었던 노일저대가 죽은 다음에는 처첩간의 대립 갈등을 넘어서 자신과 동격인 가정수호신의 반열에 함께하도록 해준다. 제주신화에서 남성들에 의한 여성의 억압 이야기가 별무하다는 것도 주의를 끈다. 유교적인 영향으로 한국의 전통사회는 남성이 강자이고 여성이 약자인 불평등 구조를 이루었지만, 남성에게 의한 여성의 억압이라는 상쟁구조는 제주신화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하겠다.

상쟁 모티브의 그리스신화 이야기는 처음부터 화평 추구의 인간적인 도리보다는 이기적인 인간 본성 쪽으로 기울어짐으로써 중층구조적이어야 할 인간 역사를 재현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싸움 잘하는 자들이 역사의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전쟁이 그

치지 않았던 서양역사에 해당되는 일이었지만, 파괴적인 서양문명의 위기론이 파다한 근자에 와서는 발전이 더디었던 정태적인 동양의 역사를 재평가하는 시점에 와있다. 이 같은 상황을 요즘 성업 중인 게임 제작의 한 모형으로 바꾸어 볼 수 있다. 가령 목표지점에 빨리 도달하기 경쟁을 하는 인터넷 게임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싸우는 힘이 둔해 보더라도 독특한 자기 개성을 유지함으로써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게임환경이 설정된다면 무릇 역사의 진실이란 중층적인 것임을 교시하는 고차원적인 창작 모티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스토리의 주인공 캐릭터를 창출할 때에도, 투쟁적이고 호전적인, 따라서 그리스신화의 주인공들과 닮은 캐릭터만이 아니라, 유순한 성격이어서 남과 싸울 줄 모르면서도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는 화평 모티브의 캐릭터까지 만들어준다면 현실세계에 대한 중층 구조적인 재현에 더욱 충실한 서사구조가 될 것이다.

2부. 문예창작 모티브로 활용된 신화 이야기들

1. 그리스신화 이야기를 모티브로 활용한 문예창작의 사례들

1-1. 셰익스피어(Shakespeare; 1564~1616) 작 <트로이러스와 크레시다> (Troilus and Cressida, 1602)

튜더왕조 당시의 영국국민들에게는 호머의 <일리아드>(Iliad)에 나오는 트로이전쟁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셰익스피어가 이를 소재로 드라마 창작을 시도하고 싶었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 시대의 영국은 르네상스문학의 전성기를 맞고 있었는데, 그리스 신화의 트로이전쟁 이야기를 작품 소재로 활용한 서사시인이나 희곡작가들은 그 외에도 여럿이 있었던 것이다. 셰익스피어가 <트로이러스와 크레시다>를 쓸 때 직접적인 창작 모태가 된 것은 기원전 9세기에 살았던 호머의 <일리아드>가 아니라, 14세기의 영국시인 초서의 <트로이러스와 크리세이드>를 비롯하여 그리스신화에서 유래되는 여러 편의 중세설화였다. 그러므로, 원래 그리스신화에서 출발하여 여러 시대 여러 작가들의 손을 거치면서 등장 인물들과 그들의 성격설정과 전체적인 테마가 어떻게 변천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좋은 사례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트로이전쟁이라는 작품배경이나 대부분의 등장인물들로 말하면, 호머의 <일리아드>나 그 이후의 통설적인 그리스신화 내용과 <트로이러스와 크레시다>는 공통되는 것이 많다. 이 작품에 나오는 그리스와 트로이 두 나라의 장군들 다수가 <일리아드>에도 같은 이름으로 나오는 알만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표제인물인 트로이러스는 트로이 왕자라는 것만 같을 뿐이고, 그의 거취나 성격은 순전히 셰익스피어의 창작물이고, 트로이 사제의 딸인 크레시다와 욕쟁이 광대 역할의 테르시테스 등도 전혀 새로운 인물이다. 셰익스피어 작품 속의 인물들 다수가 호머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동명의 주인공들이면서도 그들의 성격설정이나 역할 수행의 면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셰익스피어 자신의 창작의도에 의한 것이었다.

이 작품의 테마는, 사랑의 맹세를 저버린 트로이러스와 크레시다 두 남녀의 허망스러운 자탄을 풍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트로이러스는 ‘나의 사랑은 티없이 순수하기 때문에 세상 남자들의 사랑의 고백이 진실됨을 증명할 때에는 트로이러스 이름을 대야 할 것’이라고 호언하지만, 크레시다로부터 어처구니없는 배신을 당하고서는 실연의 아픔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물러선 후 복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크레시다도 역시 ‘만약에 저의 마음이 이 남자를 떠난다면 세상의 모든 부정한 여자들에게 크레시다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라고 사랑의 맹세를 말하면서 트로이러스와이 만남을 애원했었지만, 트로이왕국의 사제였던 자기 아버지가 그리스진영으로 투항함에 따라서 그리스군의 지휘관 디오메데스에게로 사랑의 대상을 돌려 버린다.

그리스의 고전비극은 초인간적인 운명을 모티브로 함에 반하여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대체로 인간적인 성격을 모티브로 한다는 말을 흔히 듣는데, 〈트로이러스와 크레시다〉도 셰익스피어의 다른 작품들처럼 성격극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이 희극이나 비극이나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고, 그냥 문제극(problem play)으로 통칭되기도 한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진실되고 굳건한 사랑의 저력을 보여주지 않음을 보는 독자들은 인간적인 사랑이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안타까운 심정이 된다. 그것은 그리스 고전비극에서처럼 초인간적인 신이나 초자연적인 운명의 힘에 좌우되는 무력한 인간을 보고 느끼는 연민이나 비장감과 다르다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두 남녀의 부박한 사랑 배신이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비치지 않도록 하고 싶었는지 다른 주인공들의 언행도 이중인격자의 표리부동함을 드러낸다. 전래의 트로이전쟁 이야기에서 의리있고 위풍당당한 용장으로 나왔던 그리스진영의 아킬레스와 디오메데스도 이기적이고 비열한 인물로 나온다. 아킬레스와 헥토르, 메넬라오스와 파리스 등 파트너 관계의 양 진영 장군들은 여러 차례 상면하여 의례적인 우호관계 행사를 벌이지만 나중엔 드러난 바로는 생사를 건 적대관계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니, 두 남녀가 사랑의 맹세를 저버리는 것도 이들에게 별로 충격적인 사건으로 비치지 않는다. 두 남녀의 애정관계 부침보다 주변 인물들의 가식적인 인간관계 동정을 묘사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도 작품 중 스토리 전개의 인과관계에 개연성을 더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셰익스피어의 〈트로이러스와 크레시다〉는 전래의 트로이전쟁 이야기에 대해 부분적인 수정을 가함으로써 그 작품의 테마에 속하는 사랑의 배신과 복수를 패러디한 감이 있다. 호머 작품에서는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 왕실의 헬레네를 메넬라오스 왕에게서 뺏아온 것에 대한 보복을 당하고 있는데, 〈트로이러스와 크레시다〉에서는 그리스의 장군 디오메데스가, 트로이 왕자 트로이러스에게서부터 그의 애인 크레시다를 뺏아온 것에 대해 복수를 당할 수 있다는 맥락이다. 트로이 왕자가 스파르타 왕비를 납치해 옴으로써 트로이전쟁이라

는 대재앙을 일으켰지만, 그리스 진영의 장군도 트로이 왕자의 애인을 가로채는 만행을 범했으니 피장파장이라는 풍자가 되는 것이다. 트로이러스는 크레스다를 뺏기고서는, ‘독이 발린 복수의 칼을 찬 우리는 애절한 자비심 같은 것은 물리치고 무참하게 돌진할 것’이라고 외치는 등 복수의 결심을 여러 차례 표명하고 있지만, 그런 마음을 행동으로까지 옮기지는 못하고 있고, 트로이라는 나라 전체가 망하는 처지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할 것이다. 한 남자가 즐겼던 부박한 사랑의 탈취가 거대한 나라의 역사를 끝장내는 것을 보면서도 속절없는 사랑의 복수를 외치는 트로이러스의 착잡한 마음이 이 작품 말미의 주조를 이루고 있다. 빼앗긴 연인을 그리워하거나 허무한 사랑의 결말을 슬퍼하는 기색은 전혀 없이 현실 감각이 전무한 복수의 충동을 읊조리다가 마는 남자의 모습은 어쩌면 르네상스 시대 영국의 부박한 사회풍조를 희화화(戲畵化)한 것일 것도 같다. 순박하고 진정어린 연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보여주는 애절한 순정의 드라마 <로미오와 줄리엣>과는 대척점에 있는 것이 <트로이러스와 크레스다>인데, ‘천의 얼굴을 가진 작가’라는 별칭이 있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목록에 대조적인 이들 작품이 올라있는 것은 그럴듯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1-2. 라신느(Jean Racine; 1639~1699) 작 <페드르>(Phedre, 1677)

프랑스의 고전주의 작가 라신느의 <페드르(Phedre)>는 고대그리스의 비극작가 에우리피데스의 <힉폴리토스>를 개작한 것인데, 그리스신화의 파에드라 이야기는 라신느의 이 작품 뿐만 아니라 역대의 수많은 극작가들에게 인기있는 창작 소재가 되어왔다. 스토리의 개요는, 아테네 왕 테세우스의 후처인 파에드라가 그녀의 의붓아들인 힉폴리토스 왕자에 대한 사랑의 열병을 앓다가 두 사람 모두 비참한 죽음에 이르는 근친상간 미수사건인데, 이 비극적인 사건을 서술하는 두 작품의 관점이 다르게 나타난다. 에우리피데스 작품의 서사구조에서는 파이드라 왕비의 사련(邪戀)이 엄청난 파국을 불러오는 것이 아프로디테와 아르테미스 두 여신의 방자한 의지가 파괴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이지만, 라신느의 작품에 와서는 파에드라 비극의 발생 계기가 인간의 자유의지 행사를 좌우하는 환경 요인인데, 인간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유전적 요인의 작용은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의를 끈다. 인간의 힘으로 거역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든, 불가항력적인 요소들에 의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결정론적인 서사구조라는 점에서는 두 작품이 공통되고 있다.

<힉폴리토스>의 서두에는,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엄숙하고 거창한 선언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자기를 숭배하는 파에드라를 응원하는 한편 자기를 외면하고 처녀성과 숲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찬양하는 힉폴리토스를 가차없이 응징하겠다는 것이다. 파에드라는 의붓

아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임을 알고 고민하지만, 아프로디테의 응원에서 힘을 얻고 자기를 키워준 유모의 조언에서 용기를 얻어서 불륜의 사랑 고백에 이른다. 자신의 부정함을 남편에게 들킨 파에드라는 아들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위기는 절정을 맞는다. 이 작품의 말미에서는 순결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등장하여 파에드라가 테세우스에게 꾸며댄 중상모략의 실상을 일러바치고, 이 모든 치정극의 원인은 아프로디테의 경박한 사랑놀이였음을 밝히며, 자신의 본보기에 따라서 남녀 간의 모든 사랑을 경계했던 힌폴리토스 왕자를 찬양한다. 그러나, 격노한 테세우스 부왕은 이미 포세이돈 해신의 도움을 빌려서 아들을 죽음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비극이 완성된 다음이었다.

라신느의 〈페드르〉에서도 파에드라와 힌폴리토스가 아프로디테와 아르테미스의 가호를 기원하는 부분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서사의 분량으로 보나 신들의 인간사 관여 수위로 보나, 작품 내의 그 비중은 미약한 편이다. 이 작품에 와서는 파에드라에게 탈선의 길 선택을 압박하는 환경 요인이 훨씬 강력해지며, 이 같은 환경 요인은 테세우스 왕의 죽음과 이에 따른 왕실 상속권 문제와 연계된다. 불륜의 욕망을 안고 마음속으로만 고민하던 파에드라가 용감하게 사랑고백을 하는 것은, 출타 중이던 테세우스 왕이 사망했다는 잘못된 소식이 전해지면서이다. 남편인 왕이 사망해 버리면 의붓아들과의 사랑을 가로막을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이며, 의붓아들 힌폴리토스와 사랑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는 것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상속권을 나누어주는 전망을 밝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자신의 부정한 사랑이 성공할 가망이 없어짐을 안 파에드라가 독한 마음을 먹고서 힌폴리토스 왕자가 자신에게 겁탈을 시도했다는 누명을 씌우는 것은, 이 왕자가 뜻밖에도 아리시 공주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면서이다. 아리시 공주는 테세우스 왕과는 적대관계인 또다른 아테네 왕실에 속하는데 힌폴리토스가 그녀하고 맺어지는 것은, 파에드라의 아들들에 대한 상속권 분배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불 같은 사랑을 외면하고 다른 여자를 비밀리에 좋아했다는 것이 파에드라의 질투심과 증오심에 불을 붙였고, 이로써 그녀의 거짓증언의 지를 유발하게 된 것이다. 에우리피데스의 〈힌폴리토스〉에서는 테세우스가 출타 중에 죽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아리시 공주 같은 등장인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고대신화와 근대희곡 모두에서 파에드라의 도도한 격정은 그녀의 모계 혈통에 유래하는 유전현상인 것으로 되어있다. 그녀의 아버지 미노스왕이 포세이돈 해신에게 보인 불경죄에 대한 응징으로 파시파에 왕비가 미노타우로스 괴물과 사랑하는 비극이 발생하였고, 이는 다시 파에드라의 빛나간 열정과 탈선으로 유전되었다는 것이다. 두 작품 모두에서, 파에드라는 자신의 불행이 시작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인간행동에 대한 환경 요인 작용을 인정하는 것이 비교적 근대적인 사고의 결과라면, 유전적인 요인에 대한 믿음은 고대사회로부터 있었던 것이다. 한편, 힌폴리토스의 결벽증적(潔癖症的) 순결 집착에 대한

유전론적 해석은 단순하지 않다. 그의 아버지 테세우스가 사생아 같은 그를 낳은 것은 아마 존족의 여왕 힌폴리타와 야합한 결과인데, 힌폴리토스의 결벽증은 자신의 성벽 밑바닥에 숨어있는 부정한 욕망을 의식한 나머지 이에 대한 과도한 반발이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 것이다.

아프로디테와 아르테미스 두 여신이 보여주는 애정관의 대립과 갈등이 이 스토리의 포인트임에는 고대신화와 근대희곡 간에 변함이 없다. 사랑의 여신의 입장에서는 남녀간의 사랑을 모르고서야 생명의 축복을 다른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물으려고 할 것이지만, 순결의 여신의 입장에서는 남녀간 치정극을 둘러싼 인생의 낭비와 평화의 파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물으려고 할 것이다. 힌폴리토스가 오랫동안 아리시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아르테미스 숭배자이기 때문이었는데, 만약에 그가 자신의 은밀한 사랑을 끝까지 숨기고 있었다면 이들의 비극적인 죽음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다.

1-3. 글루크(Christoph Willibald Gluck, 1714~1787) 작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Orfeo ed Euridice, 1762) 및 오펜바흐(Jacques Offenbach, 1819~1880) 작 <지옥에 간 오르페>(1860)

오페라 안에서 각본이 차지하는 위치를 음악과 동등하게 격상시켰다고 해서 오페라개혁자라고 불리는 오스트리아 작곡가 글루크의 오페라 대본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는 전래되는 오르페우스 관련 신화를 개작했다기보다는 거의 원본 그대로를 차용하고 있다. 글루크는 전래되는 신화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조금 바꾸고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이 흥미롭다. 천재적 리라(lyra)연주자인 주인공 오르페우스는, 비명에 죽은 아내 에우리디케를 살려내기 위해서 지하세계를 찾아가는데 그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진 것은 비범한 음악가의 열정과 사랑의 위대한 힘이 지하세계 파수꾼들과 통치자들의 감동을 얻기 때문이다. 오페라대본의 서사구조 전반부에서는 전래의 그리스신화와 별 차이가 없지만, 이 작품의 후반부에서 에우리디케를 무사히 환생시키기 위한 오르페우스의 약속 이행 부분에서부터는 달라진다.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케를 지하세계에서 데리고 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사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아내가 정말 자기 뒤를 따라오는지 걱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리스신화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글루크의 오페라에서는 사달을 낸 것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점이 우선 눈에 띄인다. 에우리디케는 자기 얼굴을 돌아봐 주지 않는 남편에게 화가 나서 ‘그냥 지옥에 살겠다’고 투덜대는데, 아내에게 실망한 오르페우스가 자포자기하여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아내 환생의 기회는 사라지고 만다. 오르페우스는 참을성 없는 여자 때문에

자기가 헛수고한 것을 후회하지만, 지하세계의 질서 때문에 두 남녀가 헤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사랑의 여신은 이들 남녀를 다시 맺어주는 특전을 베풀어 줌으로써 오페라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된다. 오페라에서는 사랑의 증거를 보고 싶어하는 여성의 애절한 심정이 잘 그려져 있지만, 고대신화에서 미화되었던 사랑의 열정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연약한 인간성의 실상이 두드러진 감이 있다. 애정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도권이 남성과 여성 어느 쪽에 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고대사회의 남성본위 사고가 근대사회에서 수정된 결과로 에우리디케의 주도권 설정이 나왔다는 평자도 있다고 한다.

또한, 그리스신화에서는, 애인을 지하세계에 영영 빼앗기고 지상세계로 올라온 오르페우스가 실연의 아픔 때문에 실성하여 자기 고향 트라케로 돌아온 후에 그 지방 여인들의 열렬한 구애를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 실망한 그네들로부터 수난을 당하는 중에 온몸이 찢겨져 나가는 비참한 죽음을 맞지만, 오페라대본의 결말은 이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오페라가 공연된 무대는, 어떤 귀인의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였다고 하니 사랑의 축복으로 끝나는 작품이어야 했을 터이다.

고대신화 속에서나 글루크의 오페라 속에서나 천재적 음악가의 위대한 예술혼을 보여주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프랑스의 작곡가 오펜바흐의 오페라 <지옥에 간 오르페우스> 대본은 통념적으로 내려오는 오르페우스 이야기를 전면적으로 패러디함으로써 전혀 다른 작품을 만들어 버린다. 여기에서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는 꿈 많은 신혼부부가 아니라 지긋지긋한 권태기에 빠진 부부이다. 서로 미워하여 곧 헤어지고 싶어하는 이들 부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둥이 최고신 제우스와 지하세계 왕 하데스가 에우리디케에게 흑심을 품고 자기 애인으로 삼으려는 술수를 쓰기 때문이다. 남편이 작곡한 음악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에우리디케는 남편이 쳐놓은 덫에 걸려 죽어서 지하세계로 가게 되자 기뻐서 죽을 지경이고, 아내가 멀리 떠난 것을 안 남편은 ‘자유다 해방이다’를 외치며 환호한다. 제우스가 외관상으로나마 이들 부부의 재결합을 유도하려고 함은 가정파탄을 지탄하는 여론의 압력을 못 이기기 때문인데, 오르페우스로 하여금 아내를 찾아서 지하세계로 내려가게 만들면서 다만 ‘뒤돌아보면 허사’라는 단서를 붙이는 것은 고대신화와 다름이 없다. 제우스는 절세의 미인을 보는 순간 탄성이 터져나오고 제풀에 벼락을 내리치는 바람에 놀란 오르페우스가 뒤를 돌아보게 되고 이들 두 남녀는 영영 헤어지는 운명을 맞지만, 두 사람 모두 자유를 얻었다고 환호하는 결말은 관중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유쾌한 패러디 작품으로 성공적인 흥행을 이룬 이 오페라의 익살 가운데에는 프랑스 제2제정시대의 타락한 애정풍속을 풍자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한다.

1-4. 셸리(Percy Bysshe Shelley; 1792~1822) 작 <사슬 풀린 프로메테우스> (Prometheus Unbound, 1820)

‘인간은 초자연적인 신들과 적대관계일 수밖에 없는가.’ ‘유한한 인간의 능력으로 무한한 우주 속에서 어떤 역사를 창조할 것인가.’ 이 같은 형이상학적인 인간관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 그리스신화의 프로메테우스 이야기이다. 절대 권력의 소유자인 제우스 신은 인간사회의 자유나 정의 문제는 불문에 부치고 무자비한 폭력과 압제를 통치 수단으로 하는데, 최고신의 폭정에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 하위신(下位神) 프로메테우스이다. 제우스의 뜻과는 무관하게 인간을 창조한 것부터가 프로메테우스이다. 인간의 행복을 염원하는 유일한 신인 그는 인간에게 농경과 의료 기술을 가르치는 등 문화의 씨를 심어주기도 한다. 하위신 프로메테우스가 최고신 제우스의 압제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지혜가 최고신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 우주의 지배권을 놓고 타이탄 신족(神族)과 싸운 제우스 신이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프로메테우스의 도움 때문이었다.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는 그리스신화 작가들 사이에서 일치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셸리의 서사시 <사슬 풀린 프로메테우스>의 원본은 아이스킬로스의 <결박된 프로메테우스>로 치는 것이 통설로 되어있다.

셸리가 쓴 프로메테우스 서사시가, 불의의 폭군에 대한 용감한 저항이라는 기본 테마를 담고 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프로메테우스의 저항정신에 대한 셸리의 서술이 고대신화의 것들과 크게 달라진 것은, 최고신의 절대권력에 대해 하위신이 도전하고 이를 전복시키는 방식이 매우 집요하고 치밀하다는 것이다. 원래 신들의 전유물이었던 불을 훔쳐다가 인간세계에 선사했다는 이유로 제우스 신은 프로메테우스를 코카사스 산정에 결박해놓고 독수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의 간을 쪼아먹게 했다는 것이 전래되는 그리스신화의 대체적인 내용인데, 고대신화 작가들 간에는 최고신과 하위신의 기싸움이 끝나는 방식이 대체로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진다. 한 가지 방식은 양자 간의 교묘한 타협안으로 다툼을 종결짓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방식은 프로메테우스의 비참한 완패로 끝나는 것인데, 아이스킬로스의 <결박된 프로메테우스>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최고신 제우스와 하위신 프로메테우스의 대립이 양자 간의 양보와 타협에 의해 원만한 타결에 이르는 전자(前者)의 방식은 ‘더도 덜도 앓는다는(no more, no less)’ 고대그리스의 중용(中庸) 사상이라 할 것이다. 제우스신이 프로메테우스의 결박된 몸을 풀어주고 올림푸스 주신족(主神族)과도 가까이할 수 있게 만들어줄 정도로 노기를 풀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최고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극비의 묘방을 알고있는 자가 프로메테우스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제우스는 자신의 최고신 자리를 자기 부신(父神)인 크로노스로부터 폭력으로 찬탈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아들에게서 왕위를 뺏길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

우스 신 소생의 무수히 많은 아들들 가운데에서 어느 여신이 낳아준 아들이 문제의 찬탈자가 될 것인지를 알게 해주면 프로메테우스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협상이 진행된 결과로, 제우스가 문제의 여신과 통정하기를 피함으로써 최고신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으니 쌍방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말이다. (이 문제의 여신은 강의 여신 테티스였는데, 제우스는 테티스 여신을 테살리의 펠레우스 왕과 결혼케 함으로써 아킬레스라는 불세출의 영웅이 탄생하는 계기가 된다.)

다른 한편, 프로메테우스의 끈질긴 저항이 비참하게 꺾일되는 후자(後者)의 서사구조가 아이스킬로스의 〈결박된 프로메테우스〉인데, 이는 최고신과 하위신 양쪽의 입장이 너무 강직하다는 성격설정에서 가능해진다. 제우스의 폭정이 정의와 지혜를 결한 것이라고 믿는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가 알고 싶어하는 비밀을 발설하기를 끝까지 거부하였고, 자신의 절대권력을 신봉하는 최고신 제우스는 오만불손한 프로메테우스에게 한 바탕 천둥벼락을 내려침으로써 박살을 내어 버린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정의가 보장되는 이상사회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작품화하고 싶었던 쉘리의 입장에서는 상기한 두 가지 서사구조 모두를 거부한다. 프로메테우스 이야기가 소신없는 현실타협적인 결말로 끝나거나 무력한 저항자의 비참한 결말로 끝나는 것 모두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쉘리가 그려낸 폭군에 대한 저항은 폭정을 타도하는 자신의 사명감을 굽히지 않는 동시에 폭정을 타도하는 힘까지 갖추고 있는 것이다. 쉘리가 그린 정의의 투사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의 결박된 몸을 풀어주도록 제우스의 노기를 무마하기 위해 그에게 최고신 지위 보존의 묘방을 알려주는 비굴함을 참지 못한다. 쉘리의 작품에서는 제우스와 테티스 여신 사이에 탄생한 아들인 데모고르곤에 의해 부신(父神)의 폭력 통치가 종료되고 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폭력 통치가 계속되는 한, 자신의 결박이 풀리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굽히지 않으며, 제우스 최고신의 폭정은 신탁의 예정에 따라서 순리적으로 종결되는 것이다.

쉘리의 〈사슬 풀린 프로메테우스〉의 서사구조가 고대의 그리스신화에서 언급되지 않는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자유주의 이념과 정의구현의 신념이 현실화되는 나라를 그리고자하는 작가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대신화에는 나오지 않는 인물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음도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이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 신 치하의 공포와 억압 상황을 개선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도입하지만, 이에 맞서서 복수의 여신들(the Furies)이 반동의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 프로메테우스가 불의와 싸우는 용기와 힘을 얻는 것이 ‘대자연’을 상징하는 아내 에이시아와의 사랑에서부터임을 보여주는 것은 사랑의 위대한 힘을 증명하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 쉘리가 살았던 시대는, 격렬한 시민혁명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혼란상이 빚어지고 있었는데, 혁명의 어려움을 보면서 역사발전의 전망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갖는 자들과는 달리, 그의 낭만적 이상주의 문학은 어려운 난관을 거쳐서 발전하는 역사에 대해 굳건한 희망을 견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의 〈서풍부(西風賦)〉라는 장편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명구인,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If Winter comes, can Spring be far behind?)라는 희망가가 상기되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1-5. 괴테(J. W. von Goethe; 1749~1832) 작 〈파우스트〉(Faust, 1831)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자기를 최고의 미녀로 낙점해준 트로이 왕자 파리스에 대한 보답으로 그에게 스파르타 왕비 헬레네를 납치할 기회를 줌으로써 트로이전쟁 발발의 원인을 만드는데, 유럽인들에게 전설적으로 알려진 그녀의 성격은 이중적인 것이었다. 한편에서는, 남편을 배신하고 간통을 범하여 전쟁이라는 재앙을 가져온 인류적인 타선의 주인공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범상한 인간들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도록 아득하고 신성한 위치에 있는, ‘환영’과도 같은 존재이다. 헬레네의 어머니는 레다라는 인간이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최고신 제우스인 것이다. 유럽문예사에서 헬레네를 언급한 작품은 무수히 많은데, 그녀의 성격에 대한 서술은 작가에 따라서 이들 두 가지 성격 중에 어느 하나로 기울어진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볼 때, 현대로 올수록 자유로운 영혼을 지니고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전자의 성격이고, 고대로 갈수록 초인간적인 환영으로 나타나는 후자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무수한 등장인물들 중에 하필 헬레네가 괴테의 〈파우스트〉의 주인공으로 선택된 까닭은, 헬레네와 파우스트의 성격이 상통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상술한 바 헬레네의 두 가지 성격 중에서 ‘인류적인 타선을 불사하는 절세의 미녀’라는 점이, 타락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확대의 꿈을 쫓는 파우스트의 성격과 부합되는 것이다. 〈파우스트〉에서 그리스신화 스토리가 뚜렷이 나타나는 예는 많지 않고, 다만 호머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헬레네의 캐릭터 중 일부가 나오는 정도이다. 〈파우스트〉 2부 3막에서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의 도움으로 고대 그리스를 찾아가서 헬레네를 만나는데 근대적인 인물이 고대의 인물을 만나는 것이니, 시간여행이나 환상여행 같은 것이다. 파우스트가 헬레네에게 구애하면서 ‘나는 당신의 숭배자요, 시종이요, 파수꾼이요’라고 하는 말은, 미인 사랑이라는 그의 소망의 간절함과 더불어 ‘무한 욕망의 소유자’라는 그의 또다른 성격을 이중적으로 보여준다.

고대그리스를 찾아가는 파우스트는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들 이야기에는 흥미가 없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표상으로 알려진 헬레네를 만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향락의 기회를 소망하는 파우스트적인 끝없는 욕망의 발로라고 할 것이다. 파우스트가 메넬라오스의 추격을 따돌리고 헬레네와 함께하는 목가적인 전원생활 속에서 ‘아르카디아의

축복'을 즐기는 것도 그렇다. 두 사람 사이의 소생인 에우포리온은 응석 부리는 벌거숭이 천사로 등장하여 칠현금 뜯는 음악의 신으로 성장하나, 마침내는 이카루스의 고공비행 꿈을 쫓다가 추락사하고 헬레네도 아들을 따라서 지하세계의 암흑 속으로 떨어진다.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를 만나기 이전에 몰두했던 정태적(靜態的)인 세계탐구 과정이 중세적이라면, 자기실현 욕망의 추구하고 안식을 모르는 영혼의 자기확대 과정은 근대적인 인간상이라고 할 것이다. 파우스트의 연애모험은 헬레네와 에우포리온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이로써 파우스트 자신이 구원받는 것을 가로막지는 않음이 주의를 요한다. 파우스트가 헬레네처럼 아름다운 여성을 사랑하다가 부딪치는 인생의 파고는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리스신화적인 휴머니즘의 구현인 것이다. 호머의 <일리아드> 중에서 트로이 왕 프리암이, 조국의 운명을 전쟁의 비극으로 몰아넣은 헬레네를 향해, 그녀의 경박함을 꾸짖지 않고 그 같은 비극이 일어나게 만든 신들의 잘못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관점이라 하겠다.

신들이 잘못된 것을 두고 헬레네의 잘못을 묻지 않겠다는 프리암 왕의 언질은, 인간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이 따로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의 영역은 만족스러운 결말을 추구함이 아니고 불만족스러운 향상의 노력을 그치지 않음을 뜻한다고 생각된다. 괴테의 <파우스트> 가운데에,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에게, 현실에 대한 만족을 표명할 때가 바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임을 선언하는 대목이 이를 말해준다.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에게 내기 걸기를 제안하면서 <내가 환락에 취해 버리도록 자네가 나를 농락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게는 마지막 날이지! 내기를 하자꾸나! 내가 어느 순간을 보고, '멈춰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하고 말한다면 너는 나를 퐁퐁 묶어도 좋고, 그 때 나의 죽음의 종 소리가 울려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영역은 끝없는 욕망의 추구인데, 욕망을 추구함은 쾌락의 환영을 쫓는 것이고 이는 환영의 유혹에 넘어가는 인생의 낭비를 포함한다는 것이 파우스트가 거쳐가는 인생 도정이라 할 수 있다. 파우스트가 마시도록 메피스토펠레스가 준 '사랑의 묘약'은 모든 여자가 헬레네 같은 미인으로 보이도록 만든다. 그 약을 마시고 거리로 나온 파우스트는, 고해성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열네 살 난 세상 모르는 어린이에 그레트헨을 상대로 헬레네를 본 것 같은 욕정에 사로잡힌다. 가까이 가면 흐릿해져서 안 보이게 되는 헬레네의 흐릿한 환영이 파우스트의 넋을 빼서 순진한 소녀로 하여금 자기 어머니와 오빠와 어린 영아의 죽음을 맞도록 하는 죄를 짓고만다.

인간의 영역이란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만족의 성취를 얻지는 못하는 것이고, 만족의 성취로 향하는 끝없는 과정이 인간적인 삶일진대 여기에서 '인간적임'의 의미가 무엇이나 하는 물음이 나온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로는, 그리스신화의 서사구조는 '인간의 도리 이야기'보다는 '인간의 본성 이야기'를 지향하기 때문에, 스토리 전개에 방향성 선택의 여지가 더

다양해지고 이야기 내용의 흥미유발력이 더 풍부해진다고 보았는데, 이 같은 논의는 바로 헬레네 캐릭터의 경우에 해당된다. 헬레네는 공감 능력이 없는 남편 메넬라오스를 배신하고 매력적인 남자 파리스를 따라갔고, 파리스가 죽은 다음에는 그의 동생과 결혼하기까지 하는데,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헬레네가 이처럼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것은 얼마나 그녀의 여성적인 본성에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일리아드>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물로 나오는 오딧세우스는 파리스의 형인 헥토르로부터 ‘파리스는 헬레네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오딧세우스는 헬레네를 스파르타로 다시 데려가기로 하는 메넬라오스에게는 ‘아내의 정절을 의심치 말라’는 조언을 해준다. 이를 보는 독자들이 어떤 말을 믿을지는 정답이 없고, 어느 쪽으로 믿어도 여자의 본성과 위배된다는 말은 할 수 없을 것이다. 한 남자를 사랑함과 여러 남자를 사랑함 중에 어느 것이 여자의 본성인지는 영원한 의문일 터이다.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불투명하고 미확정적이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불투명한 인간 본성을 찾아내고 드러내고 하는 끊임없는 과정이 문학과 예술을 더욱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된다.

1-6.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 1882~1941) 작 <율리시즈>(Ulysses, 1922)

20세기 영문학의 거장으로 손 꼽히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는 호머의 <오딧세이>를 대응적 서사구조로 삼고 있다. 율리시즈(Ulysses)라는 단어부터가 <오딧세이>의 주인공 오딧세우스(Odysseus)의 라틴어식 표현이다. 이 작품을 이루는 열여덟 장(章)의 에피소드들은 그 하나하나가 이에 상응하는 <오딧세이> 중의 에피소드를 갖고 있어서 <율리시즈> 소설에 함축된 비유적인 의미는 이에 상응되는 그리스신화 내용을 참조해야만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조이스는 현대사회를 사는 비루하고 누추한 인간 군상을 감동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아득한 옛날 고대신화에 그려진 영웅적인 삶의 모습을 그 옆에다 세워놓은 것 같다.

<율리시즈>의 외형 구조는 극히 단순하다. 주인공 레오폴드 블룸이 더블린 시내에서 하룻동안(Bloom's Day; 1904년 6월 16일) 겪는 자잘구레한 일들로 엮여진 것이다. 유대인인 그는 영국과 아일랜드 양쪽 국민들에게 핍박받으면서 기를 펴지 못하는 소심하고 겁 많은 남자이다. 호머의 영웅 오딧세우스가 트로이전쟁이 끝난 후 10년 동안의 귀향 길에서 보여주는 능률한 기상, 아슬아슬하게 긴박한 모험, 죽음에 임박해서도 꾀꾀한 용기, 생사기로의 위난을 극복하는 절묘한 지혜와는 거리가 멀다. 영세한 광고모집업에 종사하는 블룸은 무명 가수인 자기 아내가 비열한 남자와 부정한 통정을 하는데도 따끔한 말 한마디 못한다. 아내의 아침 식사 마련까지 해야하는 남편은, 아내가 집에서 무얼 하는지 물어보지도 못한다. 집을 나온

그는 하룻동안 직업적인 업무와 사회생활 상의 자잘한 만남을 위해 신문사, 장례식장, 술집, 해변 산책길 같은 데를 들른 다음에 밤 늦게 귀가하여 아내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침대 속으로 기어들어가 눕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끝낸다.

두 작품 안에서 오딧세우스의 상응 인물이 불룸이라면 오딧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에 대한 상응 인물은 불룸의 아내 물리인데, 이들 두 여자의 성격은 극과 극이다. 서양역사상 열녀의 본보기로 알려진 페넬로페는, 남편이 출타한 20년 동안 자신에게 구애하는 못남성들을 비범한 끈기와 지혜로 물리친 다음에 감격의 재회를 성사시키지만, 정조 관념이라고는 전무한 물리는 남편이 버젓이 한 지붕 아래 같이 살고있는데도 비열한 외간 남자 보일런과 경박한 연애를 즐긴다.

오딧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의 상응 인물은 젊은 교사이며 예술지망자인 스티븐 디달러스이다. 디달러스(Dedalus)라는 이름부터가 그리스신화에서 크레타섬의 미궁을 만든 천재적인 예술가 다이달러스(Daedalus)에 유래한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 부재 중에 봉착한 가정의 위난 속에서 어머니를 잘 보호한 끝에 부자상봉의 감격을 맞는다. <율리시즈>에서 불룸과 디달러스는 정신적인 부자관계인데, 그것도 가끔씩 머릿속으로만 상상해보는 어정쩡한 관계이다. 불룸은 오래 전에 죽은 아들 대신에 디달러스가 아들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에게 접근하지만 끝내 부자관계 성립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며, 디달러스 편에서도 부자관계의 가능성을 안고 접근하는 불룸의 친절함을 눈치 채지만, 이들의 관계는 끝내 결정적인 추진력을 얻지 못한다. 작중 장면들 가운데에서 이들 두 남자는 우연히 만날 것 같다가 헤어져 버리거나, 어쩌다가 용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도 양인의 관계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운데 싱겁게 끝나버린다.

<오딧세이>와 <율리시즈> 두 작품 가운데 상응관계의 대표적인 에피소드를 골라서 양자간의 의미확산 맥락을 살펴본다. ‘오먼드주점’이 배경인 <율리시즈> 11장은, <오딧세이> 가운데 세이렌(Seiren) 관련 에피소드와 상응관계를 이룬다. 세이렌은 새의 몸과 여자의 얼굴을 한 바다 요정인데, 지나가는 배를 감미로운 노래소리로 유혹하여 난파시킨다. 오딧세우스 일행이 이곳을 지날 때에 그는 뱃사공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서 세이렌의 노래를 듣지 못하도록 하지만, 그 자신은 귀를 막지않고 허리만 돛대에 동여매도록 한다. 세이렌의 노래소리를 직접 듣기는 하면서도 몸의 안전을 지켜내는 방도인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율리시즈> 에피소드에서, 불룸은 헛수고임이 틀림없는 연애편지를 쓰려고 문방구에 들어가던 중에 아내의 애인 보일런을 보고서는 그를 추적할까 생각하지만, 때마침 지인을 만나게 되어 같이 식사하러 가기로 마음을 바꾼다. 식당에 들어가서는 바로 옆 방에서 노래소리가 들리지만, 곧 잊어버린다. 아내가 애인과 밀회 중일 것을 상상하면서 불안해하지만 이들에게 간섭은 하지 않기로 한다. 신화 속의 남자는 과감히 위험에 맞서면서 감동의 인생체험을 쌓아가지만,

현대사회를 사는 한 남자는 너절한 일을 가지고 속을 썩히고 있는 것이다.

샌디마운트 해변을 배경으로 하는 〈율리시즈〉 13장은 〈오딧세이〉 가운데 나우시카(Nausikaa) 관련 에피소드와 상응관계이다. 지중해 외딴 섬의 공주인 나우시카는 이 섬에 표착한 아사 직전의 오딧세우스를 구해주고 정성껏 대접하는 동안 그의 당당한 풍모에 반했으면서도 그의 귀향 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박한 구애행위를 자제하는 분별력을 지닌다. 한편, 해변 유원지로 걸어나온 블룸은 잠시 명상시간을 갖는데, 놀러나온 몇몇 아가씨들이 그의 시선을 끈다. 그 중에 한 아가씨가 가까워서 벌어지는 불꽃놀이를 구경하던 중에 상체를 한쪽으로 기울이다가 짧은 속옷 입은 것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이를 본 블룸은 불현 듯 욕망이 발동하여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기에 이른다. 나른한 만족감에 젖어든 그는 꿈 같은 환상 속의 센티멘탈리즘을 즐긴다. 고대신화 속에서는 위풍당당한 영웅과 그를 알아본 공주의 만남이 품격과 존엄을 유지하고 있는데, 천박한 현대사회의 남녀군상들은 말초감각적인 쾌락을 쫓고 있음을 보여주는 에피소드이다.

한밤중의 더블린 거리가 배경인 〈율리시즈〉 15장은 〈오딧세이〉 가운데 키르케(Circe) 에피소드와 상응관계이다. 케르케 마녀는 자기 영역인 섬에 들어온 오딧세우스 일행에게 독주를 대접하고 마법 지팡이로 건드려서 돼지로 변신시키는 심술을 부리는데, 오딧세우스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하여 키르케를 제압하고 항복을 받아낸 다음에 마법 변신의 원상 복원과 더불어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 〈율리시즈〉 15장에서 블룸은 사창가 거리에서 스티븐을 뒤따라 가며 그의 동정을 살핀다. 스티븐은 창녀들의 유혹을 받으면서 죽은 어머니의 환상을 보고 거리로 뛰쳐나가다가 어떤 남자의 애인을 희롱했다는 비난과 함께 구타를 당하고 쓰러진 것이 블룸의 도움과 보호를 받는 좋은 계기가 되지만, 스티븐의 고독한 삶을 바꾸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났는데도 그러지 못하는 블룸의 무능함이 아쉬운 장면이다. 용기있고 지혜로운 행동으로 부친이나 지도자로서의 확고한 위신을 세우는 오딧세우스와, 자기자신의 초라한 삶조차 제대로 주재하지 못하는 블룸의 처지가 두 에피소드 간에 대비되는 점이다. 한밤중의 거리에서 위험에 처한 스티븐이 블룸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이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교감으로 발전할 기회였지만, 그들은 확실한 결심에 이르지 못하면서 상호간의 부자관계 예감은 쉽게 사그라지는데, 두 가지 에피소드에 있는 마법의 변신과 환상, 지팡이 구타 같은 요소가 상응관계의 연결고리라고 생각된다. 마지막 장에서, 블룸의 아내 몰리는 과거 꿈 많던 처녀시절과 신혼시절의 아름다운 사연들을 놓고 속절없는 회상에 빠져들지만, 옆에서 잠 자는 남편에게 자기 마음을 들려줄 생각은 나지 않는 가운데 지루한 하루 동안의 이야기가 끝난다.

1-7. 유진 오닐(Eugene O'Neil, 1888~1953) 작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 (Mourning Becomes Electra, 1931)

20세기 미국의 자연주의 극작가 유진 오닐의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 표제에 ‘엘렉트라’가 들어있는 것은, 이 작품에 실지로 ‘엘렉트라’라는 주인공이 등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엘렉트라 이야기가 이 작품의 가족 간 치정극 서사구조의 모델처럼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트로이전쟁 때 그리스 연합군 총수였던 아가멤논 왕이, 종전 후 귀환하는 날, 클리템네스트라 왕비와 그녀의 정부 아이기스투스의 모의로 죽음을 당하고 엘렉트라 공주와 오레스테스 왕자에 의해 아버지 죽음에 대한 복수가 이루어지는데, 이와 아주 유사한 가족 간 비극이 1860년대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다음 도표에서 보듯이, 작중 인물들이 두 작품 사이에 서로 대칭구조를 이룰 만큼, 유진 오닐은 현대 미국사회에서 일어난 한 가정의 비극적 치정극의 원형을 그리스신화에서 찾았다.

| 고대 그리스 가정의 치정극 | 현대 미국 가정의 치정극 |
|----------------|---------------|
| 아가멤논 | 에즈라 마농 |
| 클리템네스트라 | 크리스틴 |
| 오레스테스 | 오린 |
| 엘렉트라 | 라비니아 |
| 아이기스투스 | 아담 브란트 |

이들 두 가정의 치정극이 유사한 서사구조인 것은 대칭구조를 이루는 작중 인물들의 가족 관계에서부터 분명해진다. 두 가정의 밖에서부터 침범하여 처참한 가정파괴를 초래하는 아이기스투스와 아담 브란트가 두 가정의 가장인 아가멤논과 에즈라 마농하고는 사촌관계 혈육이라는 점이 유사하고, 이들이 악랄한 가정파괴범이 된 것은 억울한 과거사의 구원(舊怨)을 씻는다는 복수의 열망 때문임도 유사하다. 아이기스투스는 자기 아버지 티에스테스가 아가멤논의 아버지 아트레우스로부터 치욕적인 모멸을 당한 것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었고, 아담 브란트는 자기 아버지 데이빗이 에즈라 마농의 아버지 에이브 때문에 유족한 명문가에서 쫓겨나는 통한의 역사를 안고 있는 것이다. 두 가정에서 일어나는 비극의 배경에는 모두 형제간의 잔인무도한 싸움이 있었는데, 애욕의 자연본능이 광증 발작처럼 발동하면서 근친간 살해의 치정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한다. 두 작품에서 잔악한 가정파괴범으로 나오는 아이기스투스와 아담 브란트가 원한 맺힌 혈육에게 복수하는 방법이 광적인 애정욕구와 결합되는 기이한 이야기라는 점에서도 두 가정의 치정극은 유사한 서사구조이다. 아버지의 억울

한 죽음에 대해 처절한 복수를 감행함에 있어서 부친선호적인 딸들 쪽이 아들보다 더 열성적이어서 세간에 많이 회자되는 ‘엘렉트라컴플렉스’라는 정신분석학 용어를 연상케 한다. 엘렉트라와 라비니아가 남동생들인 오레스테스와 오린의 미온적인 복수욕을 부추겨서 모친 살해에 공조하도록 만듦으로써 스토리의 비극성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

엘렉트라 이야기는 오랫동안 유럽의 문학인 예술인들에게 인기있는 창작 소재였으나, 유진 오닐의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는 아이스킬로스의 3부작 〈오레스테아〉(Oresteia)를 본보기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 두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대체적인 특징을 말한다면, 〈오레스테아〉의 인물들은 자기통합적인 성향이 강한 결과로 굳건한 자기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반면에,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의 인물들은 자기분열적인 성향이 강한 결과로 자기 행동에 대한 갈등이나 후회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다. 〈오레스테아〉의 작중인물들이 자기확신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판단과 결심을 정당화시켜주는 신의 존재를 믿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복수욕에 불 타는 클리템네스트라와 엘렉트라 모녀이다. 이들 모녀는 자기 남편이나 어머니를 죽이는 순간에도 결연하고 당당한 기세를 보일 정도로 자기확신적인 정의감에 흔들림이 없는 인물들이다. 〈오레스테아〉 3부작 중 첫 번째인 〈아가멤논〉에서, 트로이전쟁을 치르느라 10년 만에 집에 돌아온 아가멤논 왕을 욕실에서 살해한 후 밖으로 나온 클리템네스트라는 코러스 앞에서 자기 소행을 밝힐 때에도 당당하고 신념어린 어조이다.

나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소. 이 남자가 자기 운명을 피하거나 막지 못하도록 나는 이렇게 해치웠소., 여기 이 사람은 내 남편 아가멤논이지만, 지금은 시체에 불과하오. 충실한 심부름꾼인 내 오른팔이 해치운 일이오., 혈육 간에 무자비한 (사기성) 잔치를 베푼 아트레우스의 악행에 복수하는 해묵은 악령이 여기 죽어있는 자의 아내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이 철부지 노인을 죽인 것이 라오.(84-85)

신화시대에는 죄 지은 인간도 신들의 가호로 구제를 받기 때문에 자기확신적인 선택과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스킬로스의 〈오레스테아〉이다. 그의 3부작 중 두 번째인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에서도 자기 누나 엘렉트라의 사주를 받은 오레스테스가 자기를 놓고 키워준 어머니를 죽이러 가는 순간에 자기가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음은 여러 신들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정의감에서부터 어머니에 대한 복수욕을 키워낸 오레스테스는 모친살해의 패륜을 범한 다음에도 죄의식이 없고 태연자약하다. 오레스테스가 아폴로 신과 아테나 여신의 가호로 무죄 판

결을 얻어내는 극적인 장면이 아이스킬로스의 3부작 중 세 번째인 <자비로운 여신들>에 나오는데, 이는 신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세계의 질서회복이 <오레스테아> 3부작의 테마임을 말해준다. ('오레스테아'는 '오레스테스 이야기'라는 뜻임).

(오레스테스가 코러스장에게) 내게 이런 모험을 하도록 명령하신 아폴로의 강력한 신탁은 결코 나를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분께서는 복수의 여신들이 찾아와서 아버지의 피의 대가를 요구하게 될 거라고 하었어요.(112—113)

아아, 듣기에도 창피한 장례식. 아버지를 욕되게 한 자, 신들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손으로 복수하리라. (119)

신들의 위력이나 신탁의 권위에 의지할 수 없고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과 결의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이 현대사회라고 할 때, 유진 오닐의 작중인물들이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에 대해 회의하거나 자신의 선호 대상을 쉽게 바꿀 수 있음은 이 시대를 사는 자기분열적인 인간상을 그린 것이라 생각된다. 고대인들의 자기확신은 자기통합으로 가는 길이고 현대인들의 자기불신적인 갈등이나 방향은 자기분열로 가는 길이라 할 것이다. 인간의 자연본능에 대한 부자연스러운 억압과 왜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대사회에서 내면적인 자기분열 현상이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것이 유진 오닐의 작중 인물들이다. 그들은 유달리 강한 자연본능과 애정욕구를 갖고있고, 종교적이거나 세속적인 강박관념으로 자연적인 본능과 욕구를 억압하기 때문에 낭비적인 갈등과 방향을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내면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모순적인 힘들의 공존 양상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유진 오닐의 자연주의 문학은 집중적으로 자연본능의 왜곡과 억압에 기인하는 갈등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상복에 어울리는 엘렉트라>에 나오는 갈등상황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

라비니아: 나에게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면, 엄마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크리스탄: 네가 그 남자[아담 브란트]를 좋아한단 말이지만, 이 멍청아, 엄마가 일부러 그 남자가 너에게 추파를 던지게 한 걸 모르느냐? 네가 우리 [둘의 내연] 관계를 의심하지 않게 말아야.(57)

이 부분은 애정욕구가 유달리 강한 엄마와 딸이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기막힌 갈등상황인데, 자기 딸이 그러한 갈등상황을 인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엄마의 왜곡된 욕정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붙이기는 쉽지않을 것이다. 자기 딸이 자신의 정부를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

는 엄마의 심정은 어떠할지, 자신의 미묘한 위치를 알고난 후의 딸은 자신의 마음의 향방을 어떻게 정할지, 보는 사람마다 소화가 다를 것이고, 인간성의 이 같은 불투명성이 유진 오닐 문학의 매력일 것이다. 에즈라의 딸 라비니아의 애정욕구가 서로 원수관계인 자기 아버지와 애덤 브란트 선장 두 남자에게로 뻗어간다는 것도 여성심리의 불투명성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작가 자신도 이 부분이 개연성을 결한 것으로 생각했는지, 이들 두 남자의 얼굴 인상이 매우 닮았음을 여러 차례 언급한다. 어쩌다가 원수관계가 됐지만, 근본 바탕은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메시지일 것 같다.) 한 사람의 애정을 촉발하는 두 사람의 정신세계가 서로 모순된다는 것은 인간의 심리기제가 자기통합의 질서를 이루지 못함을 말해주고, 인간의 판단이나 사랑이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가 아님을 보여주는데, 이 같이 비합리적이지만 사실적이기도 한 욕망의 세계를 즐겨 재현하는 것이 유진 오닐 문학의 자연주의적 특징이라 하겠다.

우리가 비교하는 두 작품에서 가족 간 살해의 비극이 어떤 결말에 이르는지를 살펴보면, 신화시대와 인문주의 시대가 인간의 운명적인 죄악 가능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다른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오레스테아> 3부작의 최종편인 <자비로운 여신들>에서는, 오레스테스가 모친살해를 범한 직후에 모친의 혼이 보낸 복수의 여신들(the Furies)에게 쫓겨서 아폴로신전에 당도하는데, 아폴로 신전의 신탁은 그의 죄를 정당하게 심판받으려면 아테네로 가야한다고 가르친다. 아테네의 '12인 배심원 재판'에 넘겨진 그는 '모친살해는 부친살해보다 죄가 가볍다'는 아폴로 신의 변호에 힘 입어 찬반동수의 판결을 받으나, 이를 긍휼히 여긴 아테나 여신의 동정적인 결선표를 얻어서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자유의 몸으로 풀려난다. 오레스테스를 괴롭히던 복수의 여신들조차 아테나 여신의 새로운 임무 부여에 만족하며 자비로운 여신으로 재탄생할 것을 맹세한다. 인간의 숙명적인 죄악을 궁극적으로 응징하거나 용서하는 것은 자비로운 신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비극은 신들의 도움을 얻어야 해결될 수 있고, 죄악으로 혼란스러워진 인간세계는 자비로운 신들의 도움으로 정의와 질서를 회복됨을 의미하는 결말인 것이다.

다른 한편,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에서는 인간의 숙명적인 죄를 응징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인간 자신이다. 다른 가족들이 모두 비명에 죽고 혼자 남은 라비니아는 자신의 죄를 벌하거나 용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선언하면서 죽은 이들의 영혼과 함께 컴컴한 집 안에 갇혀 사는 것이 바로 자기 죄를 심판받는 것이라고 한다.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문을 걸어잠그는 그녀의 자기폐쇄적인 행동은 신의 존재를 불신하는 현대인들의 고독한 모습을 보여준다. 더구나, 그리스비극에서는 개인의 운명이, 수호신의 보호를 받는 공동체의 운명과 연계됨으로써 고립무원한 개인의 처지를 면하고 있지만, 현대사회에 와서는 고립감 가운데 자신의 결단에 의해 갈등을 해결해야하므로 비극적인 분위기가 더욱 고조된다 하겠다.

1-8. 볼프강 페테젠 감독의 영화 <트로이> (2004)

그리스신화 이야기를 모티브로 영화가 만들어진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일반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기로는 <트로이>가 대표작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그리스신화가 인간의 본성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중적 매력을 발하기 쉽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도 영화 <트로이>를 예로 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무릇 전쟁이라는 비상사태 속에서는 인륜적인 도리보다는 이기적인 인간본성에 따르는 행동이 나오게 마련인 점에서도 이 영화는 그리스신화적인 열린 서사구조의 특징을 안고 있다. 게다가, 관념적인 사고의 기회이기보다는 감각적인 영상매체로 즐기는 영화의 장르가, 인간의 본성 묘사에 서사의 초점이 있는 그리스신화의 특징을 잘 살릴 것 같다.

영화 <트로이>는 빠른 템포의 영상예술 작품에 잘 어울리도록 원래의 신화 이야기를 압축하고 단순화하는 수정 작업과 더불어 그리스신화적인 열린 서사구조의 특징을 잘 살리는 방향에서 전래의 고대신화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영화에 나오는 전쟁 영웅들의 용감한 행동의 추진력, 애국심, 충성심, 효성과 같은 인륜적인 도리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자존심이나 허영심, 명예욕, 권력욕이라는 사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찰과 공감을 유도한다. 주인공들 각자의 개성적이면서 인간적인 욕망이 드러나는 방식이 영상매체에서는 더욱 짙고 사실적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야성적인 용맹함이나 자존심이 돋보이는 아킬레스의 행동은, 어떤 덕망이나 사명감 같은 당위성 보다는 자기본위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아킬레스가 아가멤논 왕의 오만함에 분노하여 출전을 거부한다거나, 아들의 시체를 넘겨달라고 찾아온 트로이 왕에게 이제까지의 울분을 풀고 연민의 정으로 개심하는 장면들은 교과서적인 인륜 도덕으로보다는 자연스러운 인간성의 발로로 설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용장인 아킬레스와 대비되는 인물이 트로이 왕자 헥토르인데, 조국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가족들을 아끼는 대표적인 덕장인 그의 행동에 대해서도, 도덕 강령을 수동적으로 지키는 선량함보다는 인간본성의 자연스러운 표출로 보아야 전쟁 드라마의 감동이 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욕망 앞에서 인륜적인 규범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트로이 왕자 파리스의 연애행각인데, 이를 드러내는 몇 개 장면들은 전래의 그리스신화에서는 없던 내용을 영화 <트로이>에서 새로 삽입함으로써 보는 이의 공감을 더해준다. 파리스가 스파르타 왕궁의 밑실에서 스파르타 왕비 헬레네를 유혹하는 긴박감 넘치는 장면이나, 평화회담을 마치고 트로이로 귀국하는 선상에서 자기 형 헥토르로부터 자신의 불장난이 국가존망이 걸린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문책 받는 장면은, 인간의 본성이 과연 이런 것이었는지 그지없는 상상과 공감을 자아낸다.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는 전래의 신화 속에서는 트로이전쟁이 끝난 후 피폐해진 아내 헬레네를 데리

고 처량한 모습으로 귀국하지만, 영화에서는 아내의 버림을 받은 울분을 머금고 트로이 왕자와 벌이는 싸움에서 죽음을 당함으로써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민감한 관심사가 보는 이의 심금을 울려준다. 전래의 신화 속에서는 미케네 왕 아가멤논이 귀국 후 원한 맺힌 자기 아내에게 죽음을 당함에 반하여, 영화에서는 자기가 농락하던 여자 포로의 손에 살해되는데, 이는 전쟁이나 재앙의 단초는 인간의 탐욕임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트로이〉 영화에서 이런 방식으로 신화 이야기를 수정하고 변용시킴으로써 감동과 흥미를 더할 수 있는 것은, ‘규범화될 수 없는’ 인간의 내면적 욕구가 발산되는 ‘열린 서사구조’가 자유로운 상상과 공감의 지평을 열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행동의 동기 유발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에 비하여, 이야기를 엮어가는 상상이나 선택의 폭을 더 넓혀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영화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전장에 출정하는 아킬레스가 출정을 말리는 자기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인상적이다. ‘수 천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사람들은 불세출의 영웅들과 함께 싸웠던 나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오.’

1-9. 요약과 제언

위에서 우리는 그리스신화 이야기를 창작 모티브로 삼는 서양 문예작품들 여덟 편을 살펴 보았는데, 이 작품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그리스신화로 전해오는 이야기에 대해 부분적인 수정만 가한 채 거의 그대로 따르는 모작(模作) 수준의 작품인데, 라신느의 〈페드르〉와 글루크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가 이에 속한다. 작품 줄거리도 비교적 단순하거나와 이에 대한 해석도 별다른 변화나 진전이 없으며 작품명까지도 신화 속의 주인공 이름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 작품은 그리스신화 못지 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예술적인 공감을 자아내며 많은 이들에게 정서 순화의 소중한 체험을 맛보게 해준 데에는 이들 이야기가 연극이나 오페라라는 공연예술 작품으로 변용되어 나타난 사실과 무관치 않으리라 생각된다. 공감을 자아낼 만한 주인공들의 성격을 감성적인 전달 방식으로 강력하게 조명해주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야기만으로 전해지는 것보다 더 인상적인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스토리 자체의 변용이 미미한 것을 보충해주는 것이 전달수단의 변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유형의 창작물은 그리스신화의 원래 스토리를 바꾸지 않고 거의 그대로 차용하기 때문에 공연작품의 감상은, 신화에서 알았던 것을 창작물 속에서 다시 만난다는 의미에서, 반복체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공연예술의 효과는 감동의 공유 방식으로도 나타날 것 같다. 연극이나 오페라를 보러 극장을 찾는 사람들은 혼자서보다는 동반자가 있을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작품 줄거리가 친

숙한 내용인 것은 ‘감동의 심화’효과에 더하여 ‘감동의 공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유형은, 쉘리의 <고삐 풀린 프로메테우스>와 오펜바흐의 <지옥에 간 오르페>가 해당 되는데, 이들 작품에서는 신화 속의 이야기 줄거리에 대해 부분적인 변용을 가함으로써 이야기 전체의 핵심 테마가 크게 바뀌고 있다. 절대권력의 독재자 제우스 신이 혁명적인 반역자 프로메테우스에게 굴복한다는 이야기는 쉘리 이전의 어떤 예술가나 사상가에게도 떠오르지 않았던 혁신적인 발상의 결과이다. 독재타도의 시민혁명 사상이 시대 조류가 되었다는 역사 발전을 배경으로 해야 가능한 작품이었고, 쉘리가 들어올린 시민혁명의 깃발이 역사 발전을 더욱 추동한 면도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오펜바흐의 오페라 <지옥에 간 오르페우스>는, 그리스신화의 오르페우스 이야기에 나타난 바 통념적인 사랑 찬가를 송두리째 뒤집어놓음으로써 진실된 사랑의 아름다움을 역설적으로 찬양하고 있다. 하루라도 얼굴을 보지 못하면 못 살겠다고 하는 신혼부부의 이야기를, 단 하루를 같이 사는 것도 지긋지긋하다는 권태기 부부의 이야기로 바꾼 것은, 부박한 사랑의 덧없음을 통해서 순정 어린 사랑의 소중함을 나타낼 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쉘리나 오펜바흐가 감히 시도한 그리스신화 패러디는, 권위적인 경건주의 신앙의 시대가 사라지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혁명의 시대 자유 정신의 승리라고 할 것이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쉘리의 경우이든 오펜바흐의 경우이든, 잘 알려진 고대신화를 패러디화(化)함으로써 소기의 감동을 일으키는 데에는 패러디화의 대상인 고대신화 자체가 대중에게 익히 알려진 내용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원본의 테마의 취지를 알아야 패러디본(本)과의 기막힌 비교가 어떤 의미의 것인지를 이해하고 음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신화의 경우에도 신화 이야기의 핵심 테마에 변용을 가하는 작업은, 신화의 이야기 자체가 널리 잘 알려질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패러디 문학이란 원래가 원전에 담겨진 기존의 의미구조에 대해 충격을 가함으로써 얻는 반사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인데, 충격이나 반사작용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원전의 의미구조가 어느 정도 확립되고 전달된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셋째 유형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와 유진 오닐의 <상복에 어울리는 엘렉트라>가 해당되는데, 이들 작품에서는 스토리의 내용 자체를 그리스신화에서 차용한 것은 없지만, 그 서사구조의 주된 맥락은 신화의 해당 부분에서 나왔음을 작품명을 보고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율리시즈’나 ‘엘렉트라’라는 단어 자체가, 이들 작품의 창작이 그리스신화의 어떤 요소를 모티브로 했음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다. 서로 대비되는 주인공들 하나하나가 그 상응관계의 짝을 지적할 수 있을 정도로 양자 간의 관계는 긴밀하다. 그리스신화에 나타난 인간관이나 세계관의 사례들을 모델로 삼아서 현대적인 인간상을 재현하는 것인데, 현대사회의 어떤 특징을 인상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그리스신화의 해당 부분을 무대효과처럼 끌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이스나 오닐이 현대적인 인간상의 암울함을 그려냄에 있어서 그리스신화의

관련 부분에 절대적으로 의존했음을 보면, 이들이 그리스신화의 진실성에 대해 얼마나 깊이 신봉했는지를 알 수 있고, 독자의 입장에서 이들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신화에 대한 기초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이스의 경우에는 고대신화 시대의 모델과 현대사회의 실상이 뚜렷이 대비된다는 상이성의 측면을 조명하였음에 반하여, 오닐의 경우에는 양자 간에 발견되는 유사성의 측면을 조명하고 있음이 다르다 하겠다.

넷째 유형은, 셰익스피어의 〈트로이러스와 크레시다〉와 괴테의 〈파우스트〉가 해당되는데, 이 작품들은 그리스신화의 내용을 비교적 작은 규모로 끌어오고 있고, 작품 모티브로서도 그리스신화에 의존하는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신화에 대한 식견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들 작품의 어떤 내용, 어떤 부분이 그리스신화의 어떤 요소와 관계가 있는지 판별하지 못할 정도로 양자 간에는 동질성과 유사성을 찾아내기가 어려운데, 이 같은 정도로 말하면 셰익스피어의 〈트로이러스와 크레시다〉가 괴테의 〈파우스트〉의 경우보다 그리스신화에 대한 의존도가 더 약하고 양자 간에 이질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 작품의 경우에, 트로이러스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주인공들은 고대신화에 등장하는 동명의 인물들이긴 하지만, 이들의 성격이나 상호 관계의 묘사가 고대신화의 것과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작가 자신이 속한 근대적인 시대상의 관점에서 고대신화를 변용했다는 말이 나온다. 괴테 작품의 경우에는, 남자들의 무한한 욕정을 촉발하는 절세의 미인 헬레네의 성격이 파우스트적인 무한한 자기확대 욕망하고 상통한다는 점에서 헬레네의 존재이유가 있을 정도이지, 신화에 나오는 그녀의 성격이나 행적 등 그녀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은 〈파우스트〉 작품과 유기적인 관계는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유형의 경우에서는, 신화 속의 모티브 요소가 창작물 속에서 너무 크게 변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양자 간의 상응관계를 발견하기조차 쉽지 않다. 이런 현상은, 창작물이 신화 속의 모티브 요소에 의존하는 것이 경미할 정도로 작가 자신의 창작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지만, 이 말이 작가의 신화 인식 수준이 낮다는 의미는 아닐 터이다. 창작재료를 크게 변용시켜 활용할 능력이 생기려면 그 재료의 성질과 용도를 더 잘 알아야 하겠기 때문이다. 작품 창작의 과정에서 그리스신화의 모티브를 원용한 정도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대작을 낼 수 있는 작가들은 대단한 역량을 지닌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들 넷째 유형의 작품들이 셰익스피어나 괴테와 같은 세계문학사의 대문호들에게서 나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이 네 번째 부류에서도, 신화 인식의 수준이 낮으면 창작물 생산자만이 아니라 그 소비자에게도 불행한 일이 된다. 신화 속의 어떤 요소가 어떤 변용을 거쳐서 창작물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더 충실한 작품 감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에서 그리스신화 이야기가 문예창작의 소재나 테마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대충 살펴본 셈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제주신화의 어떤

요소를 문예작품 재생산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주신화를 문예창작의 모티브로 활용하는 일은, 제주신화 내용을 단순히 모방하거나 차용하는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서 스토리와 테마 자체를 적절하게 변용시켜서 새로운 차원의 문예작품을 창작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원래 신화는 특정 인물의 저작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출현한 것이지만, 신화의 발전 방식은 기존 신화에 대한 표절과 모방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다. 표절과 모방의 방식으로 신화가 변용되고 발전하는 데에는 작가들의 다양한 참여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변용되고 발전된 새로운 신화 이야기들 중에 어떤 것이 살아남느냐 하는 것은 일반 대중의 공감 여하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일 것이다.

2. 제주신화 이야기를 모티브로 활용한 문예창작의 사례들

신화 이야기가 문예창작의 모티브로 활용된 역사를 놓고 제주신화와 그리스신화를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일 것이다. 그리스신화는 2천 년이 넘는 오랜 기간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예술작품에서 소재와 테마로 활용된 반면에 제주신화는 구비문학 형태이던 것이 문자로 기록된 역사 자체가 일천한 것이다. 원래 무속의례였던 굿 연출에 병행하여 연극대본처럼 출현한 제주신화는, 1950년대에 와서야 심방이 구술하는 사실을 채록하는 방식으로 문자화되기 시작하였고 문자화 작업과 더불어 비로소 제주신화 인식의 대중화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제주신화는 제주사람들에게조차 친숙하게 알려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선각자적인 민속학자들에 의해 굿 사설 형태의 무속신화가 채록된 것이 천만다행한 일이었다. 민속신앙의 과거사가 제주사람들 다수의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기에 오늘날 제주신화를 통하여 제주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를 확인하는 일이 가능해졌고 제주신화를 자산으로 활용하는 문예창작물의 재생산에 힘을 얻게 된다 할 것이다.

2-1. 음악극 대본(1999, 2018)에 모티브로 활용된 <자청비> 이야기

제주신화 이야기들 가운데 문예창작 모티브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것이 자청비 설화이다.

스토리 자체가 재미도 있고 그 속에 담긴 상징적 의미가 풍부하며 역사적 민속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여러 가지 점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자청비 이야기이다. 자청비 설화가, 재래의 서사문학인 소설 형식보다는, 연극이나 음악극 등 공연 예술 작품의 대본에서 많이 활용되는 현상은 신화 인식의 대중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제주신화가 제주사람들에게 친숙한 공유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 대중들 간에 많이 알려지는 일이 필요한데 공연예술은 문화체험의 친숙한 공유를 위해서 매우 유용한 전달수단이 되는 것이다.

자청비 설화를 무대공연에 올리는 획기적인 사건은 뮤지컬로부터 시작되었다. 일찍이 1999년에 제주시립예술단이 무대에 올린 강문칠 감독 창작뮤지컬 〈자청비〉의 대본은, 전래 설화 ‘세경본풀이’의 주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살리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단순화하고 분량을 단축시키는 정도의 변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중요한 몇 군데 대목에서는 원본에 나오는 감정표현을 더욱 실감나게 바꾸고 있고, 합창곡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리듬을 맞춰주는 작업이 눈에 띄이며, 자청비의 애틋하고 정겨운 사랑의 욕구나 그윽하고 가상한 마음 씹씹이가 돋보이게 하는 표현이 추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천꽃밭 이야기를 생략한 것은 시각적 요소보다 청각적 요소를 중시해야하는 음악극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라 생각된다. 아직 대중적인 친숙도가 높지 못한 제주신화를 소재로 하고, 더구나 뮤지컬 같은 고급 문화의 역사가 짧은 지역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공연을 이루었음은 제주문화 창달이라는 우리의 과제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2018년에 제주시립무용단에서 공연한 무용극 〈자청비의 사랑 묵화와 메밀〉 대본에서도 전래 설화 세경본풀이의 주요 내용이 대폭 압축된 형태로 담겨있고 원본의 큰 줄거리에 대한 수정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대목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설화의 요점들을 정리한 다음에 대본 작가가 공들여서 작성한 것은 등장인물들의 시적인 자기고백문이다. 거의 대부분이 자청비가 토로하는 고백인데 그녀의 동갑내기 친구이자 하인인 정수남의 고백도 들어 있어서 흥미를 더해준다. 자청비가 자신의 하소연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문도령의 무정함을 원망하는 장면들이 크게 부각됨으로써 이야기 전체가 애정극적인 기조로 흘러감을 실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테마를 전개하는 데에 대사 구술을 별로 이용하지 못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는 것은 앞으로의 희망을 안겨주는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2-2. 연극 대본에 모티브로 활용된 <자청비> 이야기

(정민자 창작, 2012년 10월 서울과 제주에서 공연 / 2012년 공주에서 열린 전국향토 연극대회에서 대상 수상)

정민자 창작의 연극대본 <자청비>는, 원작인 <세경본풀이>의 테마를 최대한 살리고 있다. 제목도 그냥 <자청비>이고, <세경본풀이> 이야기의 큰 흐름은 바뀌지 않는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살리고 덜 중요한 부분은 적당히 생략하거나 축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등장인물들도 원작 중의 중요한 인물들은 거의 그대로 등장하며, 다만 연극공연의 편의와 효과를 기하기 위해 ‘이야기꾼’이라는 명칭으로 세 인물이 새로이 등장할 뿐이다.

이 각본 대로 연출된 자청비 이야기는 관객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를 상상해본다. 제주신화의 자청비 이야기라고 하면 제주도 주민들에게 비교적 친숙하다고 할 수 있다. 작품 내용이 관람자에게 친숙한 것일 경우에는 테마에 대한 이지적(理智的)인 인식이나 판단의 기회보다는 정서적인 감동을 심화하는 기회로 작용하는 면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이야기의 전달 수단이 개인 단위의 지적 활동인 독서가 아니라 집단적 공개적인 무대공연이면 분위기 조성 여하가 정서적인 반응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서적인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무대 장치의 적절성, 배우들의 연기 방식이나 의상과 분장 등 이야기 전달의 보조적인 역할담당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같은 꽃이라도 그것이 꽃밭에 있느냐 자갈밭에 있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고, 혼자서 조용히 보느냐 여럿이서 환성을 지르며 보느냐에 따라서 반응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자청비 이야기를 친숙하다고 생각하는 관객들의 경우, 그들에게 더 풍부한 감상이 되도록 쓸 수 있는 전략으로는 ‘친숙함의 인상을 깨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문예작품 감상이란 이 지적인 면에서든 정서적인 면에서든 경험의 심화 현상은 여러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그 의미를 알았다고 생각하던 시구(詩句) 한 마디가 어느 순간에는 굉장한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고, 자청비 설화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인공들 자신의 말과 행동은 그전에 익히 보았던 것이고 그 의미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달라지더라는 말이 연극 관람자에게서 나오게 만든다는 전략이다. 이 작품으로 말하면, 원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은 기왕에 잘 알고 있는 것대로인데, 주인공 옆에 서있는 ‘이야기꾼’들이 주인공들의 언행에 대해 평을 하고 탄축을 거는 것을 보고서는 생판 다른 인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이야기꾼’은 자청비의 인품에 대해 ‘똑똑하고 당차다, 멋과 유머감각을 안다, 무능하고 아둔한 남자의 운명을 구제해줄 여자이다’ 등으로 좋게 평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이야기꾼’은, ‘사고뭉치가 될 것 같은 당돌한 여자, 매너가 없고 오만한 여자, 자기도취에 빠진 여자, 순진한 남자를 골려주는 악취미가 있는

여자'등으로 악평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새롭게 등장시킨 '이야기꾼'의 역할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자칭비 이야기를 창작 모티브로 한 이들 공연예술 작품은, 전래 설화의 대체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감동적인 몇몇 장면들의 공감효과를 높이는 것 이상으로 더 큰 목표를 지향하는 것 같지는 않다. 제주신화 중에서도 상징적 의미가 제일 풍부한 스토리를 밀천으로 하면서 시대변화의 의미를 흡수하는 새롭고도 야심적인 테마의 문예창작물을 구상한다는 의도는 엿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신화의 경우를 보면, 고대신화의 테마는 다만 문예창작의 재료에 불과한 것이지 새로운 창작 모티브의 발견은 그것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신화 속 스토리의 서사구조를 마구 비틀기도 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패러디화하기도 하는데, 이 같은 작업은 신화의 의미와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함축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고 할 것이다. 아직 제주신화의 대중화 역사가 일천한 가운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제주신화의 문화자산적 가치를 높여갈 수 있다는 희망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어쨌거나, 일반 대중이 문화유산으로서의 전래 설화를 인지하고 기억하는 일에 공연예술적인 공감의 확산이 크게 기여한다는 것만으로 도 자칭비 설화의 무대공연은 문화창달 활동의 의미가 클 것이다.

2-3. 연극 대본에 모티브로 활용된 <백주또> 이야기

(정민자 이재숙 김정이의 공동창작; 2014.1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 / 2014.11 세이레아트센터 공연 / 2014.11 울산 공연 / 2015.1 제주컨벤션센터 공연)

'극단세이레극장'에서 제작 공연된 <신들의 어머니 천년의 사랑 백주또>는 원작인 송당리 <괘내깃당본풀이>의 큰 흐름이나 주요 테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첨삭을 가하고 있어서 작가의 창작 의도가 궁금해지는 작품이다. 원작에는 없던 부분인데 새롭게 첨가된 에피소드가 몇 군데 있다. 백주또 여신이 제주도에 찾아드는 장면이 나오기 전에 송당마을에 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잠시 벌이는 말다툼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제주도 역사에서 제1호 이혼녀라고도 불리는 백주또가 등장하기 위한 도입부로 설정된 것 같다. 무능한 남편과 같이 살지 못하겠다는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달래다 못해서 백주또 당신에게 치성 드리고 도움을 빌려 가는 장면인데, 이혼문제는 제주도 역사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도 열띤 분쟁거리이니 관객들의 관심사가 될 만하다 하겠다. 강남천자국의 당찬 처녀 백주또가 제주도로 들어와서 남편감을 찾으러 다니다가, 노루 한 마리를 거뜬히 둘러메는 힘 센 총각 소천국에게 반하는 장면을 새롭게 설정한 것도 작품의 흥미유발을 위해 적절한 선택이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중요한 첨가 부분은 작품 말미에 나온다. 소천국의 집 떠난 처가 아들 궤내깃또를 아버지에게 맡기러 왔다가 남편과 동거 중인 첩실과 싸늘한 반목관계를 보이는 장면이다. 재래의 설화에서는 소천국이 첩을 데려다가 산다는 것만 나오지 처첩간의 불화관계는 나오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작가의 의도적인 첨가로 보인다. 아마도 이 부분의 첨가는, 처첩 간에는 반목과 대립관계를 피할 수 없다는 속설에 기인한 것 같다. ‘시앗을 보면 부처님도 돌아 앉는다’는 속담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알기로는, 제주신화 이야기에는 처첩간에 불화보다는 화합관계가 통례이고, 이상하리만치 첩실들에 대한 처우가 대범하고 관용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재래의 설화에서도 백주또가 소천국과 이혼한다는 부분은 없고 살림분산 후에도 가족관계가 계속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다. 사이좋은 애정삼각관계는 부도덕하거나 몰인정한 것이 아니고 무질서한 것도 아니라는 인식이 옛날 제주사회의 통념이 아니었나 추정되며, 이런 방향에서 남녀관계 서사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제주신화의 특징이면서 존중해야 할 전통이 아닌가 생각된다.

2-4. 연극대본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의 모티브로 활용된 〈가문장아기〉 이야기

(장일홍 작, 2013년 간행 희곡집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에 수록)

이 작품은 삼공본풀이 〈가문장아기〉 이야기의 큰 틀은 존중하면서 부분적인 개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도입부에서 거지 신세인 강이영성과 홍은수천 두 남녀가 서로 엇갈리게 부자 마을을 찾아가는 길에서 우연히 만나 천생 배필이 되는 장면은 원작에 따른 것이고, 이들 부부가 장성한 세 딸들 권아, 금아, 정아를 상대로 누구 덕에 사느냐는 질문을 하는 것까지도 그렇다. 셋째 딸 정아[가문장아기 역]는 다른 딸들과는 달리 부모님 덕 보다는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뜻의 당찬 대답을 하여 부모의 실망을 자아내고 집에서 쫓겨난다. 딸들에게 어떤 남자와 혼인하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정아가 언니들처럼 재상이나 거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지 않고 정(情) 많은 남자를 원한다고 한 것은, 여자의 행복은 남자의 지위보다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니까 원작의 테마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잠 잘 곳을 찾던 그녀가 마통이네 집에 가서 신세 지려 할 때, 그 집 3형제의 인품을 관찰한 끝에 막내아들을 낙점하여 대담한 사랑 고백을 하고 혼인 후 운수대통하는 것까지도 원작을 충실하게 따른다.

장녀인 권아는, 부모에게 말했던 것처럼, 재상을 남편으로 하여 살지만, 첩실 신분 불만을 품고 정실부인 독살 계획을 세우다가 쫓겨나고, 차녀는 소원했던 대로 거부의 부인으로

살지만, 지나친 향락에 빠진 결과로 가정파탄을 만난다. 이 부분의 이야기는 새롭게 도입된 것이지만, 남에게 의존하는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원작의 테마에 역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예증하는 요소로 읽힐 수 있다. 장녀와 차녀는 찾아온 부모를 문전박대함으로써 옛날 그네들이 부모에게 자임했던 효성스러움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낸다. 부자가 된 정아 부부는 장님 거지가 된 부모 걱정을 하면서 100일 간의 거지잔치를 벌이지만, 정작 기다리던 부모는 사람들로 가득찬 잔치집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여 발길을 돌리고 마는데, 극이 끝날 때에야 이들이 실망 끝에 자살한 것으로 나타난다. 딸들 셋이 막내딸네 집에 모여서 과거 회고담을 나누는데, 지난 날 어리석었음에 대한 아쉬움, 소홀했던 가족애의 뒤늦은 후회, 과욕을 부린 인생의 허무함 등 주인공들의 심정 고백은 원작에는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원작의 테마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1막까지는 대체로 원작 〈가문장아기〉 이야기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전하는 메시지도 대동소이하다고 보이는데, 2막부터는 이야기 자체가 전혀 새로운 것이고 이야기에 담긴 의미를 심화 확장시키는 작가의 노력이 뚜렷이 돋보인다. 제2막 ‘천상의 교향곡’은 제목부터가 이야기의 급전환을 말해준다. 1장 ‘지옥’에서는 다섯 저승사자가 인간세상 세태에 대한 풍자를 벌이는데, 이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인생관, 지옥의 심판의 무서움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 덧없는 오욕칠정의 인간본성을 비웃듯이 말하는데 마치 어른이 어린이에게, 선생이 학생에게 가르치듯이 교훈적인 말을 한다. 코러스 합창의 대사는 저승사자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듯하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지혜롭게 살아라는 것이다. 거지들 잔치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3자매 부모는 지옥에 들어온 후, 이승의 인생살이 허무함을 놓고 회포를 푼다. ‘이승이 꿈이라면 저승은 꿈속의 꿈이요’ ‘인생살이 아침은 풀꽃의 이슬이요, 저녁 연기와 같고, 물에 뜬 거품이요, 먼 산의 아지랑이와 같다.’ ‘운명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차라리 즐겁시다. 지옥에 던져진 비참한 인간이란 걸 잊어버립시다.’

제2장 ‘극락’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정아가 상제에게서 축복을 받는 장면이다. 상제는 인간 세상의 최악이 저승에서 심판 받는 원칙을 들려주는데, 부모가 당하는 엄혹한 형벌을 본 정아가 이를 사함받는 길이 없는지 묻지만, 상제는 엄숙하게 대답한다.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빠져나올 수 없다.’ ‘자살은 살인처럼 중죄이다’. 의문으로 남는 부분은, 전래 설화에서 정아가 보이는 효도 정성이 부모를 위한 거지잔치에서 보람을 얻는 부분이 삭제된 것이다. 거지잔치에서 부모님 눈을 뜨게 하는 것보다 저승에서 상제에게 간원하는 것이 더한 감동을 자아낼 것인지, 의문이 되는 것이다.

제3장 ‘동트는 집’에서는 정아의 딸 꽃님이 시집을 간다. 어머니 정아는 일찍이 죽었고, 아버지 작은마통이는 딸의 결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아내를 그리워한다. 불시에 나타난 큰

이모 권아는 조카인 신부에게 ‘염주’ 선물을 주고 사라지며, 작은 이모 금아는 금팔찌 선물을 주고 나가버리는데, 오늘의 신부인 꽃님의 어머니 정아에게 심술궂은 언니 노릇을 했던 옛날 일을 떠올리며 구원(舊怨)을 풀고자 화해와 축복의 뜻이 담긴 선물이라고 생각된다. 밤 늦도록 꽃님의 혼인을 축하하는 친구들의 덕담을 코러스의 노래 가사가 요약하는 것 같다. ‘살다보면 살아지는 것이 인생이라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움트는 곳, 동트는 우리집’.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 작품의 제목은, ‘삶과 죽음의 알 수 없는 운명’이라는 이 작품의 테마를 나타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원작에 대해 전체적으로 상당한 수정이 가해진 이 작품은, 새로 더해진 에피소드와 서술 부분을 통해 원작의 테마를 이해하는 깊이와 폭을 더해준다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원작의 테마를 바꿀 의도는 없으면서 같은 테마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도와주는 작품이 되도록 이야기 내용을 적절하게 확장시킨 작가의 노력과 역량이 돋보인다고 하겠다. 특히, 지옥과 극락세계의 장면 설정은 작가로서의 관련 지식이 없으면 시도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가사의한 생사의 운명이라는 이 작품의 테마 전개에 적절한 삽입이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원래 재미있는 소재가 아닌 원작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온 연극대본이 매우 밀도있는 유머와 해학적인 요소를 가미하였고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테마 전개의 맥락과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있다. 읽고 난 소회를 덧붙인다면, 원작의 테마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더 깊이 심화시킬 목적이라면 이에 적합한 극적인 사건들을 새로이 설정할 수 있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주인공 정아[가문장아가]의 성격을 더욱 부각시켜서 운명개척의 당찬 의지력과 패기를 구체적인 행동과 사건들으로써 보여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다. 정아가 작은마통이를 만나서 운수대통하지만 주어진 행운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럴만한 능력과 자격과 준비를 갖춘 인물임을 보여주는 부분이 작품 후반부에 나와준다면 운명개척이라는 원작의 테마에 부합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또한, 정아는 부모에게 말하기를, 혼인의 성공에는 정(情)이 중요하다고 했으니, 이 같은 자기 고백에 걸맞는 구체적인 사건이 나왔으면 더욱 공감이 갈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2-5. 영화 〈신과 함께, 죄와 벌〉(김용화 감독, 2017)의 모티브로 활용된 〈저승차사〉 이야기

한국신화의 스토리가 영화대본 모티브로 활용된 예를 찾아보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근래에 나온 영화 한 편이 큰 인기를 끌었다. 제주신화처럼 인간수호신적인 신들의 이야기이고 인간의 도리 이야기라고 느껴지는 것이 영화 〈신과 함께, 죄와 벌〉의 서사구조이다. 컴퓨터

터그래픽기술에 의한 블록버스터형 거대 스케일과 한국인 특유의 저승 및 환생의 관념이 성공적인 흥행을 가능케한 모양이지만, 스토리 구성의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영화에는 저승차사 역할로 ‘강남’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주신화 본풀이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나, 신과 인간의 관계 설정에서는 양자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승에서 죄를 짓고 죽은 망자는 지옥에 들어가서 벌을 받는데, 염라대왕이 죄인에게 심판을 내리고 환생 여하를 판정하는 데에는 저승차사들의 변론이 크게 작용한다. 강남 등 저승 3차사가, 염라대왕으로 하여금 사자(死者)에 대해 정상 참작의 용서를 베풀고 환생의 판정을 내려주도록 한다는 이야기는 제주신화 신들의 인간중심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이 부분에서, 망자의 죄과에 대한 신들의 용서와 선처가 부각되는 것보다는 인정사정 같은 것을 돌아보지 않고 엄정하고도 냉혹한 판정을 내리는 신을 원망하고 갈등하는 인간심리의 장면이 부각되는 서사구조였다면 더욱 절실한 공감을 자아내지 않았을까 싶다. 망자는 일곱 단계의 지옥을 통과할 때마다 어떤 명목의 죄과를 범했는지에 대해 추궁을 받는데, 망자의 기억이 불러들이는 과거의 죄과는 이미 지나간 일들이기 때문에 현재진행의 즉물적인 현장감을 일으키기 어렵고, 이를 심판하는 저승법의 죄목들은 너무 도식화된 것이어서 자유로운 상상과 공감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다. 제주의 무속에서도 큰굿 가운데 한 순서인 ‘시왕맞이’ 연희를 할 때에는, 망자가 인간세상에 있을 때 어떤 공덕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저승세계의 시왕(十王)들에게 심판을 받아 어떤 지옥에 떨어질지가 결정됨을 보여주는데, 이 대목은 제주신화의 본풀이가 결국 인간의 도리 이야기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영화 <신과 함께>와 영화 <트로이>를 비교해 보는 것은 제주신화의 닫힌 서사구조와 그리스신화의 열린 서사구조를 비교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가 있다. 영화 <신과 함께>에서는 어떤 주인공이 저승에 가서 어떤 판결을 받느냐 하는 것은 이승에서 어떤 덕목을 지켰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에, 영화 <트로이>에서는 주인공들이 이야기 끝에 어떤 운명을 당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주는 어떤 규범이나 기준이 없고 사람마다 다른 독특한 개성과 성향이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 시험출제 방식으로 말한다면, OX형 객관식 출제와 서술형 주관식 출제를 비교함과 같을 것이다. 헬레네의 탈선 연애는 동정을 살 수도 있고 비난을 살 수도 있으며, 아킬레스의 고집스런 불충성은 도덕적이기도 하고 비도덕적이기도 하다. 이에 비하여, 영화 <신과 함께>에서 주인공들이 저승에서 환생의 판결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오랫동안 사회규범으로 내려온 기존의 덕목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인 것이다.

2-6. 설문대할망 설화의 스토리텔링 재구성

(김순이의 <제주창조의 여신 설문대할망>, 2016년 간행 『제주신화』에 수록; 양영수의 <설문대의 사랑>, 2011년 간행 『세계 속의 제주신화』에 수록)

설문대할망 설화는 그 생성과정의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무속신앙 집단에서 발원한 여타의 제주신화하고 다르다. 다른 무속신화들은 무속신앙의 사제 격인 심방들의 구술을 통해서 생성되었음이 주지의 사실이지만, 설문대할망 설화는 불특정 다수의 제주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야기 내용들이 여기 저기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부분에 따라서 잠시 나타났다가는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는 큰 줄기로서 오래 존속되는 것들도 있다. 창조신에 관한 이야기가 지리멸렬하고 창조신 숭배의 의례나 예식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라는 말이 나온다. 제주도의 창조신으로 알려졌고 제주섬의 구체적인 지명과 관련된 창조 이야기가 많으면서도 어느 한 지점에 이 창조신의 위업을 기리는 신전이나 기념물이 전무한 것도 이 같은 내력 때문이라 할 것이다.

제주도 창조신의 존재성을 확립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김순이와 양영수가 시도한 설문대할망 설화의 재구성이라 할 수 있다. 무질서하게 흩어져있는 이야기 조각들을 모아서 일관성있는 체계를 세우고자 하는 노력이고, 제주섬의 창조 역사가 시작된 데에는 창조 신령의 거룩한 뜻이 담겨있을 것이라는 우리 조상들의 소박한 기원을 상정해 보는 것이다. 설문대할망 설화의 재구성 작업에서 양인이 보여준 공통적인 지향은, 제주도 창조의 위업을 맡은 주체는 확실한 의도와 목적의 소유자일 것이라는 옛날 제주사람들의 기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수려한 경관과 준수한 삶의 터전이 어쩌다가 우연히 나타난 것이거나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생겨난 것이겠느냐 하는 소박한 마음을 그려본다는 말이다. 창조설화 재구성의 발상은 이렇게 유사한 점이 분명히 있지만 양인의 필치는 서사구조의 구체적인 선택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김순이의 선택은 전래하는 창조설화의 큰 틀을 많이 유지하는 반면에, 양영수의 선택은 설화의 큰 틀 자체를 많이 바꾸는 작위적으로 보이는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김순이 작 설문대할망 설화 재구성본에 의하면, 하늘나라의 설문대 여신이 제주섬 창조의 뜻을 품게 된 것은 아래로 보이는 지상세계의 여러 나라들 모습이 마음에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멋지지만 하면 무엇 해, 쓸모도 있어야지’. 이렇게 창조의 열의가 만만한 누이에게 오빠가 말하기를, ‘그럼 어디 네 맘에 맞도록 고쳐보려무냐’하고 기회를 주지만, 여신은 이미 만들어진 나라를 바꿀 생각은 없고, ‘새로운 나만의 땅을 만들고 싶어요’라고 나올 정도로 자존심이 높고 패기만만하다. 이렇게 제주섬은 설문대 여신의 회심작, 이상적인 나라 건설이

라는 웅지의 결실이라는 것이다. 중심에 있는 산은, 낮은 듯하지만 높고, 가까운 듯하지만 멀고, 얇은 듯하지만 높다. 산기슭의 도도룩한 오름들은 여신의 치마 구멍에서 흙이 새면서 만들어지고, 뒤로 물러서서 바라본 산봉우리가 너무 뾰족하여 가볍게 주먹으로 툭 쳤더니, 백록담이 만들어진 것 등 전래의 설화 내용과 대동소이한 점도 많이 있다. 멋진 섬 만드느라 고생하다 보니 입은 옷이 헐뜰어지고 이를 본 백성들이 새 옷 지을 좋은 명주옷감 백 필을 마련해 올리겠다고 청원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래의 설화와 달라진 점이 눈길을 끈다. 백성들의 소원이 육지와 연결고 건설이라는 말을 듣고 돌다리 놓기 공사를 하던 중에, ‘완벽한 자연의 조화를 만들기 위해 정성을 쏟았’던 섬의 축복을 깨뜨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손을 놓는다. 명주옷감 백 필 미달 때문이라는 재래의 설화와는 거부의 이유가 다른데 이 부분의 서술에 공을 들인 것은 작가의 깊은 뜻이 담긴 때문일 것이다. 불만에 찬 백성들의 원성이 쏟아짐을 피하여 울창한 숲 지붕 아래의 영실로 피신하는 여신의 딱한 처지는 과도한 개발로 몸살을 앓고있는 제주섬 환경의 파괴를 암시하는 것 같다. 지상세계의 아픔을 피하기 위해 하늘나라로 돌아가자는 오빠의 권고를 뿌리치는 여신의 단호한 결심은 애초에 가졌던 제주섬에 대한 사랑 때문이고, 이제 창조의 비밀이 담긴 날개옷이 헐뜰어진 마당에 ‘이 섬에 사무치게 스며드는 방법’으로 백성들에 대한 마지막 정성을 보이겠다고 나선다. 이 섬에서 제일 깊은 물을 찾아나선 여신은 용연 물과 서흥리 물을 시험해 본 끝에 바닥없는 물장을 산 정호수에 빨려들어가면서 말한다. ‘이 섬의 흙은 내 살이요, 물은 나의 피요, 돌은 나의 뼈라.’ 어머니를 잃고 영실 바위기둥 앞에 둘러선 여신의 아들들 오백장군이 흘린 눈물자국에서는 봄마다 철쭉꽃이 피어나서 한라산을 붉게 물들인다.

설문대할망 설화에 대한 양영수의 재구성본에서도 제주섬의 창조신은 옥황상제의 막내딸 설문대이다. 부지런한 천성인 설문대는 맨날 일거리가 없는 하늘나라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부왕에게 간청하여 지상세계로 내려온다. 넓은 대륙에서도 가깝고 망망대해에서도 가까운 위치를 고른 설문대는 멋진 섬나라를 만드는 계획에 가슴이 설렌다. 아버지 옥황에게서 받은 복주머니에 싣통한 창조의 비결이 담긴 것이 힘이 되고, 엄청난 창조의 노역을 즐겁고 신명나는 일로 만들어 줄 남성 배필이 생겨난 것도 복주머니의 신비한 조화에서 가능하다. 복주머니에 있는 붉은 색 구슬을 바다에 집어넣어서 불의 힘에 의한 화산섬이 생성하는 장면은 탄성을 자아내는 장관이다. 제주도 섬나라의 창조 이야기는 설문대할망과 하르방의 농밀한 러브스토리이기도 하다. 여신은 제주도 전역에 368개의 오름을 만들고 남신은 곳곳에 하천을 만들기로 하는데, 이는 여성은 볼록한 것을 좋아하고 남성은 오목한 것을 좋아한다는 설문대의 말에 따른 것이다. 두 창조신의 협력이 순조롭지 못하여 불화를 빚을 때도 있다. 남신은 여신의 제주사랑의 깊은 뜻과 뛰어난 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여신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심을 앞세우는 바람에 실수가 많아진다. 빗물 내려가는 수로를 만들어 달라는 여신의 당부

를 듣고 동백나무 따위로 거대한 탐라계곡을 판다. 그렇게 큰 하천은 재난을 일으키기 쉽다는 여신의 핀잔을 듣고는, 눈에 잘 안보이는 작은 구멍 ‘숨골’을 수없이 많이 파지만, 이것도 여신의 핀잔을 듣는다. 사람들이 식수로 먹을 만큼은 빗물이 지상에 남아있어야 할 것인데 모두 땅속으로 내려가 버리면 어찌하냐고 걱정하던 설문대는 생각을 바꾼다. 앞으로 제주섬에 사는 사람들은 멀리서 물을 날라다 먹느라고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인데, 이 스토리 끝 장면에서는 설문대가 죽어서 지하로 내려가면 지하수로 남아있던 물을 지상의 인간들이 쓸 수 있도록 묘책을 찾겠다는 결심을 말한다. 육지와 연결되는 다리를 놓아달라는 주민들의 소원을 물리친다는 부분은 김순이의 재구성본과 같은데, 두 작가의 경우 모두가 제주섬의 고유성을 지킨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창조신이 한라산 곳곳에 있는 아름답고 신비한 경관을 배경으로 즐기는 사랑놀이는 창조의 대업이 힘든 노동이지만 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구름위에 올라탄 그들이 제주섬의 그림같은 산야와 해안을 배경으로 날아다니면서 창조의 대업과 사랑놀이를 이어가는 모습을 애니메이션 영상물로 제작하여 보여준다면 이것이 곧 제주도 곳곳에 있는 천혜의 절경과 비경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아흔아홉 골 골짜기 단지를 만드는 것도 여신에 대한 남신의 헌정이다. 여신이 그 위에 드러누워 등 가려운 데를 긁기 좋은 지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인 것이다. 제주섬이 큰 바다의 물결에 빨려들어서 남쪽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본 여신은 남쪽 해안으로 가서 땅끝 부분을 손바닥으로 밀어올리는 바람에 서귀포 쪽 바다는 높은 절벽이 많아진다. 이 스토리에서 제주섬의 전쟁은 없지만 사람과 괴물 간의 싸움은 있다. 김녕 만장굴에서 천년을 살아왔다는 이무기는 여신이 갖고있는 복주머니 속의 흑구슬을 뺏아다 물어야 용이 되어 승천한다고 믿고 싸움을 걸어온다. 제주섬의 수많은 오름들을 온통 누비면서 벌어진 싸움에서 이무기를 물리친 남신은 오랜 만에 여신의 칭찬을 듣지만, 남신이 이긴 것은 복주머니 속의 청구슬에서 나온 바람을 이용한 덕분이다. 여신은 오백 명 아들들을 먹여살릴 죽을 쑤다가 죽술에 빠져죽는다는 전래의 스토리는 유지되지만, 그 죽술은 나중에 알고보니 바닥 모르게 깊은 물이라는 물장우리 산정 호수와 같은 곳임이 드러난다.

3. 문예창작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제주신화 재인식의 방향

고도의 과학기술 시대를 사는 우리가 지난 시대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제주신화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신화 모티브의 문예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일반 대중의 신화인식 수준을 고양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신화를 모티브로 활용한 위대한 문예창작의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그리스신화 이야기들이 이 같이 생산성 높은 문화자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잘 알려져 있었다는 문화적 환경 위에서 가능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신화 속의 모티브 요소가 창작물 생산자에 의해 다른 의미나 상반되는 의미로 변용될 경우에 창작물 소비자의 신화 인식 수준이 낮아버리면 그야말로 반쪽짜리 작품 감상이 되어 버릴 것이다. 신화 이야기를 패러디화할 경우에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질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또한, 신화 모티브의 문예창작이 활성화되는 일에 대해서도 일반 대중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품은 소비가 잘돼야 품질 향상이 되는 것처럼, 제주신화 모티브의 재생산 창작물이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을 때 문예창작 여건이 좋아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요즘처럼 각종 통신망이 발달된 사회에서는 상품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반응이 피드백 되어 생산자의 성향과 생산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반 대중의 제주신화 인식을 심화하고 확산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점에 있어서는 제주신화의 내용을 일반 대중의 일상생활 속으로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학교교육이나 독서운동을 통해서 제주신화에 담긴 다양한 의미와 재미를 소개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은 물론이지만, 그런 이지적인 활동은 자연스러운 흥미유발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말하면, 이지적이거나 의식적이지 않은, 무의식적이고 습관형성적인 반복체험을 통해서 제주신화의 콘텐츠를 일반 대중의 공유물로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나날이 소멸되어가는 제주지역 언어를 보존하고 살려내는 노력의 성공적 선례를 따르자는 말이 될 터인데, 작금의 제주어 부활 운동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방송 프로에서나 길거리 광고판에서나 제주어 사용의 예가 많아지고 있고, 제주어로 된 문예작품이나 제주어 사용 콘테스트도 눈길을 끈다. 제주의 토속적인 지명이 도로 이정표로 나온 예들도 많은데, 이런 표현들이 외지인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것을 보는 제주도 토박이의 심정도 결코 나쁘지 않다. 제주어의 어휘가 한국어 표준말로 승격될 수 있듯이 제주신화의 어떤 부분이 한국인들의 흥미있는 화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주어가 가장 맛깔스럽게 사용되는 처소는 제주신화가

아닐까 싶은데, 제주신화 친숙화 운동이 제주어 부활운동과 공동보조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제주신화에 나오는 고유명사나 상징표현 같은 것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휘가 거리 명칭이나 시중 업소의 간판에 나오면 반드시 이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나와서 흥미있는 화제가 될 것이고, 특히 관광버스나 관광코스의 명칭으로 제주신화 속의 어떤 내용이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관광안내 멘트의 주요 항목이 될 것이 아닌가. 필자가 오래 전에 그리스 나라에 얼마간 머물며 관찰해 본 것인데, 아테네 시내의 관광호텔들 명칭은 거의 모두가 신화 속의 주인공들 이름이고 아테네 항구에 정박한 선박들 이름도 그랬고, 각종 관광기념품 이름이며, 백화점의 각종 상품 브랜드 명칭도 낯익은 신화 속 고유명사들이었기 때문에 금방 친숙한 느낌으로 대할 수 있었다. 이 나라 국민들이 고대신화라는 자기네 문화유산에 대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또한, 제주신화가 대중들 속에서 친숙한 공유물로 정착하는 데에는 집단적인 예술감상의 기회인 무대공연을 전달수단으로 활용함이 유익할 것이다. 물론 일반 대중의 신화인식 수준을 고양시키는 일은 다양한 방식의 학교교육이나 독서운동 등 이지적인 방식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공연예술을 통하여 집단적인 공감을 심화시키는 것은 이지적인 전달 수단보다 정서적인 감동을 추가하여 전인적(全人的)인 차원의 문화체험으로 승화시킴을 의미한다. 시각과 청각이 이지적인 인식과 함께 작용하는 공감각적이고 입체적인 작품감상이 문화유산으로서의 신화를 일반 대중의 공유자산으로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둘째, 무속신앙과 무속신화를 분리시킴으로써 신화 속에 함축된 상징적 역사적인 의미를 깊이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 제주신화는 그 대부분이 무속신화인지라 무당들의 굿판 사설에서 유래했다는 이유로 무속신앙을 흑세무민하는 미신으로 보는 사람들은, 무속신앙에서 나온 무속신화에 대해서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무지한 시대의 유물이니 무슨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그 속에 있겠느냐고 말하는 것이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제주신화의 모태였던 무속신앙이 무지한 시대의 유물이라 하더라도 무속신앙에 유래한 무속신화는 시대변화에 상관없는 진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앙현상은 역사발전에 따라서 진화하고 그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되는 것이지만, 신화는 역사발전에 따라서 달라지는 않는 일종의 예술작품이기 때문이다. 신령들 앞에 무릎 꿇고 건강이나 사업 번창을 기원하는 무속신앙이 일정 부분에서 효험을 보였던 것은, 건강문제 가운데 심령현상이 들어 있고, 사업 경영에는 자기암시 효과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임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이 같은 세계인식의 개선은 시대발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반면에 신화는 우주와 자연의 신비한 질서를 숨 죽이고 바라보는 인간의 자기표현이고, 자기표현의 주된 수단은 비유와 상징이며, 비유와 상징의 표현 수단은 시대변화에도 불구하고 불변인 것이 많다. 푸닥거리가 질병치료에 유용한 대처방법이 아님을 알고있는 사람도 푸닥거리가 유행했던 과거

어느 시대의 인간상을 그려보는 것은 가능한 일이고 때로는 즐거운 일이기도 하다. 자기의 어린 시절 손꼽장난 추억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어른이 되고 나서도 어린 아이들의 손꼽장난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때로는 어린이들의 손꼽장난에 기꺼이 함께할 수도 있다.

신화와 신앙이 일찍부터 분리되었던 그리스신화의 경우, 그쪽 사람들은 흥겨운 마음으로 신화 이야기를 즐겨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천둥벼락을 내리는 최고신 제우스가 곧 대자연의 무서운 힘이었기 때문에 제우스 숭배가 곧 자연숭배일 수 있었고, 술 마신 사람에게 담력과 영감을 내려준다는 디오니수스 신을 숭배하는 것이 곧 취흥을 즐기는 마음으로 통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우리 제주도 민간신앙의 경우에도, 어떤 마을 당신(堂神)의 가호를 얻어 질병을 낫게하기 위해 굿판을 벌이는 풍속 대신에, 청결과 건강의 수호신의 하명을 따르고 숭배하는 풍속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제주도의 어느 해촌 마을 당곳이 유네스코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영등할망’이 가르쳐주었다는 어획물 증식의 비결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우주의 거대한 힘 앞에 머리를 조아리던 우리의 옛날 조상들이 현대인들에게 전해주는 심령 올림의 메시지를 인정한 것일 터이다.

신화 해석에서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인데, 이 말은 신화의 원전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말도 될 수 있다. 신화의 생성은 원래 불특정 다수 민중의 삶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변천과정에서는 신화작가들의 다대한 참여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호머라는 신화작가의 참여는 그리스신화의 생성과 발전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음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큐피드와 프시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고대그리스보다 훨씬 후대인 로마시대의 한 신화 작가에 의해 창작되어 그리스신화 책에 합쳐진 것이다. 이 경우에도 사랑의 전령신 큐피드의 성격설정에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그 아들 에로스의 성격에서 파생 발전되어 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순전한 창작은 아닌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로마신화는 전시대의 그리스신화를 모방하고 표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쪽 신화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내느냐 하는 것이지 어느 쪽이 더 순수한 신화이나 하는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하겠다. 그리스신화 이야기를 예거할 때에도 그것이 어느 작가에게서 나온 것이냐를 언급하는 것이 상례이고, 그것이 순수한 민간전승이냐를 따지지는 않는 것이 저쪽 사람들의 관행인 것이다. 제주도의 전래설화 <설문대할망> 설화도 원전 시비가 있다. 한 민속학자가 주장하기를, 영실 일대 암벽의 바위기둥들이 설문대할망의 500명 아들들이라는 부분은 원래의 전래설화에는 없었는데 누군가가 끼워넣은 가짜 설화라고 비난했지만, 지금 대부분의 이 지역 사람들은 이것을 그대로 믿고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같은 원전 시비는 공연한 트집이 되어버린 셈이다.

셋째, 제주신화의 태생적 한계인 ‘단한 서사구조’를 벗어나 ‘중층적인 서사구조’의 역동성

을 구사하는 일이 중요함을 말하고자 한다.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대로, 제주신화는 인간을 도와주는 선량한 신들의 이야기이고, 인간의 도리를 말하는 권선징악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사구조의 방향이 쉽사리 예측되는 ‘닫힌 서사구조’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리스신화의 이야기는 서사구조의 방향이 다방면으로 열려있는 관계로 흥미유발의 매력이 있음에 틀림없지만, 이것은 과거의 그리스신화에 있었던 속성이었고 앞으로 신화 모티브의 창작물을 재생산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열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열린 서사구조’를 이루는 그리스신화의 경우에는, 인간이 신들에게 반발할 수 있는 용기의 소유자이고 끝없는 의문과 놀람을 일으키는 인간의 본성 이야기이고 긴박한 전쟁과 사랑 이야기를 띄우는 영웅설화이기 때문에 흥미유발적인 매력이 넘치는 스토리들이었지만, 그 같은 스토리텔링 전략은 과거의 일이고, 그런 스타일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웬만한 변용이나 수정을 가지고는 새로운 흥미를 끌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평소에 어디서나 잘 싸우던 사람에게서는 웬만한 싸움을 보고서 당연하다는 느낌이 앞서게 마련이다. 요컨대, 그리스신화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흥미유발이 손쉬운 ‘열린 서사구조’를 구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이상으로 효과적인 흥미유발 전략이 없음에 반하여, 제주신화의 경우에는 그 본래적인 특징인 닫힌 서사구조 성격에 더하여 새로운 요소인 열린 서사구조까지 함께 구사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스토리를 창안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기존의 지식이나 가치의 체계가 여지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미래의 세계상에 대한 확실한 예측이 불가능한 불확실성 시대라는 점에서 운명적으로 열린 서사구조인 세계를 살고 있다. 원래 제주신화의 특징이었던 닫힌 서사구조에 대해 아무리 애착을 가지려고 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제주신화는 종래의 닫힌 서사구조 특징과 더불어, 앞으로는 운명적으로 꺼안을 수밖에 없는 열린 서사구조 특징까지 모두 지니는 중층적인 서사구조를 취하는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다. 원래 닫힌 서사구조였던 제주신화를 모티브로 하여 발상이 시작된 문예창작물이 역량있는 예술창작자들의 노력으로 중층적 서사구조의 새로운 차원을 열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넷째, 제주신화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과 흥미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제주신화에 담겨진 지역적 역사성이 현재적 의미를 갖고있음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 제주신화를 모티브로 하는 문예창작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것도 바로 신화의 현재적 의미 발견이라는 것이다. 신화라고 하면, 무지몽매한 시대의 유물이라고 일소에 부치는 사람도 있지만, 신화 속에 함축된 문화사적 가치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신화를 일종의 문예작품으로 보면, 그 속에서 찾아지는 상징적 예술적 의미가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의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 어느 지역의 생활풍속이나 언어의 특징이 단기간에 형성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랜 세월을 걸쳐서 생겨난 신화 이야기들도 유구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제주 지역

의 일상적 사회생활 관습, 언어 특징, 장례 의식이나 결혼 풍속의 기묘한 절차, 농어촌 풍속 같은 것의 유래가 제주신화 속에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제주신화에 대해 흥미를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 죽은 발이 가당 보난 늦었주기.’ 흔히 듣는 이런 농담의 유래가 차사본풀이에 나온다는 것을 알면, 이 지역 사람들의 운명적인 시간관이 어땠는지, 까마귀라는 새가 제주사람들의 사령관(死靈觀)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제주신화를 모티브로 문예창작을 시도하는 작가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신화 인식이 역사 인식을 고양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일반 대중에게 제주지역의 생활문화 역사를 알리는 일이 곧 신화 인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는 중요한 사실이다.

제주신화 인식의 동기를 일으키는 제주역사 인식의 대상으로서는 의식주의 생활문화나 언어의 역사 같은 외형적이거나 수단적인 것만이 아니다. 남녀간의 역할분담이나 애정관계 풍속 같은 것도 제주신화에 담겨있는 제주지역 특유의 사회사로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는 말이다. 남녀간 역할분담 담론으로는 제주여성의 강한 생활력이나 자립정신이 많이 지적되는 바이지만, 여기에서는 제주신화에 나타나 있는 화평적인 처첩(妻妾)관계를 거론하고자 한다. 남녀관계 이야기는 워낙 복잡미묘한 사안이라서 논리적이고 명시적인 학문연구로 구명되기 어렵고, 비유적이고 암시적인 신화 이야기에서 그 진면목을 가늠하기 좋은 테마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한 남자의 사랑을 두고 두 여자가 다투는 애정삼각관계에서 화평적인 공생관계를 이룬다는 제주신화 특유의 모티브는, 약삭같은 사랑 독점 욕심이 파멸적인 비극을 자초하는 그리스 신화와 다르다(양영수 166-169). 질투심 강한 헤라 여신이나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있어서 사랑의 상쟁관계는 권력투쟁의 연장이고 공생이 아니라 파멸로 이어진다. 아프로디테는 미남 청년 아도니스와의 사랑을 지하세계의 여왕신인 페르세포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온갖 비상수단을 다 쓴 결과 정작 아도니스 자신은 비명횡사에 이르고 만다. 숲속 사냥을 즐기는 처녀성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자신의 숲속 사냥 동반자인 오리온이 새벽의 여신 에오스의 사랑을 받아주는 것을 알자 그를 화살로 쏘아 죽여버릴 정도로 비정하다. 아르고호 모험대의 영웅 이아손에게 황금양털을 선사해주고 그의 모험을 성공시켜준 메데이 공주는, 이아손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날 그의 신부를 불태워죽이고 이아손과 자신의 소생인 두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복수를 한 다음에 사라져 버린다.

제주신화에 나와있는 화평적인 애정삼각관계는 실지로 존재했던 제주도의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고, 상쟁적인 애정삼각관계가 파멸적인 결말로 끝나는 그리스신화나 육지부의 한국신화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의 재현인 것으로 보인다. 제주신화의 화평적인 애정삼각관계는 여성이 주도하고 있는데, 한 남자를 사랑하는 여성에게 사랑의 경쟁자가 될 다른 여성이 나타날 경우에 이들 두 여성은 서로 배척하지 않고 공생관계를 이를 정도로 유화적이고 관

용적이다. 토산리 일렛당 본풀이에서 부름웃도의 후처로 들어온 여자는 남편의 본처가 마라도로 귀양 간 것을 알고는 자기 스스로 나서서 ‘성님’을 데려다가 같은 울타리 안에서 동거한다. 송당리 당신본풀이의 백주또는 사냥꾼 남편 소천국의 거친 성격 때문에 살림을 분산하지만 새로 들어온 첩과 불화하지는 않는다. 김녕 귀내깃당 본풀이에서, 남편 태자님은 용왕국 셋째 딸과 한라산신의 외딸을 거느리고 살며, 평대리 본풀이에서 남편 명동소천국은 본부인 송씨 할망 말고도 단단춘이를 첩으로 데려다가 사는데도 이들의 관계가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귀포 분향당 본풀이에서, 부름웃도 신랑에게서 억울하게 버림받은 신부 고산국은, 사랑의 배신자인 자기 남편과 동생하고 원수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개 마을에 따로 정착해 살 것을 제안하는데, 이는 애정욕구를 적정선에서 절제하는 긴장되면서도 현실 타협적인 애정삼각관계라고 할 수 있다. 설사 큰부인이 부정을 범했다고 쫓겨나면서 작은부인에게 뒷자리를 빼앗긴다 해도 자기가 살아갈 마련을 해달라고 남편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정도로 제주신화의 여성들은 여성으로서의 존엄한 권리를 잃지 않는다. 문전본풀이에서는, 악독한 욕심꾸러기 첩인 노일저대의 음흉한 간계가 발각이 되어 죽음을 당하지만, 결말에 가서는 조왕신과 나란히 측간신으로 좌정하여 가정수호신 반열에 오른다.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가 갖가지 대담한 애정표현을 하는 중에는 일부이처제도를 허용하는 자유주의적인 면모가 있거니와, 문도령의 사랑 표현을 애타게 기다리는 입장이면서도 자청비의 태도가 비굴하거나 주눅들어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아둔하고 굼뜬 문도령에게 사랑의 기쁨과 상생의 행복을 전해줄 것만 같다. 신화에 나오는 제주여성들은 역사 속의 제주여성들처럼 억압과 궁핍의 수난자들이었을 텐데도 이처럼 관용적이고 유화적이고 상생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대견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어쩌면 이 같은 웅숭깊음은 (백주또나 그 아들들 배필의 경우처럼) 외지에서 제주섬에 들어온 도래인(渡來人)으로서 원주민 남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전력과 관계가 있을 것이 아닌가 상상을 해본다. 척박한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여성성으로 대표되는 생명창조력이 격랑을 헤치며 풍요를 가져온 도래의 여신들을 낳은 것’이라는(한진오, 303) 생각을 하게된다. 남성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존엄하고 당당한 사랑의 기회를 찾는 제주신화 속의 여성들은 현대적인 페미니스트이면서도 사랑과 행복의 기회를 다른 여성과 공유하는 따뜻한 휴머니스트의 면모도 보여준다. 휴머니즘의 따듯함을 잃지 않는 페미니스트의 성격, 바로 이 점이 제주신화가 세계사적인 남녀 간 상생시대의 출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바탕이라고 생각된다. 이 시대는 남성지배 단계를 끝내고 여성지배 시대로 가고 있는 징후가 뚜렷하다. 전통사회에서 남성우위의 인간역사를 보장해준 것은, 물리적인 체력이나 공간지각적 수리분석적인 추론능력 같은 것이었다고 할 때, 남성이 맡았던 일들은 이제 각종 기계가 해낼 수 있는 반면에 감성적인 여성성은 기계장치로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 많다. 앞으로 도래할 여성시대의 불안요소 가운데에는 여성권력의 억압세력화

도 있을 터인 바, 제주신화의 특징인 휴머니즘적인 페미니스트의 출현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여성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출현하는 이혼만연 현상이나 이기적 타산적인 결혼풍조를 막아주는 것도 제주신화에 등장하는 휴머니즘적 페미니스트의 출현이 아닐까 싶다. 세계 역사상 여성시대의 출현을 여타 지역보다 앞서서 거쳤으며 그런 값진 역사를 신화 이야기 속에서 아름답게 재현한 지역이 바로 우리 제주도이다. 제주신화에 담겨진 지역적 역사성에 현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문예창작 재생산을 시도할 때 한 가지 호소력있는 모티브는 소박했던 휴머니즘 시대의 따뜻함을 잃지 않는 페미니스트로서의 여성상이 아닐까 한다.

참고문헌

- 고영자, 『민간신앙』, 『제주생활문화100년』에 수록, 제주문화원, 2014.
- 김선옥, 『오페라를 만나러 가자』, 풀빛, 1997.
- 권선자, 『제주신화, 신화의 섬을 넘어서다』, 북길드, 2018.
- 김용규, 『생각의 시대』, 김영사, 2020.
- 김순이, 『제주신화』, 여름언덕, 2016.
- 김진경, 『고대그리스의 영광과 몰락』, 안티쿠스, 2009.
- 김헌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 남경태, 『시사에 휩해지는 역사』, 메디치미디어, 2013.
- 양영수, 『세계속의 제주신화』, 보고사, 2011.
- 이용숙, 『오페라, 행복한 중독』, 예담, 2003.
- 장일홍,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연극과 인간, 2013.
- 조현설,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2009.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최혜영, 『그리스비극 깊이 읽기』, 푸른역사, 2018.
- 한진오, 『모든 것의 처음, 신화』, 한그루, 2019.
- 현용준, 『제주도신화』, 서문당, 1976.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현용준,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 셰익스피어 저, 이근삼 번역, 『트로이러스와 크레스이다』, 『셰익스피어전집 희곡편』에 수록, 정음문화사, 1983.
- 아리안 에스 저, 류재화 번역, 『신화와 예술』, 청년사, 2002.
- 아이스퀼로스 저, 천병희 역, 『결박된 프로메테우스』, 『아이스퀼로스 비극전집』에 수록, 도서출판 숲, 2008.
- 에우리피데스 저, 천병희 번역, 『오레스테아』, 『에우리피데스 비극전집 1권』에 수록, 도서출판 숲, 2009.
- 제임스 조이스 저, 김중건 번역, 『율리시스』(제4개정판), 도서출판 어문학사, 2016.
- Hamilton, Edith, The Greek Way. New York: The Norton Library, 1958.
- Hamilton, Edith, Mythology; Timeless Tales of Gods and Heroes,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69.
- Hugh, Lloyd-Jones, The Justice of Zeus.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71.
- Magill, Frank N. (edited by), Masterpieces of World Literature, Harper & Row Publishers, 1989.
- Morford, Mark P.O. & Lenardon, Robert J, Classical Mythology. Longman Inc., 1985.

Abstract

A Research for Contemporary Potentiality of Application from Jeju Mythology
(In Comparison with the Case of Greek Mythology)

Young-Soo Yang

Keywords : story-telling reconstruction of myths, open and closed narrative structures, anthropocentric gods and human-wary gods, admonitory forum of mythology, findings of human nature, folk and heroic mythology

Formerly, the key point of mythological studies in this country was directed toward enforcing the nation's cohesiveness and companionship by finding out elements of the national spirits and identity in the folk mythology. Nowadays, the focus of mythological interests is being shifted toward how to put mythologies to practical use in story-telling reconstruction of artistic creation and promotion of culture-tourism products.

Mythological writers with story-telling reconstruction in mind should be close-minded in finding out the exact essence of the narrative structure in a certain mythology. They should be versed in the background of emergence of mythological narrative structure and in the wants of mythologic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group.

Comparative study between Jeju and Greek mythologies is supposed to help to understand the exact character of the narrative structures of Jeju and Greek mythology and to inquire into the real causes of flatness of Jeju mythology. Jeju mythology can be thought to be the stories of anthropocentric gods as contrasted with the Greek human-wary gods. In addition, Jeju mythology can be defined as the admonitory forum of morality transmission as contrasted with Greek mythology as the exciting arena of human nature disclosure. One is the ground of peace and symbiosis, and the other is the ground of struggle and conflict. One is the folk mythology arising from common people, whereas the other is the heroic mythology centering on super-power characters.

Comparative study between Jeju and Greek mythologie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one is based on 'closed narrative structure', whereas the other is based on 'open narrative structure'. As a result of findings of research for differences found in the artistic creations originated in Jeju and Greek mythologies, 'closed narrative structure' gave rise to much confined sphere of creation, whereas 'open narrative structure' gave rise to very broad and diverse sphere of creation.

연구진

연구책임 양 영 수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제주학연구 69

제주신화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 연구 - 그리스신화의 경우와 비교하여

발행인 || 김 순 자

발행일 || 2020년 12월

발행처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 (이도1동 1244-4)

제주문화예술회관 3층

전화, (064) 747-6138 팩스, (064) 747-6140

홈페이지 : www.jst.re.kr

ISBN : 979-11-90748-10-0 9309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제주신화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 연구 - 그리스신화의 경우와 비교하여

양영수

